

A Study on the Policy Needs and Social Aspect
Analysis of Goyang Citizens Using Social Survey

사회조사를 활용한
고양시민 정책욕구 및
사회상 분석 연구

윤 신 희

A Study on the Policy Needs and Social Aspect Analysis of Goyang Citizens Using Social Survey

사회조사를 활용한 고양시민 정책욕구 및 사회상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윤신희(경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저자 윤신희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85-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고양시민의 정책수요 분석	7
제1절 분석방법	9
제2절 분석결과	12
제3장 고양시민의 삶의 질 분석	77
제1절 분석방법	79
제2절 분석결과	82
제4장 고양시 취약계층 및 1인가구 현황 분석	151
제1절 분석방법	153
제2절 분석결과	154
제5장 결론	167
제1절 연구결과	169
제2절 정책제언	175

참고문헌	179
부록	181
Abstract	209

표 목차

[표 1-1]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조사내용	5
[표 2-1]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10
[표 2-2] 분석에 사용된 정책 수요 변수 정리	11
[표 2-3] 응답자 사회경제적 변수의 기술통계량	13
[표 2-4] 정책 수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5
[표 2-4] 정책 수요 변수의 기술통계량(계속)	16
[표 2-5] 연령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17
[표 2-6] 성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18
[표 2-7] 거주지역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19
[표 2-8] 주택형태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20
[표 2-9] 점유형태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21
[표 2-10] 가구소득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22
[표 2-11] 교육수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23
[표 2-12] 결혼상태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24
[표 2-13] 1인가구 여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25
[표 2-14] 연령대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26
[표 2-15] 성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27
[표 2-16] 거주지역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28
[표 2-17] 주택형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29
[표 2-18] 점유형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30
[표 2-19] 가구소득별 일자리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31
[표 2-20] 교육수준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32
[표 2-21] 결혼상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33
[표 2-22] 1인가구 여부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34

[표 2-23] 연령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35
[표 2-24] 성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36
[표 2-25] 거주지역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37
[표 2-26] 주택형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37
[표 2-27] 점유형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38
[표 2-28] 가구소득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39
[표 2-29] 교육수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40
[표 2-30] 결혼상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41
[표 2-31] 1인가구 여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42
[표 2-32] 연령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43
[표 2-33] 성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44
[표 2-34] 거주지역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45
[표 2-35] 주택형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45
[표 2-36] 점유형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46
[표 2-37] 가구소득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47
[표 2-38] 교육수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48
[표 2-39] 결혼상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49
[표 2-40] 1인가구 여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50
[표 2-41] 연령대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1
[표 2-42] 성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2
[표 2-43] 거주지역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3
[표 2-44] 주택형태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3
[표 2-45] 점유형태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4
[표 2-46] 가구소득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5
[표 2-47] 교육수준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6
[표 2-48] 결혼상태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7

[표 2-49] 1인가구 여부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8
[표 2-50] 연령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59
[표 2-51] 성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0
[표 2-52] 거주지역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1
[표 2-53] 주택형태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2
[표 2-54] 점유형태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2
[표 2-55] 가구소득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3
[표 2-56] 교육수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4
[표 2-57] 결혼상태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5
[표 2-58] 1인가구 여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6
[표 2-59] 연령대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7
[표 2-60] 성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8
[표 2-61] 거주지역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9
[표 2-62] 주택형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69
[표 2-63] 점유형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70
[표 2-64] 가구소득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71
[표 2-64] 가구소득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계속)	72
[표 2-65] 교육수준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73
[표 2-66] 결혼상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74
[표 2-67] 1인가구 여부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75
[표 3-1]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특성 변수 설명	80
[표 3-2] 분석에 사용된 삶의 만족도 변수 정리	81
[표 3-3] 행정단위별(구별) 주택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82
[표 3-4] 행정단위별(동별) 주택만족도	83
[표 3-5] 행정단위별(구별) 거주지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84
[표 3-6] 행정단위별(동별) 거주지만족도	85

[표 3-7] 행정단위별(구별) 지하철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86
[표 3-8] 행정단위별(동별) 지하철 이용 만족도	87
[표 3-9] 행정단위별(구별) 기차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88
[표 3-10] 행정단위별(동별) 기차 이용 만족도	89
[표 3-11] 행정단위별(구별) 택시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90
[표 3-12] 행정단위별(동별) 택시 이용 만족도	91
[표 3-13] 행정단위별(구별) 버스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92
[표 3-14] 행정단위별(동별) 버스 이용 만족도	93
[표 3-15] 행정단위별(구별) 여가 생활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94
[표 3-16] 행정단위별(동별) 여가 생활 만족도	95
[표 3-17] 행정단위별(구별) 개인소득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96
[표 3-18] 행정단위별(동별) 개인소득 만족도	97
[표 3-19] 행정단위별(구별) 소비 생활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98
[표 3-20] 행정단위별(동별) 소비 생활 만족도	99
[표 3-21] 행정단위별(구별) 삶에 대한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00
[표 3-22] 행정단위별(동별) 삶에 대한 만족도	101
[표 3-23] 행정단위별(구별) 하는 일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02
[표 3-24] 행정단위별(동별) 하는 일 만족도	103
[표 3-25] 행정단위별(구별) 임금수준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04
[표 3-26] 행정단위별(동별) 임금수준 만족도	105
[표 3-27] 행정단위별(구별) 고용 안정성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06
[표 3-28] 행정단위별(동별) 고용 안정성 만족도	107
[표 3-29] 행정단위별(구별) 근무환경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08
[표 3-30] 행정단위별(동별) 근무환경 만족도	109
[표 3-31] 행정단위별(구별) 근로시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10
[표 3-32] 행정단위별(동별) 근로시간 만족도	111

[표 3-33] 행정단위별(구별) 시정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12
[표 3-34] 행정단위별(동별) 시정 만족도	113
[표 3-35] 행정단위별(구별) 주거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14
[표 3-36] 행정단위별(동별) 주거 만족도	115
[표 3-37] 행정단위별(구별) 경제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16
[표 3-38] 행정단위별(동별) 경제 만족도	117
[표 3-39] 행정단위별(구별) 고용(일자리)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18
[표 3-40] 행정단위별(동별) 고용(일자리) 이용 만족도	119
[표 3-41] 행정단위별(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20
[표 3-42] 행정단위별(동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121
[표 3-43] 행정단위별(구별)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22
[표 3-44] 행정단위별 (동별)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123
[표 3-45] 행정단위별(구별) 교육·보육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24
[표 3-46] 행정단위별(동별) 교육·보육 만족도	125
[표 3-47] 행정단위별(구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26
[표 3-48] 행정단위별(동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이용 만족도	127
[표 3-49] 행정단위별(구별) 교통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28
[표 3-50] 행정단위별(동별) 교통 만족도	129
[표 3-51] 행정단위별(구별) 안전 (생활안전·재난안전)이용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130
[표 3-52] 행정단위별(동별) 안전 (생활안전·재난안전)이용 만족도	131
[표 3-53] 행정단위별(구별) 문화·여가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132
[표 3-54] 행정단위별(동별) 문화·여가 만족도	133
[표 3-55] 행정단위별(구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134
[표 3-56] 행정단위별(동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135
[표 3-57]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138
[표 3-58]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40

[표 3-59]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3)	142
[표 3-60]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4)	145
[표 3-61]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5)	148
[표 3-62] 삶의 질 만족도 및 시정만족도 인과성 결과	149
[표 4-1] 취약계층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155
[표 4-2] 1인가구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157
[표 4-3] 행정단위별(구별) 취약계층 교차분석 결과	158
[표 4-4] 행정단위별(구별) 취약계층 비율	159
[표 4-5] 행정단위(구별) 1인가구 교차분석 결과	160
[표 4-6] 행정단위별(동별) 1인가구 비율	161
[표 4-7] 1인 가구 여부와 만족도 문항 간의 유의성 분석 결과	162

요 약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 사회조사의 활용정도 및 문제점

- 현재의 사회조사 보고서는 고양 시민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일반적인 측면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음. 물론 그 자체만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보려면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 도출이 부족한 실정임
-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과학적 조사 설계와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된 양질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
-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반영한 통계적 분석과 구별 결과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행정 동 단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수준까지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

□ 연구목적

-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양시민의 정책적 수요를 탐색적 맥락에서 분석
- 이를 통해 추후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가 과학적·객관적 시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
- 지속적인 활용 방안 모색

□ 사회조사 정의

- 2016년 부터 매년 실시된 조사자료임.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원칙이며, 자기기입 방법을 병행하고 있음. 조사대상은 표본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106개의 조사구에서 각각 15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함

2. 고양시민 정책욕구 분석

□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수요 분석

- 사회복지 우선지원 분야
 - 출산보육 지원과 노인복지 사업으로 나뉘지는 두 가지 패턴을 보임
- 일자리 창출 우선분야
 - 일자리 발굴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고양시 일자리 창출 추진분야
 -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고양시 역점 추진 분야
 - 고양시 역점 사업중 일자리 정책 사업, 출산지원 정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여성계층 필요 정책
 - 경력 단락 여성의 취업/창업에 대한 정책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 노인계층 필요 정책
 - 일자리 발굴에 대한 정책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 청년계층 필요 정책
 -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3. 고양시민 삶의 질 분석

□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수요 분석

○ 생활 분야

- 교통분야를 살펴보면, 기차 이용 만족도와 버스 이용만족도의 경우 덕양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와 여가분야를 살펴보면, 여가 생활 만족도의 경우 일산동구와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덕양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와 노동 분야를 살펴보면, 고용 안정성 만족도와 근무 환경 만족도의 경우 일산동구의 만족도 평균이 덕양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양 시정 분야를 살펴보면, 시정 만족도의 경우 덕양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분야

- 생활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주거 만족도의 경우 일산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의 경우 덕양구 및 일산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교통만족도의 경우 덕양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안전(생활안전, 재난안전)의 일산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 문화 여가 만족도와 건강(의료·보건) 만족도의 경우 일산 동구 및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덕양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분석

- 대체적으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 관련 만족도 변수들도 높은 것으로 확인
- 연령이 높을수록 지하철 만족도는 높으며,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하철 만족도는 낮음
-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기차 만족도, 버스 만족도의 경우 덕양구가 일산 서구 및 동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여가 생활 만족도의 경우 일산동구가 덕양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삶의 만족도와 시정 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 안정성의 경우 덕양구가 일산동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일자리) 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 동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서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사회적관계 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서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동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여가 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동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의료·보건)의 경우 덕양구가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

- 주거만족도, 경제만족도, 고용(일자리 만족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정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

- 경제만족도, 주민자치(참여)만족도, 교육·보육 만족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 교통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사회적 취약 계층 및 1인 가구 현황 분석

□ 사회적 취약 계층

○ 행정단위(구)별 취약계층 비율

- 각 행정단위(구)별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순으로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덕양구의 경우, 취약계층의 비율이 20%를 넘는 행정동이 4개(삼송동, 성사1동, 원신동, 주교동)로 확인되었음

□ 1인 가구 현황

○ 행정단위(구)별 1인 가구 비율

- 각 행정단위(구)별 1인가구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음
- 일산동구, 덕양구, 일산 서구 순으로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덕양구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30%를 넘는 행정동이 2개(삼송동, 원신동)로 확인되었으며, 일산동구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30%를 넘는 행정동이 2개(백석2동, 장항2동)로 확인되었음

○ 1인 가구의 연령별 만족도

- 1인 가구의 만족도중 지하철 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교통만족도, 문화 및 여가 만족도 등이 청년집단에 비해 중년집단과 노년집단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응답비율 차이가 뚜렷함
- 전체적인 응답패턴과 실제 정책 수요자의 응답 간의 괴리 존재
 -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고양시민 전체 대상 조사가 아닌 해당 정책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세분화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취약계층의 다수가 노년층으로 의료복지 지원 정책의 중점 추진 필요
-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1인 가구집단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양시 사회조사는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되어온 조사로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 입안의 합리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어왔다(고양시 기획담당관, 2020). 조사결과는 매년 발간되는 사회조사 보고서와 조사결과 공표 및 홈페이지 게재, 시·유관 기관·연구원 등에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 결과보고서가 제공되고 있다.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의 활용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상술한 결과공표 과정에서 단순히 응답자 특성별 각 문항의 기술통계량 산출 수준으로 정리되어 공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고양시민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일반적인 측면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과학적 조사설계와 표본추출, 조사절차를 준수하여 수집하는 양질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반영한 통계적 분석뿐만 아니라 세부 행정단위 수준에서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책적 수요, 시민 생활의 수준 파악 그리고 취약계층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고양시 사회자료를 활용하여 고양시민의 정책적 수요를 탐색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추후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가 과학적·객관적 시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며, 추후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방법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에는 응답자들을 사회경제적 특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요, 삶의 질과 관련된 만족도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수요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변수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다. 3장에서는 고양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된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여 고양시 내 행정단위별 수준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만족도 변수들 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4장에서는 고양시의 취약계층 및 1인 가구 특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단위별 현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장, 3장,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실시한다.

연구를 위해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연구자료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는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된 조사자료로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 조사가 원칙이며 필요시 자기기입(응답자 기입)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서, 전체 106개의 조사구에서 각각 1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9년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27일에서 2019년 9월 10일 총 15일간 진행되었다. 2016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준으로 표본추출틀을 구성하였으며,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 서구 3개층으로 층화하고 보조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뒤 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조사 분야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¹⁾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고양시 기획담당관, 2020) 중 조사자료 소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표 1-1]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조사내용

분 야	항목 수	내 용
일반	7	주택형태, 점유형태,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복지	3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노인이 느끼는 문제, 노후 준비
주거와 교통	11	지역 거주기간 및 향후 거주의향, 정주의식, 주택 만족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거주지 소속감, 거주지 만족도, 거주지 불만족 이유, 필요 공공시설, 이주 계획 및 지역, 통근·통학 여부/교통수단 및 시간,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문화와 여가	4	공연 및 스포츠 관람, 평일/주말 시간,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관광 경험 및 개선방안
소득과 소비	6	월평균 가구소득, 개인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소득분배 정도, 생활비 지출, 부채유무 및 원인
사회통합과 공동체	6	자원봉사 참여, 기부, 삶에 대한 만족도, 일의 가치, 대중에 대한 신뢰, 사회적 계층의식
일자리와 노동	4	직업선택 요인, 일자리 창출, 평소 경제활동, 경력단절여성
기타	2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및 개선분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개선분야
특성항목	11	고양시 이미지, 고양시정 만족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역점 분야, 계층별 가장 필요한 정책(여성·노인·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행정정보 취득 경로, 생활환경 만족도, 사회적 신뢰도, 1년 전과 경제사정 비교, 통일로 인한 손익정도
합계	54	

<자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고양시 기획담당관, 2020) p. 32.

제 2 장

고양시민의 정책수요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절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에서 수집된 정책수요 관련 변수들이 고양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맞춤 정책 수립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장의 분석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들과 정책 수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연관될 수 있는 혼동변수들의 효과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대 구분은 응답자의 나이를 바탕으로 청년(19세~34세), 장년(35~49세), 중년(50세~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을 의미하며 남과 여로 구분한 이분변수를, 지역구분 변수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즉 구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주택형태 변수는 응답자의 주택형태를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대세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점유형태 변수는 응답자의 주택점유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 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응답자의 가구 총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하여 이용 하였으며, 교육수준 변수는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 변수로 구분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결혼상태 변수는 응답자의 결혼상태를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로 구분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1인 가구 여부 변수는 응답자의 총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2-1]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변수	설명	구분
연령대	응답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구분	청년(19세~34세), 장년(35~49세), 중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 여성
지역구분	응답자 거주지역을 구단위로 구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주택형태	응답자의 주택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점유형태	응답자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가구소득	응답자의 가구총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교육수준	응답자의 최종학력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결혼상태	응답자의 결혼상태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1인가구 여부	응답자의 총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가구 여부 구분	1인가구, 다인가구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정책 수요 변수들은 총 7가지이며, 다음 [표 2-2]와 같다. 복지 분야의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변수는 “귀하는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항을 이용 하였으며, ① 출산, 보육지원, ② 노인복지사업 확대, ③ 장애인복지 확대, ④ 외국인 지원 사업, ⑤ 요보호 보호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⑥ 기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일자리와 노동 분야의 일자리 창출 우선 부분 변수는 “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① 취업알선(취업박람회 개최 등), ② 창업 등 지원, ③ 일자리 발굴사업, ④ 직업훈련, ⑤ 기업 지원, ⑥ 가사부담 경감, ⑦ 기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고양시 특성항목 분야에서는 다섯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고양시 일자리 창출 추진분야 변수의 경우 “귀하는 다음 중 고양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① 농·축산업 육성 ② 화훼산업 육성 ③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④ 4차 산업 육성 ⑤ 중소·벤처기업 육성 ⑥ 사회적 경제 육성 ⑦ 기타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고양시 역점 분야 변수의 경우 “귀하는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① 일자리 정책, ②

보건·복지 정책, ③ 교육 정책, ④ 문화·예술 정책, ⑤ 주민자치 활성화, ⑥ 교통 정책, ⑦ 안전 정책, ⑧ 환경 정책, ⑨ 기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계층별 필요정책 변수는 “귀하는 다음 계층별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여성 정책, 노인 정책, 청년 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여성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① 출산 지원, ② 영유아 보육 지원, ③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④ 여성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 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서비스, ⑥ 안심귀가 서비스 등 여성안전 강화, ⑦ 여가문화 시설 및 서비스 확대, ⑧ 기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노인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① 일자리 제공, ②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③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④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확대, 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⑥ 기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청년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① 청년배당 확대, ②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③ 취업 및 창업 지원, ④ 직업 교육 지원, ⑤ 등록금,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 ⑥ 여가·문화 시설, ⑦ 기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2-2] 분석에 사용된 정책 수요 변수 정리

변수	문항	측정
사회복지 우선지원 분야	“귀하는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 보육지원, ② 노인복지사업 확대, ③ 장애인복지 확대, ④ 외국인 지원 사업, ⑤ 요구호 보호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⑥ 기타
일자리 창출 우선 부분	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업알선(취업박람회 개최 등), ② 창업 등 지원, ③ 일자리 발굴사업, ④ 직업훈련, ⑤ 기업 지원, ⑥ 가사부담 경감, ⑦ 기타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귀하는 다음 중 고양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축산업 육성, ② 화훼산업 육성, ③ 전시간벤치산업 육성, ④ 4차 산업 육성, ⑤ 중소벤처기업 육성, ⑥ 사회적 경제 육성, ⑦ 기타
고양시 역점 분야	귀하는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자리 정책, ② 보건·복지 정책, ③ 교육 정책, ④ 문화·예술 정책, ⑤ 주민자치 활성화, ⑥ 교통 정책, ⑦ 안전 정책, ⑧ 환경 정책, ⑨ 기타
여성계층 필요정책		① 출산 지원, ② 영유아 보육 지원, ③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④ 여성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 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서비스, ⑥ 안심귀가 서비스 등 여성안전 강화, ⑦ 여가문화 시설 및 서비스 확대, ⑧ 기타
노인계층 필요정책	귀하는 다음 계층별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자리 제공, ②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③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④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확대, 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⑥ 기타
청년계층 필요정책		① 청년배당 확대, ②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③ 취업 및 창업 지원, ④ 직업 교육 지원, ⑤ 등록금,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 ⑥ 여가·문화 시설, ⑦ 기타

제2절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¹⁾.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값은 다음 [표 2-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의 경우 장년(31.47%)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중년(30.59%), 노년(19.54%), 청년(18.40%)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응답자 중 여성이 54.68%, 남성이 45.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분의 경우 응답자 중 덕양구(36.97%)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일산서구(32.99%), 일산동구(30.04%)순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64.04%), 단독주택(15.13%), 연립/다세대(14.62%), 기타(6.21%)순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의 경우 자가(65.71%), 월세(16.29%), 전세(16.02%), 무상(1.9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 8.56%, 100-200만원 미만 10.55%, 200-300만원 미만 15.36%, 300-400만원 미만 16.05%, 400-500만원 미만 15.25%, 500-600만원 미만 10.49%, 600-700만원 미만 7.82%, 700만원 이상 15.93%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 14.00%, 고등학교 30.49%, 전문대 17.77%, 대학교 31.08%, 대학원 6.66%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 응답자가 62.73%로 나타났고, 미혼(25.14%), 이혼/사별/별거(12.12%)순으로 확인되었다. 1인가구 여부의 경우 다인가구가 88.23%, 1인 가구가 11.77%로 확인되었다.

¹⁾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고양시 기획담당관, 2020)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기술통계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기술통계를 제시함을 밝힌다.

[표 2-3] 응답자 사회경제적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빈도	비율 (%)
연령대	청년	586	18.40
	장년	1,002	31.47
	중년	974	30.59
	노년	622	19.54
성별	남성	1,525	45.32
	여성	1,840	54.68
거주지역	덕양구	1,244	36.97
	일산동구	1,011	30.04
	일산서구	1,110	32.99
주택형태	아파트	2,155	64.04
	단독주택	509	15.13
	연립/다세대	492	14.62
	기타	209	6.21
점유형태	자가	2,211	65.71
	전세	539	16.02
	월세	548	16.29
	무상	67	1.9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88	8.56
	100-200만원 미만	355	10.55
	200-300만원 미만	517	15.36
	300-400만원 미만	540	16.05
	400-500만원 미만	513	15.25
	500-600만원 미만	353	10.49
	600-700만원 미만	263	7.82
	700만원 이상	536	15.93
교육수준	중졸이하	471	14.00
	고등학교	1,026	30.49
	전문대	598	17.77
	대학교	1,046	31.08
	대학원	224	6.66
결혼상태	기혼	2,111	62.73
	미혼	846	25.14
	이혼/사별/별거	408	12.12
1인가구 여부	다인 가구	2,969	88.23
	1인 가구	3,96	11.77

다음으로 정책 수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4]과 같다. 사회복지 우선지원 분야의 경우 출산보육지원 41.04%, 노인복지사업 33.16%, 요구호 보호 15.04%, 장애인복지 7.61%, 기타 1.93%, 외국인지원 1.22%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자리 창출 우선 부분의 경우, 일자리발굴사업 32.07%, 취업 알선 18.34%, 창업 등 지원 16.11%, 직업훈련 13.40%, 기업 지원 11.23%, 가사부담 경감 7.67%, 기타 1.19%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37.80%, 사회적경제 26.57%, 4차산업 19.05%, 전시 컨벤션산업 6.89%, 화훼산업 5.38%, 기타 2.26%, 농촌산업 2.05%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양시 역점 분야의 경우, 일자리 35.63%, 교통 21.40%, 보건 복지 17.59%, 교육 7.55%, 환경 5.11%, 문화예술 4.58%, 주민자치활성화 3.27%, 안전 2.73%, 기타 2.14%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지원 24.07%, 출산지원 23.42% 영유아보육지원 21.93%, 여성복지 12.96%, 여성안전 8.68%, 가정폭력,성폭력상담 3.92%, 여가문화 확대 4.34%, 기타 0.68%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계층 필요정책의 경우일자리 32.63%, 서비스확대 27.70%, 노인복지서비스확대 23.45%, 찾아가는서비스 확대 7.93%, 건강의료, 교육문화여가서비스확대 7.82%, 기타 0.48%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취업및창업지원 47.25%,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20.98%, 직업교육지원 14.29%, 등록금,주거비,대출이자지원 11.38%, 청년배당확대 4.49%, 여가문화시설 1.28% 기타 0.33%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4] 정책 수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빈도	비율 (%)
사회복지 우선지원 분야	출산보육지원	1,381	41.04
	노인복지사업	1,116	33.16
	장애인복지	256	7.61
	외국인지원	41	1.22
	요구호 보호	506	15.04
	기타	65	1.93
일자리 창출 우선 부분	취업알선	617	18.34
	창업 등 지원	542	16.11
	일자리발굴사업	1,079	32.07
	직업훈련	451	13.40
	기업지원	378	11.23
	가사부담 경감	258	7.67
	기타	40	1.19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농촌산업	69	2.05
	회궤산업	181	5.38
	전시컨벤션산업	232	6.89
	4차산업	641	19.05
	중소벤처기업	1,272	37.80
	사회적경제	894	26.57
	기타	76	2.26
고양시 역점 분야	일자리	1,199	35.63
	보건복지	592	17.59
	교육	254	7.55
	문화예술	154	4.58
	주민자치활성화	110	3.27
	교통	720	21.40
	안전	92	2.73
	환경	172	5.11
	기타	72	2.14

[표 2-4] 정책 수요 변수의 기술통계량(계속)

변 수	구 분	빈 도	비 율 (%)
여성계층 필요정책	출산 지원	788	23.42
	영유아보육 지원	738	21.93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810	24.07
	여성복지	436	12.9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132	3.92
	여성안전	292	8.68
	여가문화 확대	146	4.34
	기타	23	0.68
노인계층 필요정책	일자리	1,098	32.63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789	23.45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932	27.70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263	7.82
	찾아가는서비스 확대	267	7.93
	기타	16	0.48
청년계층 필요정책	청년배당 확대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06	20.98
	취업맞창업 지원	1,590	47.25
	직업교육 지원	481	14.29
	등록금,주거비,대출이자 지원	383	11.38
	여가문화시설	43	1.28
	기타	11	0.33

2. 사회복지 우선지원 분야 분석결과

앞서 살펴본 각 정책수요 변수들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내는지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1) 연령대별 분석결과

연령대와 사회복지 우선지원분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01$)에서 연령대별로 사회복지 우선분야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과 장년층의 경우 모두 출산보육지원(각각 59.73%, 51.10%)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중년층은 노인복지사업(39.73%)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출산보육지원(32.14%)의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노년의 경우 노인복지 사업(61.2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5] 연령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 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보육 지원	350	59.73	512	51.10	313	32.14	134	21.54	1,309	41.11
노인 복지사업	82	13.99	237	23.65	387	39.73	381	61.25	1,087	34.14
장애인 복지	47	8.02	68	6.79	81	8.32	41	6.59	237	7.44
외국인 지원	8	1.37	9	0.90	14	1.44	2	0.32	33	1.04
요구호 보호	83	14.16	157	15.67	162	16.63	56	9.00	458	14.38
기타	16	2.73	19	1.90	17	1.75	8	1.29	60	1.88
계	586	100	1,002	100	974	100	622	100	3,184	100

비고 : $\chi^2(15) = 423.9800^{***}$ / $p < 0.05$: *, $p < 0.01$: **, $p < 0.001$: ***

2) 성별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의 경우, 성별과 사회복지 우선분야 간의 통계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보육지원과 노인복지 사업, 요구호 보호, 장애인복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성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 분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보육지원	627	41.11	754	40.98	1,381	41.04
노인복지사업	497	32.59	619	33.64	1,116	33.16
장애인복지	118	7.74	138	7.50	256	7.61
외국인지원	27	1.77	14	0.76	41	1.22
요구호 보호	229	15.02	277	15.05	506	15.04
기타	27	1.77	38	2.07	65	1.93
계	1,525	100	1,840	100	3,365	100

비교 : $\chi^2(5) = 7.6956 / p < 0.05 : *$, $p < 0.01 : **$, $p < 0.001 : ***$

3) 거주지역별 분석결과

거주지역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복지 우선분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덕양구와 일산 동구, 일산서구 모두 출산보육지원, 노인복지 사업, 요구호 보호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동일한 패턴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덕양구는 출산보육지원과 요구호 보호보다는 노인복지 사업의 응답비율이 일산동구 및 서구에 비해 높은 패턴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7] 거주지역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 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보육지원	506	40.68	442	43.72	433	39.01	1,381	41.04
노인복지사업	436	35.05	330	32.64	350	31.53	1,116	33.16
장애인복지	103	8.28	62	6.13	91	8.20	256	7.61
외국인지원	18	1.45	10	0.99	13	1.17	41	1.22
요구호 보호	168	13.50	152	15.03	186	16.76	506	15.04
기타	13	1.05	15	1.48	37	3.33	65	1.93
계	1,244	100	1,011	100	1,110	100	3,365	100

비교 : $\chi^2(10) = 31.8884^{***} / p < 0.05 : *$, $p < 0.01 : **$, $p < 0.001 : ***$

4) 주택형태별 분석결과

응답자의 주택형태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주택형태에 따른 사회복지 우선분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와 기타 형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출산보육 지원(각각 43.85%, 44.98%)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형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노인복지사업(각각 40.64%, 40.24%)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주택형태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보육 지원	945	43.85	159	31.24	183	37.20	94	44.98	1,381	41.04
노인 복지사업	653	30.30	207	40.67	198	40.24	58	27.75	1,116	33.16
장애인 복지	179	8.31	31	6.09	33	6.71	13	6.22	256	7.61
외국인 지원	23	1.07	7	1.38	7	1.42	4	1.91	41	1.22
요구호 보호	320	14.85	93	18.27	56	11.38	37	17.70	506	15.04
기타	35	1.62	12	2.36	15	3.05	3	1.44	65	1.93
계	2,155	100	509	100	492	100	209	100	3,365	100

비교 : $\chi^2(15) = 61.2860^{***} / p < 0.05 : *$, $p < 0.01 : **$, $p < 0.001 : ***$

5) 점유형태별 분석결과

응답자의 점유형태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사회복지 우선분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와 전세인 응답자들의 경우 출산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각각 42.33%, 46.57%), 점유형태가 월세와 무상인 응답자들의 경우 노인복지 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3.39%, 38.81%).

[표 2-9] 점유형태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보육 지원	936	42.33	251	46.57	177	32.30	17	25.37	1,381	41.04
노인 복지사업	751	33.97	156	28.94	183	33.39	26	38.81	1,116	33.16
장애인 복지	151	6.83	41	7.61	57	10.40	7	10.45	256	7.61
외국인 지원	23	1.04	5	0.93	13	2.37	0	0.00	41	1.22
요구호 보호	309	13.98	75	13.91	106	19.34	16	23.88	506	15.04
기타	41	1.85	11	2.04	12	2.19	1	1.49	65	1.93
계	2,211	100	539	100	548	100	67	100	3,365	100

비교 : $\chi^2(15) = 51.6555$ *** / $p < 0.05$: *, $p < 0.01$: **, $p < 0.001$: ***

6) 가구소득별 분석결과

응답자의 가구소득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가구소득에 따른 사회복지 우선분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의 경우 노인 복지 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각각 53.82%, 42.25%), 이외의 집단에서는 출산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가구소득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 분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200~ 300만원		300~ 400만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 보육 지원	53	18.40	110	30.99	208	40.23	238	44.07
노인 복지 사업	155	53.82	150	42.25	164	31.72	183	33.89
장애인 복지	31	10.76	42	11.83	29	5.61	26	4.81
외국인 지원	1	0.35	1	0.28	14	2.71	10	1.85
요구호 보호	46	15.97	49	13.80	86	16.63	72	13.33
기타	2	0.69	3	0.85	16	3.09	11	2.04
계	288	100	355	100	517	100	540	100

구 분	400~ 500만원		500~ 600만원		600~ 700만원		7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 보육 지원	248	48.34	149	42.21	129	49.05	246	45.90	1,381	41.04
노인 복지 사업	142	27.68	110	31.16	65	24.71	147	27.43	1,116	33.16
장애인 복지	29	5.65	34	9.63	12	4.56	53	9.89	256	7.61
외국인 지원	6	1.17	3	0.85	1	0.38	5	0.93	41	1.22
요구호 보호	74	14.42	53	15.01	52	19.77	74	13.81	506	15.04
기타	14	2.73	4	1.13	4	1.52	11	2.05	65	1.93
계	513	100	353	100	263	100	536	100	3,365	100

비고 : $\chi^2(35) = 190.1141^{***}$ / $p < 0.05$: * , $p < 0.01$: ** , $p < 0.001$: ***

7) 교육수준별 분석결과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복지 우선분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노인복지사업(59.24%)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외의 집단에서는 모두 출산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교육수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분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 보육 지원	90	19.11	367	35.77	294	49.16	522	49.90	108	48.21	1,381	41.04
노인 복지사 업	279	59.24	366	35.67	162	27.09	250	23.90	59	26.34	1,116	33.16
장애인 복지	45	9.55	80	7.80	24	4.01	90	8.60	17	7.59	256	7.61
외국인 지원	7	1.49	16	1.56	8	1.34	5	0.48	5	2.23	41	1.22
요구호 보호	42	8.92	181	17.64	91	15.22	162	15.49	30	13.39	506	15.04
기타	8	1.70	16	1.56	19	3.18	17	1.63	5	2.23	65	1.93
계	471	100	1,026	100	598	100	1,046	100	224	100	3,365	100

비고 : $\chi^2(20) = 274.9776^{***}$

$p < 0.05$: *, $p < 0.01$: **, $p < 0.001$: ***

8) 결혼 상태별 분석결과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결혼상태에 따른 사회복지 우선분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 미혼집단의 경우 출산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각각 42.35%, 46.45%), 이혼/사별/별거 응답자들의 경우 노인복지사업의 응답비율(51.23%)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2] 결혼상태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분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보육 지원	894	42.35	393	46.45	94	23.04	1,381	41.04
노인 복지사업	743	35.20	164	19.39	209	51.23	1,116	33.16
장애인 복지	139	6.58	86	10.17	31	7.60	256	7.61
외국인 지원	26	1.23	12	1.42	3	0.74	41	1.22
요구호 보호	279	13.22	167	19.74	60	14.71	506	15.04
기타	30	1.42	24	2.84	11	2.70	65	1.93
계	2,111	100	846	100	408	100	3,365	100

비고 : $\chi^2(10) = 166.3678$ ***

$p < 0.05$: *, $p < 0.01$: **, $p < 0.001$: ***

9) 1인 가구 여부별 사회복지우선분야 분석결과

응답자의 1인가구 여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1$) 1인가구 여부에 따른 사회복지 우선분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인가구의 경우, 출산보육지원(42.40%)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1인가구의 경우 노인복지사업(39.65%)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3] 1인가구 여부별 사회복지 우선분야 분석결과

구 분	다인가구		1인가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보육 지원	1,259	42.40	122	30.81	1,381	41.04
노인복지 사업	959	32.30	157	39.65	1,116	33.16
장애인 복지	220	7.41	36	9.09	256	7.61
외국인 지원	37	1.25	4	1.01	41	1.22
요구호 보호	439	14.79	67	16.92	506	15.04
기타	55	1.85	10	2.53	65	1.93
계	2,969	100	396	100	3,365	100

비고 : $\chi^2(5) = 20.4683$ **

$p < 0.05$: *, $p < 0.01$: **, $p < 0.001$: ***

3. 일자리 창출 우선 부분 분석결과

1) 연령대별 분석결과

연령대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 발굴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연령대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업알선	116	19.80	147	14.67	195	20.02	133	21.38	591	18.56
창업 등 지원	88	15.02	175	17.47	143	14.68	89	14.31	495	15.55
일자리발굴사업	154	26.28	297	29.64	336	34.50	237	38.10	1,024	32.16
직업훈련	90	15.36	140	13.97	142	14.58	50	8.04	422	13.25
기업지원	90	15.36	121	12.08	91	9.34	62	9.97	364	11.43
가사부담경감	41	7.00	111	11.08	57	5.85	40	6.43	249	7.82
기타	7	1.19	11	1.10	10	1.03	11	1.77	39	1.22
계	586	100	1,002	100	974	100	622	100	3,184	100

비교 : $\chi^2(15) = 84.7260$ ***

$p < 0.05$: *, $p < 0.01$: **, $p < 0.001$: ***

2) 성별 분석결과

성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 발굴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남성은 창업 등 지원, 직업훈련, 기업지원의 항목의 응답비율이 여성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가사부담 경감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2-15] 성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 분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업알선	268	17.57	349	18.97	617	18.34
창업 등 지원	274	17.97	268	14.57	542	16.11
일자리발굴사업	469	30.75	610	33.15	1,079	32.07
직업훈련	222	14.56	229	12.45	451	13.40
기업지원	207	13.57	171	9.29	378	11.23
가사부담 경감	64	4.20	194	10.54	258	7.67
기타	21	1.38	19	1.03	40	1.19
계	1,525	100	1,840	100	3,365	100

비교 : $\chi^2(5) = 69.3873$ ***

$p < 0.05$: *, $p < 0.01$: **, $p < 0.001$: ***

3) 거주지역별 분석결과

거주지역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응답비율의 패턴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덕양구의 경우 일자리 발굴사업(30.47%), 취업알선(21.62%), 창업 등 지원(15.84%)의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일산동구는 일자리발굴사업(34.32%), 창업등 지원(17.61%), 기업지원(14.94%)의 순, 일산서구의 경우 일자리발굴사업(31.80%), 취업알선(19.64%), 직업훈련(15.14%)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2-16] 거주지역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 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업알선	269	21.62	130	12.86	218	19.64	617	18.34
창업 등 지원	197	15.84	178	17.61	167	15.05	542	16.11
일자리발굴사업	379	30.47	347	34.32	353	31.80	1,079	32.07
직업훈련	156	12.54	127	12.56	168	15.14	451	13.40
기업지원	123	9.89	151	14.94	104	9.37	378	11.23
가사부담 경감	111	8.92	72	7.12	75	6.76	258	7.67
기타	9	0.72	6	0.59	25	2.25	40	1.19
계	1,244	100	1,011	100	1,110	100	3,365	100

비교 : $\chi^2(12) = 71.2495$ ***

$p < 0.05$: *, $p < 0.01$: **, $p < 0.001$: ***

4) 주택형태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응답비율의 패턴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일자리 발굴사업(31.37%), 취업알선(18.05%), 창업 등 지원(15.69%) 순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일자리발굴사업(31.04%), 창업 등 지원(19.45%), 취업알선(18.66%)순으로 연립/다세대인 경우, 일자리발굴사업(37.20%), 취업알선(21.75%), 창업 등 지원(12.20%)순으로 기타의 경우, 일자리발굴사업(29.67%), 기업지원(23.92%), 창업 등 지원(18.66%)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2-17] 주택형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업알선	389	18.05	95	18.66	107	21.75	26	12.44	617	18.34
창업 등 지원	344	15.96	99	19.45	60	12.20	39	18.66	542	16.11
일자리발굴사업	676	31.37	158	31.04	183	37.20	62	29.67	1,079	32.07
직업훈련	319	14.80	48	9.43	63	12.80	21	10.05	451	13.40
기업지원	229	10.63	69	13.56	30	6.10	50	23.92	378	11.23
가사부담경감	173	8.03	33	6.48	42	8.54	10	4.78	258	7.67
기타	25	1.16	7	1.38	7	1.42	1	0.48	40	1.19
계	2,155	100	509	100	492	100	209	100	3,365	100

비교 : $\chi^2(18) = 82.2162$ ***

$p < 0.05$: *, $p < 0.01$: **, $p < 0.001$: ***

5) 점유형태별 분석결과

점유형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응답비율의 패턴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세 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일자리 발굴사업, 창업 등 지원, 취업알선의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전세 유형 또한 취업알선과 창업등 지원의 응답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무상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들에 비해 일자리 발굴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8] 점유형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업알선	405	18.32	87	16.14	111	20.26	14	20.90	617	18.34
창업 등 지원	333	15.06	90	16.70	107	19.53	12	17.91	542	16.11
일자리발굴사업	697	31.52	176	32.65	190	34.67	16	23.88	1,079	32.07
직업훈련	315	14.25	60	11.13	68	12.41	8	11.94	451	13.40
기업지원	277	12.53	56	10.39	37	6.75	8	11.94	378	11.23
가사부담경감	156	7.06	64	11.87	32	5.84	6	8.96	258	7.67
기타	28	1.27	6	1.11	3	0.55	3	4.48	40	1.19
계	2,211	100	539	100	548	100	67	100	3,365	100

비고 : $\chi^2(18) = 52.7199$ ***

$p<0.05$: *, $p<0.01$: **, $p<0.001$: ***

6) 가구소득별 분석결과

가구소득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응답비율의 패턴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 발굴 사업과 취업알선의 응답비율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 패턴을 보인 반면, 기업지원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9] 가구소득별 일자리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알선	70	24.31	85	23.94	100	19.34	95	17.59
창업 등 지원	50	17.36	44	12.39	84	16.25	97	17.96
일자리발굴사업	108	37.50	133	37.46	173	33.46	176	32.59
직업훈련	25	8.68	38	10.70	65	12.57	62	11.48
기업지원	15	5.21	22	6.20	55	10.64	60	11.11
가사부담 경감	15	5.21	31	8.73	32	6.19	44	8.15
기타	5	1.74	2	0.56	8	1.55	6	1.11
계	288	100	355	100	517	100	540	100

구분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알선	76	14.81	53	15.01	59	22.43	79	14.74	617	18.34
창업 등 지원	80	15.59	55	15.58	37	14.07	95	17.72	542	16.11
일자리발굴사업	159	30.99	119	33.71	70	26.62	141	26.31	1,079	32.07
직업훈련	82	15.98	61	17.28	33	12.55	85	15.86	451	13.40
기업지원	70	13.65	33	9.35	44	16.73	79	14.74	378	11.23
가사부담 경감	41	7.99	30	8.50	14	5.32	51	9.51	258	7.67
기타	5	0.97	2	0.57	6	2.28	6	1.12	40	1.19
계	513	100	353	100	263	100	536	100	3,365	100

비교 : $\chi^2(42) = 112.1203$ *** / $p < 0.05$: *, $p < 0.01$: **, $p < 0.001$: ***

7) 교육수준별 분석결과

가구소득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응답비율의 패턴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 발굴 사업과 취업알선의 응답비율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 반면, 창업 등 지원과 기업지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0] 교육수준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 분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업알선	114	24.20	210	20.47	101	16.89	164	15.68	28	12.50	617	18.34
창업 등 지원	59	12.53	163	15.89	109	18.23	171	16.35	40	17.86	542	16.11
일자리 발굴사업	188	39.92	340	33.14	181	30.27	305	29.16	65	29.02	1,079	32.07
직업훈련	39	8.28	145	14.13	81	13.55	152	14.53	34	15.18	451	13.40
기업지원	29	6.16	93	9.06	71	11.87	150	14.34	35	15.63	378	11.23
가사부담 경감	34	7.22	69	6.73	49	8.19	90	8.60	16	7.14	258	7.67
기타	8	1.70	6	0.58	6	1.00	14	1.34	6	2.68	40	1.19
계	471	100	1,026	100	598	100	1,046	100	224	100	3,365	100

비고 : $\chi^2(24) = 90.4479$ ***

$p<0.05$: *, $p<0.01$: **, $p<0.001$: ***

8) 결혼상태별 분석결과

결혼상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응답비율의 패턴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기혼과 이혼/사별/별거 집단의 경우 일자리발굴 사업, 취업알선, 창업 등 지원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미혼집단의 경우, 일자리 발굴사업, 창업 등 지원, 취업알선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사별/별거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일자리 발굴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업지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1] 결혼상태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 분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업알선	367	17.39	161	19.03	89	21.81	617	18.34
창업 등 지원	312	14.78	164	19.39	66	16.18	542	16.11
일자리발굴사업	684	32.40	245	28.96	150	36.76	1,079	32.07
직업훈련	276	13.07	127	15.01	48	11.76	451	13.40
기업지원	250	11.84	109	12.88	19	4.66	378	11.23
가사부담경감	200	9.47	32	3.78	26	6.37	258	7.67
기타	22	1.04	8	0.95	10	2.45	40	1.19
계	2,111	100	846	100	408	100	3,365	100

비고 : $\chi^2(12) = 71.2229$ ***

$p < 0.05$: *, $p < 0.01$: **, $p < 0.001$: ***

9) 1인가구 여부별 분석결과

1인가구 여부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일자리 발굴사업, 취업알선, 창업 등 지원, 직업훈련, 기업지원, 가사부담 경감, 기타 순의 응답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2] 1인가구 여부별 일자리 창출 우선부분 분석결과

구 분	다인가구		1인가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취업알선	536	18.05	536	20.45	617	18.34
창업 등 지원	477	16.07	477	16.41	542	16.11
일자리발굴사업	946	31.86	946	33.59	1,079	32.07
직업훈련	399	13.44	399	13.13	451	13.40
기업지원	341	11.49	341	9.34	378	11.23
가사부담 경감	237	7.98	237	5.30	258	7.67
기타	33	1.11	33	1.77	40	1.19
계	2,969	100	2,969	100	3,365	100

비교 : $\chi^2(6) = 7.4377$

$p < 0.05$: *, $p < 0.01$: **, $p < 0.001$: ***

4.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1) 연령대별 분석결과

연령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으나, 낮은 연령대(청년, 장년)에서는 상대적으로 4차 산업과 전시컨벤션 사업의 비율이 높았으며, 높은 연령대(중년, 노년)에서는 농촌산업과 화훼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연령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 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농촌산업	8	1.37	11	1.10	18	1.85	31	4.98	68	2.14
화훼산업	24	4.10	41	4.09	59	6.06	52	8.36	176	5.53
전시컨벤션산업	52	8.87	82	8.18	59	6.06	34	5.47	227	7.13
4차산업	123	20.99	221	22.06	158	16.22	75	12.06	577	18.12
중소벤처기업	207	35.32	372	37.13	403	41.38	237	38.10	1,219	38.29
사회적경제	161	27.47	257	25.65	261	26.80	165	26.53	844	26.51
기타	11	1.88	18	1.80	16	1.64	28	4.50	73	2.29
계	586	100	1,002	100	974	100	622	100	3,184	100

비교 : $\chi^2(18) = 101.1409$ ***

$p < 0.05$: *, $p < 0.01$: **, $p < 0.001$: ***

2) 성별 분석결과

성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으나, 남성은 4차산업의 응답비율, 여성은 사회적 경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성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분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농촌산업	34	2.23	35	1.90	69	2.05
화훼산업	74	4.85	107	5.82	181	5.38
전시컨벤션산업	103	6.75	129	7.01	232	6.89
4차산업	313	20.52	328	17.83	641	19.05
중소벤처기업	620	40.66	652	35.43	1,272	37.80
사회적경제	349	22.89	545	29.62	894	26.57
기타	32	2.10	44	2.39	76	2.26
계	1,525	100	1,840	100	3,365	100

비교 : $\chi^2(6) = 25.7044$ ***

$p < 0.05$: *, $p < 0.01$: **, $p < 0.001$: ***

3) 거주지역별 분석결과

거주지역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으나, 덕양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화훼산업의 응답비율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서는 4차 산업과 전시컨벤션산업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거주지역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농촌산업	17	1.37	27	2.67	25	2.25	69	2.05
화훼산업	108	8.68	27	2.67	46	4.14	181	5.38
전시컨벤션산업	57	4.58	71	7.02	104	9.37	232	6.89
4차산업	220	17.68	204	20.18	217	19.55	641	19.05
중소벤처기업	448	36.01	432	42.73	392	35.32	1,272	37.80
사회적경제	372	29.90	233	23.05	289	26.04	894	26.57
기타	22	1.77	17	1.68	37	3.33	76	2.26
계	1,244	100	1,011	100	1,110	100	3,365	100

비고 : $\chi^2(12) = 96.5884$ *** / $p < 0.05$: *, $p < 0.01$: **, $p < 0.001$: ***

4) 주택형태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 형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립/다세대 형태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와 기타 형태의 경우 4차 산업과 전시컨벤션 산업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주택형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촌산업	34	1.58	26	5.11	6	1.22	3	1.44	69	2.05
화훼산업	121	5.61	25	4.91	28	5.69	7	3.35	181	5.38
전시컨벤션산업	154	7.15	30	5.89	29	5.89	19	9.09	232	6.89
4차산업	433	20.09	72	14.15	91	18.50	45	21.53	641	19.05
중소벤처기업	811	37.63	215	42.24	161	32.72	85	40.67	1,272	37.80
사회적경제	553	25.66	128	25.15	168	34.15	45	21.53	894	26.57
기타	49	2.27	13	2.55	9	1.83	5	2.39	76	2.26
계	2,155	100	509	100	492	100	209	100	3,365	100

비고 : $\chi^2(18) = 62.0245$ *** / $p < 0.05$: *, $p < 0.01$: **, $p < 0.001$: ***

5) 점유형태별 분석결과

점유형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응답비율의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2-27] 점유형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촌산업	46	2.08	8	1.48	14	2.55	1	1.49	69	2.05
화훼산업	116	5.25	36	6.68	29	5.29	0	0.00	181	5.38
전시간벤 션산업	156	7.06	40	7.42	32	5.84	4	5.97	232	6.89
4차산업	429	19.40	109	20.22	95	17.34	8	11.94	641	19.05
중소벤처 기업	864	39.08	192	35.62	186	33.94	30	44.78	1,272	37.80
사회적경 제	549	24.83	144	26.72	179	32.66	22	32.84	894	26.57
기타	51	2.31	10	1.86	13	2.37	2	2.99	76	2.26
계	2,211	100	539	100	548	100	67	100	3,365	100

비고 : $\chi^2(18) = 27.8603$ / $p < 0.05$: *, $p < 0.01$: **, $p < 0.001$: ***

6) 가구소득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집단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와 4차 산업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8] 가구소득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촌산업	14	4.86	14	3.94	10	1.93	8	1.48	8	1.56
회취산업	18	6.25	25	7.04	25	4.84	28	5.19	25	4.87
전시컨벤션산업	11	3.82	27	7.61	30	5.80	44	8.15	23	4.48
4차산업	32	11.11	50	14.08	90	17.41	113	20.93	110	21.44
중소벤처기업	95	32.99	125	35.21	217	41.97	205	37.96	209	40.74
사회적경제	107	37.15	102	28.73	132	25.53	132	24.44	131	25.54
기타	11	3.82	12	3.38	13	2.51	10	1.85	7	1.36
계	288	100	355	100	517	100	540	100	513	100

구 분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촌산업	2	0.57	6	2.28	7	1.31	69	2.05
회취산업	14	3.97	18	6.84	28	5.22	181	5.38
전시컨벤션산업	20	5.67	34	12.93	43	8.02	232	6.89
4차산업	79	22.38	48	18.25	119	22.20	641	19.05
중소벤처기업	126	35.69	88	33.46	207	38.62	1,272	37.80
사회적경제	104	29.46	64	24.33	122	22.76	894	26.57
기타	8	2.27	5	1.90	10	1.87	76	2.26
계	353	100	263	100	536	100	3,365	100

비고 : $\chi^2(42) = 112.1203$ *** / $p < 0.05$: *, $p < 0.01$: **, $p < 0.001$: ***

7) 교육수준별 분석결과

교육수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화훼산업과 사회적 경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시컨벤션산업과 4차산업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교육수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분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농촌산업	28	5.94	24	2.34	2	0.33	7	0.67	8	3.57	69	2.05
화훼산업	45	9.55	54	5.26	31	5.18	42	4.02	9	4.02	181	5.38
전시컨벤션산업	22	4.67	60	5.85	40	6.69	87	8.32	23	10.27	232	6.89
4차산업	46	9.77	181	17.64	127	21.24	230	21.99	57	25.45	641	19.05
중소벤처기업	156	33.12	419	40.84	226	37.79	391	37.38	80	35.71	1,272	37.80
사회적경제	153	32.48	274	26.71	159	26.59	265	25.33	43	19.20	894	26.57
기타	21	4.46	14	1.36	13	2.17	24	2.29	4	1.79	76	2.26
계	471	100	1,026	100	598	100	1,046	100	224	100	3,365	100

비고 : $\chi^2(24) = 151.9701$ ***

$p < 0.05$: *, $p < 0.01$: **, $p < 0.001$: ***

8) 결혼상태별 분석결과

결혼상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으며, 기혼과 미혼 집단에서는 4차 산업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별/별거 집단의 경우 화훼산업과 사회적 경제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0] 결혼상태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분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농촌산업	38	1.80	11	1.30	20	4.90	69	2.05
화훼산업	119	5.64	28	3.31	34	8.33	181	5.38
전시간벤 션산업	135	6.40	74	8.75	23	5.64	232	6.89
4차산업	403	19.09	202	23.88	36	8.82	641	19.05
중소벤처 기업	844	39.98	282	33.33	146	35.78	1,272	37.80
사회적경 제	535	25.34	232	27.42	127	31.13	894	26.57
기타	37	1.75	17	2.01	22	5.39	76	2.26
계	2,111	100	846	100	408	100	3,365	100

비고 : $\chi^2(12) = 103.9624$ ***

$p < 0.05$: *, $p < 0.01$: **, $p < 0.001$: ***

9) 1인가구 여부별 분석결과

1인가구 여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으며,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경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인가구의 경우 4차 산업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1] 1인가구 여부별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 분석결과

구 분	다인가구		1인가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농촌산업	54	1.82	15	3.79	69	2.05
화훼산업	159	5.36	22	5.56	181	5.38
전시컨벤션산업	207	6.97	25	6.31	232	6.89
4차산업	589	19.84	52	13.13	641	19.05
중소벤처기업	1,132	38.13	140	35.35	1,272	37.80
사회적경제	771	25.97	123	31.06	894	26.57
기타	57	1.92	19	4.80	76	2.26
계	2,969	100	396	100	3,365	100

비고 : $\chi^2(6) = 32.0401$ ***

$p < 0.05$: *, $p < 0.01$: **, $p < 0.001$: ***

5.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 결과

1) 연령대별 분석결과

연령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청년, 장년, 중년층의 경우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년층은 보건복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년층의 경우 교육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낮은 연령대일수록 교통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 연령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203	34.64	354	35.33	415	42.61	183	29.42	1,155	36.28
보건복지	58	9.90	140	13.97	171	17.56	205	32.96	574	18.03
교육	27	4.61	127	12.67	32	3.29	24	3.86	210	6.60
문화예술	46	7.85	38	3.79	30	3.08	13	2.09	127	3.99
주민자치 활성화	22	3.75	36	3.59	29	2.98	21	3.38	108	3.39
교통	177	30.20	221	22.06	186	19.10	106	17.04	690	21.67
안전	20	3.41	20	2.00	26	2.67	20	3.22	86	2.70
환경	22	3.75	41	4.09	66	6.78	34	5.47	163	5.12
기타	11	1.88	25	2.50	19	1.95	16	2.57	71	2.23
계	586	100	1,002	100	974	100	622	100	3,184	100

비교 : $\chi^2(24) = 283.8657$ ***

$p < 0.05$: *, $p < 0.01$: **, $p < 0.001$: ***

2) 성별 우선분야 분석결과

성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3] 성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 분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565	37.05	634	34.46	1,199	35.63
보건복지	259	16.98	333	18.10	592	17.59
교육	108	7.08	146	7.93	254	7.55
문화예술	74	4.85	80	4.35	154	4.58
주민자치활성화	45	2.95	65	3.53	110	3.27
교통	330	21.64	390	21.20	720	21.40
안전	37	2.43	55	2.99	92	2.73
환경	69	4.52	103	5.60	172	5.11
기타	38	2.49	34	1.85	72	2.14
계	1,525	100	1,840	100	3,365	100

비고 : $\chi^2(8) = 8.8309$

$p < 0.05$: *, $p < 0.01$: **, $p < 0.001$: ***

3) 거주지역별 분석결과

연령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의 경우 덕양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교통의 경우 일산서구와 일산 동구가 덕양구에 비해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4] 거주지역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 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405	32.56	387	38.28	407	36.67	1,199	35.63
보건복지	280	22.51	168	16.62	144	12.97	592	17.59
교육	108	8.68	66	6.53	80	7.21	254	7.55
문화예술	65	5.23	36	3.56	53	4.77	154	4.58
주민자치활성화	40	3.22	37	3.66	33	2.97	110	3.27
교통	234	18.81	218	21.56	268	24.14	720	21.40
안전	39	3.14	31	3.07	22	1.98	92	2.73
환경	55	4.42	54	5.34	63	5.68	172	5.11
기타	18	1.45	14	1.38	40	3.60	72	2.14
계	1,244	100	1,011	100	1,110	100	3,365	100

비고 : $\chi^2(16) = 74.5107$ *** / $p < 0.05$: *, $p < 0.01$: **, $p < 0.001$: ***

4) 주택형태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 경우 보건복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아파트와 기타의 경우 교통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주택형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729	33.83	214	42.04	174	35.37	82	39.23	1,199	35.63
보건복지	349	16.19	101	19.84	114	23.17	28	13.40	592	17.59
교육	191	8.86	18	3.54	36	7.32	9	4.31	254	7.55
문화예술	99	4.59	22	4.32	22	4.47	11	5.26	154	4.58
주민자치활성화	67	3.11	19	3.73	13	2.64	11	5.26	110	3.27
교통	516	23.94	71	13.95	88	17.89	45	21.53	720	21.40
안전	56	2.60	22	4.32	9	1.83	5	2.39	92	2.73
환경	100	4.64	36	7.07	24	4.88	12	5.74	172	5.11
기타	48	2.23	6	1.18	12	2.44	6	2.87	72	2.14
계	2,155	100	509	100	492	100	209	100	3,365	100

비고 : $\chi^2(24) = 82.8867$ ***/ $p < 0.05$: *, $p < 0.01$: **, $p < 0.001$: ***

5) 점유형태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외의 경우 보건복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아파트와 기타의 경우 교통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점유형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774	35.01	186	34.51	219	39.96	20	29.85	1,199	35.63
보건복지	340	15.38	94	17.44	142	25.91	16	23.88	592	17.59
교육	180	8.14	48	8.91	24	4.38	2	2.99	254	7.55
문화예술	104	4.70	26	4.82	23	4.20	1	1.49	154	4.58
주민자치 활성화	75	3.39	14	2.60	20	3.65	1	1.49	110	3.27
교통	521	23.56	118	21.89	71	12.96	10	14.93	720	21.40
안전	55	2.49	14	2.60	17	3.10	6	8.96	92	2.73
환경	110	4.98	33	6.12	23	4.20	6	8.96	172	5.11
기타	52	2.35	6	1.11	9	1.64	5	7.46	72	2.14
계	2,211	100	539	100	548	100	67	100	3,365	100

비고 : $\chi^2(24) = 99.4947$ *** / $p < 0.05$: *, $p < 0.01$: **, $p < 0.001$: ***

6) 가구소득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만원 미만 집단과 700만원 미만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집단의 경우 보건복지의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았으며, 700만원 이상 집

단의 경우 교통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응답비율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37] 가구소득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94	32.64	133	37.46	216	41.78	215	39.81	190	37.04
보건복지	113	39.24	95	26.76	77	14.89	84	15.56	90	17.54
교육	15	5.21	8	2.25	25	4.84	51	9.44	42	8.19
문화예술	8	2.78	13	3.66	24	4.64	20	3.70	20	3.90
주민자치활성화	6	2.08	9	2.54	30	5.80	21	3.89	11	2.14
교통	29	10.07	59	16.62	90	17.41	100	18.52	109	21.25
안전	6	2.08	14	3.94	13	2.51	12	2.22	19	3.70
환경	15	5.21	19	5.35	27	5.22	27	5.00	22	4.29
기타	2	0.69	5	1.41	15	2.90	10	1.85	10	1.95
계	288	100	355	100	517	100	540	100	513	100

구 분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127	35.98	79	30.04	145	27.05	1,199	35.63
보건복지	37	10.48	33	12.55	63	11.75	592	17.59
교육	35	9.92	26	9.89	52	9.70	254	7.55
문화예술	21	5.95	15	5.70	33	6.16	154	4.58
주민자치활성화	7	1.98	13	4.94	13	2.43	110	3.27
교통	90	25.50	74	28.14	169	31.53	720	21.40
안전	6	1.70	7	2.66	15	2.80	92	2.73
환경	18	5.10	10	3.80	34	6.34	172	5.11
기타	12	3.40	6	2.28	12	2.24	72	2.14
계	353	100	263	100	536	100	3,365	100

비고 : $\chi^2(56) = 282.7407$ ***

$p < 0.05$: *, $p < 0.01$: **, $p < 0.001$: ***

7) 교육수준별 분석결과

교육수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교통과 교육의 응답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졌으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보건복지의 응답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8] 교육수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분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169	35.88	399	38.89	226	37.79	327	31.26	78	34.82	1,199	35.63
보건복지	150	31.85	200	19.49	78	13.04	136	13.00	28	12.50	592	17.59
교육	15	3.18	69	6.73	53	8.86	95	9.08	22	9.82	254	7.55
문화예술	9	1.91	52	5.07	29	4.85	55	5.26	9	4.02	154	4.58
주민자치활성화	18	3.82	37	3.61	24	4.01	29	2.77	2	0.89	110	3.27
교통	64	13.59	160	15.59	132	22.07	297	28.39	67	29.91	720	21.40
안전	15	3.18	38	3.70	15	2.51	22	2.10	2	0.89	92	2.73
환경	22	4.67	63	6.14	31	5.18	48	4.59	8	3.57	172	5.11
기타	9	1.91	8	0.78	10	1.67	37	3.54	8	3.57	72	2.14
계	471	100	1,026	100	598	100	1,046	100	224	100	3,365	100

비고 : $\chi^2(32) = 218.1695$ ***

$p < 0.05$: *, $p < 0.01$: **, $p < 0.001$: ***

8) 결혼상태별 분석결과

결혼상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별/별거의 경우 보건복지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의 경우, 기혼과 미혼 집단이 이혼/사별/별거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미혼집단은 문화예술의 응답비율이 다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9] 결혼상태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 분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753	35.67	298	35.22	148	36.27	1,199	35.63
보건복지	376	17.81	97	11.47	119	29.17	592	17.59
교육	169	8.01	71	8.39	14	3.43	254	7.55
문화예술	65	3.08	77	9.10	12	2.94	154	4.58
주민자치 활성화	66	3.13	27	3.19	17	4.17	110	3.27
교통	468	22.17	199	23.52	53	12.99	720	21.40
안전	52	2.46	27	3.19	13	3.19	92	2.73
환경	110	5.21	41	4.85	21	5.15	172	5.11
기타	52	2.46	9	1.06	11	2.70	72	2.14
계	2,111	100	846	100	408	100	3,365	100

비교 : $\chi^2(16) = 135.2686$ ***

$p<0.05$: *, $p<0.01$: **, $p<0.001$: ***

9) 1인가구 여부별 분석결과

1인가구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보건복지의 응답비율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의 응답비율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40] 1인가구 여부별 고양시 역점분야 분석결과

구분	다인가구		1인가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1,068	35.97	131	33.08	1,199	35.63
보건복지	486	16.37	106	26.77	592	17.59
교육	239	8.05	15	3.79	254	7.55
문화예술	132	4.45	22	5.56	154	4.58
주민자치활성화	97	3.27	13	3.28	110	3.27
교통	665	22.40	55	13.89	720	21.40
안전	79	2.66	13	3.28	92	2.73
환경	141	4.75	31	7.83	172	5.11
기타	62	2.09	10	2.53	72	2.14
계	2,969	100	396	100	3,365	100

비교 : $\chi^2(8) = 50.7536$ ***

$p < 0.05$: *, $p < 0.01$: **, $p < 0.001$: ***

6.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 결과

1) 연령대별 분석결과

연령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출산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장년층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영유아보육지원, 출산지원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년층의 경우 경력여성의 취창업, 출산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출산지원, 영유아보육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여성복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41] 연령대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지원	174	29.69	149	14.87	215	22.07	204	32.80	742	23.30
영유아보육 지원	120	20.48	302	30.14	168	17.25	113	18.17	703	22.08
경력단절여 성의 취창업	114	19.45	304	30.34	264	27.10	100	16.08	782	24.56
여성복지	58	9.90	114	11.38	149	15.30	100	16.08	421	13.22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33	5.63	34	3.39	32	3.29	19	3.05	118	3.71
여성안전	67	11.43	60	5.99	87	8.93	49	7.88	263	8.26
여가문화 확대	17	2.90	35	3.49	53	5.44	27	4.34	132	4.15
기타	3	0.51	4	0.40	6	0.62	10	1.61	23	0.72
계	586	100	1,002	100	974	100	622	100	3,184	100

비교 : $\chi^2(21) = 202.7143$ ***

$p < 0.05$: *, $p < 0.01$: **, $p < 0.001$: ***

2) 성별 우선분야 분석결과

성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출산지원, 영유아 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2] 성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지원	401	26.30	387	21.03	788	23.42
영유아보육지원	376	24.66	362	19.67	738	21.93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351	23.02	459	24.95	810	24.07
여성복지	148	9.70	288	15.65	436	12.96
가정폭력,성폭력상담	58	3.80	74	4.02	132	3.92
여성안전	109	7.15	183	9.95	292	8.68
여가문화 확대	69	4.52	77	4.18	146	4.34
기타	13	0.85	10	0.54	23	0.68
계	1,525	100	1,840	100	3,365	100

비고 : $\chi^2(7) = 52.3624$ ***/ $p < 0.05$: * , $p < 0.01$: ** , $p < 0.001$: ***

3) 거주지역별 분석결과

거주지역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덕양구와 일산 서구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과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일산동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산동구의 경우 출산지원과 영유아 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이 덕양구와 일산서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43] 거주지역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지원	266	21.38	283	27.99	239	21.53	788	23.42
영유아보육지원	268	21.54	252	24.93	218	19.64	738	21.93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312	25.08	202	19.98	296	26.67	810	24.07
여성복지	171	13.75	109	10.78	156	14.05	436	12.96
가정폭력,성폭력상담	49	3.94	37	3.66	46	4.14	132	3.92
여성안전	114	9.16	85	8.41	93	8.38	292	8.68
여가문화확대	63	5.06	38	3.76	45	4.05	146	4.34
기타	1	0.08	5	0.49	17	1.53	23	0.68
계	1,244	100	1,011	100	1,110	100	3,365	100

비고 : $\chi^2(14) = 57.9657$ *** / $p < 0.05$: *, $p < 0.01$: **, $p < 0.001$: ***

4) 주택형태별 분석결과

주거형태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단독주택, 기타의 경우 출산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4] 주택형태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지원	465	21.58	144	28.29	116	23.58	63	30.14	788	23.42
영유아보육지원	504	23.39	91	17.88	93	18.90	50	23.92	738	21.93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516	23.94	116	22.79	142	28.86	36	17.22	810	24.07
여성복지	276	12.81	66	12.97	69	14.02	25	11.96	436	12.96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95	4.41	17	3.34	15	3.05	5	2.39	132	3.92
여성안전	199	9.23	47	9.23	28	5.69	18	8.61	292	8.68
여가문화 확대	89	4.13	26	5.11	21	4.27	10	4.78	146	4.34
기타	11	0.51	2	0.39	8	1.63	2	0.96	23	0.68
계	2,155	100	509	100	492	100	209	100	3,365	100

비고 : $\chi^2(21) = 49.5638$ *** / $p < 0.05$: *, $p < 0.01$: **, $p < 0.001$: ***

5) 점유형태별 분석결과

점유형태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2-45] 점유형태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지원	533	24.11	107	19.85	129	23.54	19	28.36	788	23.42
영유아보육지원	507	22.93	118	21.89	98	17.88	15	22.39	738	21.93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523	23.65	153	28.39	122	22.26	12	17.91	810	24.07
여성복지	275	12.44	65	12.06	85	15.51	11	16.42	436	12.96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80	3.62	20	3.71	30	5.47	2	2.99	132	3.92
여성안전	187	8.46	52	9.65	51	9.31	2	2.99	292	8.68
여가문화 확대	92	4.16	22	4.08	27	4.93	5	7.46	146	4.34
기타	14	0.63	2	0.37	6	1.09	1	1.49	23	0.68
계	2,211	100	539	100	548	100	67	100	3,365	100

비고 : $\chi^2(21) = 32.0829$

$p < 0.05$: *, $p < 0.01$: **, $p < 0.001$: ***

6) 가구소득별 분석결과

가구소득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지원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응답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산지원과 여성복지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응답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46] 가구소득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지원	89	30.90	84	23.66	158	30.56	116	21.48	108	21.05
영유아보육지원	54	18.75	56	15.77	95	18.38	114	21.11	115	22.42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59	20.49	84	23.66	116	22.44	156	28.89	128	24.95
여성복지	42	14.58	61	17.18	65	12.57	73	13.52	69	13.45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13	4.51	12	3.38	13	2.51	25	4.63	25	4.87
여성안전	22	7.64	41	11.55	36	6.96	32	5.93	45	8.77
여가문화 확대	7	2.43	11	3.10	29	5.61	21	3.89	21	4.09
기타	2	0.69	6	1.69	5	0.97	3	0.56	2	0.39
계	288	100	355	100	517	100	540	100	513	100

구 분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지원	67	18.98	51	19.39	115	21.46	788	23.42
영유아보육지원	88	24.93	77	29.28	139	25.93	738	21.93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88	24.93	63	23.95	116	21.64	810	24.07
여성복지	42	11.90	27	10.27	57	10.63	436	12.96
가정폭력,성폭력상담	15	4.25	8	3.04	21	3.92	132	3.92
여성안전	28	7.93	29	11.03	59	11.01	292	8.68
여가문화 확대	22	6.23	8	3.04	27	5.04	146	4.34
기타	3	0.85	0	0.00	2	0.37	23	0.68
계	353	100	263	100	536	100	3,365	100

비고 : $\chi^2(49) = 108.0085$ *** / $p < 0.05$: *, $p < 0.01$: **, $p < 0.001$: ***

7) 교육수준별 분석결과

교육수준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유아 보육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아 질수록 출산지원과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7] 교육수준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지원	147	31.2 ₁	243	23.6 ₈	131	21.9 ₁	226	21.6 ₁	41	18.3 ₀	788	23.4 ₂
영유아 보육지원	68	14.4 ₄	200	19.4 ₉	136	22.7 ₄	263	25.1 ₄	71	31.7 ₀	738	21.9 ₃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97	20.5 ₉	228	22.2 ₂	152	25.4 ₂	270	25.8 ₁	63	28.1 ₃	810	24.0 ₇
여성복지	83	17.6 ₂	147	14.3 ₃	75	12.5 ₄	120	11.4 ₇	11	4.91	436	12.9 ₆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13	2.76	48	4.68	21	3.51	35	3.35	15	6.70	132	3.92
여성안전	43	9.13	95	9.26	53	8.86	88	8.41	13	5.80	292	8.68
여가문화 확대	16	3.40	59	5.75	21	3.51	40	3.82	10	4.46	146	4.34
기타	4	0.85	6	0.58	9	1.51	4	0.38	0	0.00	23	0.68
계	471	100	1,026	100	598	100	1,046	100	224	100	3,365	100

비교 : $\chi^2(28) = 103.8755$ ***

$p < 0.05$: *, $p < 0.01$: **, $p < 0.001$: ***

8) 결혼상태별 분석결과

결혼상태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미혼과 이혼/사별, 별거의 경우 출산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사별/별거의 경우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미혼의 경우 여성안전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8] 결혼상태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지원	431	20.42	245	28.96	112	27.45	788	23.42
영유아보육지원	527	24.96	140	16.55	71	17.40	738	21.93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578	27.38	162	19.15	70	17.16	810	24.07
여성복지	263	12.46	92	10.87	81	19.85	436	12.96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65	3.08	53	6.26	14	3.43	132	3.92
여성안전	140	6.63	114	13.48	38	9.31	292	8.68
여가문화 확대	94	4.45	36	4.26	16	3.92	146	4.34
기타	13	0.62	4	0.47	6	1.47	23	0.68
계	2,111	100	846	100	408	100	3,365	100

비고 : $\chi^2(14) = 143.6798$ ***

$p < 0.05$: *, $p < 0.01$: **, $p < 0.001$: ***

9) 1인가구 여부별 분석결과

1인가구 여부별 여성계층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경우출산지원과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인가구의 경우 영유아 보육지원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의 응답비율이 1인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1인가구 여부별 여성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다인가구		1인가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출산지원	663	22.33	125	31.57	788	23.42
영유아보육지원	675	22.73	63	15.91	738	21.93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729	24.55	81	20.45	810	24.07
여성복지	373	12.56	63	15.91	436	12.96
가정폭력,성폭력상담	120	4.04	12	3.03	132	3.92
여성안전	256	8.62	36	9.09	292	8.68
여가문화 확대	135	4.55	11	2.78	146	4.34
기타	18	0.61	5	1.26	23	0.68
계	2,969	100	396	100	3,365	100

비고 : $\chi^2(7) = 31.3277$ ***

$p < 0.05$: *, $p < 0.01$: **, $p < 0.001$: ***

7.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 결과

1) 연령대별 분석결과

연령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장년, 중년층에서는 일 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노인층에서는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와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의 응답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0] 연령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215	36.69	370	36.93	313	32.14	138	22.19	1,036	32.54
노인복지 서비스확대	127	21.67	217	21.66	218	22.38	182	29.26	744	23.37
건강의료 서비스확대	138	23.55	253	25.25	287	29.47	212	34.08	890	27.95
교육문화 여가서비스확대	59	10.07	88	8.78	70	7.19	27	4.34	244	7.66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45	7.68	71	7.09	79	8.11	59	9.49	254	7.98
기타	2	0.34	3	0.30	7	0.72	4	0.64	16	0.50
계	586	100	1,002	100	974	100	622	100	3,184	100

비교 : $\chi^2(15) = 77.4805$ ***

$p < 0.05$: *, $p < 0.01$: **, $p < 0.001$: ***

2) 성별 분석결과

연령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일자리,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순으로 여성은 일자리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찾아가는서비스 확대,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성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530	34.75	568	30.87	1,098	32.63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377	24.72	412	22.39	789	23.45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409	26.82	523	28.42	932	27.70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113	7.41	150	8.15	263	7.82
찾아가는서비스 확대	88	5.77	179	9.73	267	7.93
기타	8	0.52	8	0.43	16	0.48
계	1,525	100	1,840	100	3,365	100

비고 : $\chi^2(5) = 23.7530$ ***

$p < 0.05$: *, $p < 0.01$: **, $p < 0.001$: ***

3) 거주지역별 분석결과

거주지역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덕양구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일자리,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에 반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우 일자리,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2-52] 거주지역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356	28.62	350	34.62	392	35.32	1,098	32.63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337	27.09	201	19.88	251	22.61	789	23.45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374	30.06	272	26.90	286	25.77	932	27.70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88	7.07	68	6.73	107	9.64	263	7.82
찾아가는서비스 확대	86	6.91	119	11.77	62	5.59	267	7.93
기타	3	0.24	1	0.10	12	1.08	16	0.48
계	1,244	100	1,011	100	1,110	100	3,365	100

비교 : $\chi^2(10) = 75.1648$ ***

$p < 0.05$: *, $p < 0.01$: **, $p < 0.001$: ***

4) 주택형태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와 기타의 경우 일자리,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일자리,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립/다세대는 경우 일자리,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2-53] 주택형태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714	33.13	147	28.88	152	30.89	85	40.67	1,098	32.63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508	23.57	107	21.02	135	27.44	39	18.66	789	23.45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602	27.94	149	29.27	124	25.20	57	27.27	932	27.70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190	8.82	27	5.30	35	7.11	11	5.26	263	7.82
찾아가는서비스 확대	129	5.99	79	15.52	43	8.74	16	7.66	267	7.93
기타	12	0.56	0	0.00	3	0.61	1	0.48	16	0.48
계	2,155	100	509	100	492	100	209	100	3,365	100

비고 : $\chi^2(15) = 74.7309$ *** / $p < 0.05$: *, $p < 0.01$: **, $p < 0.001$: ***

5) 점유형태별 분석결과

점유형태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응답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54] 점유형태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745	33.70	162	30.06	178	32.48	13	19.40	1,098	32.63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499	22.57	135	25.05	139	25.36	16	23.88	789	23.45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606	27.41	145	26.90	153	27.92	28	41.79	932	27.70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176	7.96	44	8.16	38	6.93	5	7.46	263	7.82
찾아가는서비스 확대	172	7.78	52	9.65	39	7.12	4	5.97	267	7.93
기타	13	0.59	1	0.19	1	0.18	1	1.49	16	0.48
계	2,211	100	539	100	548	100	67	100	3,365	100

비고 : $\chi^2(15) = 20.1785$ / $p < 0.05$: *, $p < 0.01$: **, $p < 0.001$: ***

6) 가구소득별 분석결과

가구소득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집단과 100만원~200만원 집단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5] 가구소득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59	20.49	99	27.89	162	31.33	176	32.59	191	37.23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81	28.13	96	27.04	135	26.11	136	25.19	98	19.10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99	34.38	106	29.86	143	27.66	139	25.74	133	25.93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15	5.21	22	6.20	29	5.61	42	7.78	47	9.16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34	11.81	30	8.45	45	8.70	43	7.96	42	8.19
기타	0	0.00	2	0.56	3	0.58	4	0.74	2	0.39
계	288	100	355	100	517	100	540	100	513	100

구 분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122	34.56	99	37.64	190	35.45	1,098	32.63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73	20.68	51	19.39	119	22.20	789	23.45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93	26.35	78	29.66	141	26.31	932	27.70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31	8.78	20	7.60	57	10.63	263	7.82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31	8.78	14	5.32	28	5.22	267	7.93
기타	3	0.85	1	0.38	1	0.19	16	0.48
계	353	100	263	100	536	100	3,365	100

비교 : $\chi^2(35) = 76.6910$ *** / $p<0.05$: *, $p<0.01$: **, $p<0.001$: ***

7) 교육수준별 분석결과

교육수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와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6] 교육수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125	26.54	298	29.04	214	35.79	367	35.09	94	41.96	1,098	32.63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131	27.81	254	24.76	140	23.41	222	21.22	42	18.75	789	23.45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151	32.06	310	30.21	137	22.91	284	27.15	50	22.32	932	27.70
교육문화 여가서비스 확대	18	3.82	63	6.14	49	8.19	106	10.13	27	12.05	263	7.82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44	9.34	96	9.36	54	9.03	62	5.93	11	4.91	267	7.93
기타	2	0.42	5	0.49	4	0.67	5	0.48	0	0.00	16	0.48
계	471	100	1,026	100	598	100	1,046	100	224	100	3,365	100

비교 : $\chi^2(20) = 80.9099$ ***

$p < 0.05$: *, $p < 0.01$: **, $p < 0.001$: ***

8) 결혼상태별 분석결과

결혼계층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5$)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과 미혼집단의 경우 일자리,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이혼/사별/별거 집단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일자리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57] 결혼상태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709	33.59	287	33.92	102	25.00	1,098	32.63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483	22.88	195	23.05	111	27.21	789	23.45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584	27.66	217	25.65	131	32.11	932	27.70
교육문화 여가서비스 확대	162	7.67	77	9.10	24	5.88	263	7.82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160	7.58	68	8.04	39	9.56	267	7.93
기타	13	0.62	2	0.24	1	0.25	16	0.48
계	2,111	100	846	100	408	100	3,365	100

비교 : $\chi^2(10) = 23.1022 *$

$p < 0.05$: *, $p < 0.01$: **, $p < 0.001$: ***

9) 1인 가구 여부별 분석결과

1인가구 여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 < 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인가구의 경우 일자리,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에 반해, 1인가구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일자리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8] 1인가구 여부별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다인가구		1인가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일자리	998	33.61	100	25.25	1,098	32.63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689	23.21	100	25.25	789	23.45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798	26.88	134	33.84	932	27.70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대	237	7.98	26	6.57	263	7.82
찾아가는서비스 확대	232	7.81	35	8.84	267	7.93
기타	15	0.51	1	0.25	16	0.48
계	2,969	100	396	100	3,365	100

비고 : $\chi^2(5) = 16.0509$ **

$p < 0.05$: *, $p < 0.01$: **, $p < 0.001$: ***

8.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 결과

1) 연령대별 분석결과

연령대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취업 및 창업 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청년집단의 경우 취업 및 창업지원,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년, 중년, 노년 집단의 경우, 취업 및 창업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9] 연령대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청년배당 확대	35	5.97	34	3.39	44	4.52	27	4.34	140	4.40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05	17.92	214	21.36	216	22.18	146	23.47	681	21.39
취업및창업 지원	251	42.83	459	45.81	485	49.79	314	50.48	1,509	47.39
직업교육 지원	64	10.92	145	14.47	154	15.81	102	16.40	465	14.60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123	20.99	130	12.97	65	6.67	24	3.86	342	10.74
여가문화 시설	5	0.85	18	1.80	7	0.72	6	0.96	36	1.13
기타	3	0.51	2	0.20	3	0.31	3	0.48	11	0.35
계	586	100	1,002	100	974	100	622	100	3,184	100

비교 : $\chi^2(18) = 135.6180$ ***

$p < 0.05$: *, $p < 0.01$: **, $p < 0.001$: ***

2) 성별 분석결과

성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응답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60] 성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남성		여성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청년배당 확대	70	4.59	81	4.40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317	20.79	389	21.14	706	20.98
취업및창업 지원	743	48.72	847	46.03	1,590	47.25
직업교육 지원	221	14.49	260	14.13	481	14.29
등록금,주거비,대출이자 지원	149	9.77	234	12.72	383	11.38
여가문화시설	17	1.11	26	1.41	43	1.28
기타	8	0.52	3	0.16	11	0.33
계	1,525	100	1,840	100	3,365	100

비고 : $\chi^2(6) = 11.7450$ / $p < 0.05$: *, $p < 0.01$: **, $p < 0.001$: ***

3) 거주지역별 분석결과

거주지역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취업 및 창업 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일산동구와 일산 서구의 경우 취업 및 창업 지원의 응답비율이 덕양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은 덕양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 거주지역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배당 확대	69	5.55	34	3.36	48	4.32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285	22.91	218	21.56	203	18.29	706	20.98
취업및창업 지원	543	43.65	504	49.85	543	48.92	1,590	47.25
직업교육 지원	170	13.67	142	14.05	169	15.23	481	14.29
등록금,주거비,대출 이자 지원	166	13.34	104	10.29	113	10.18	383	11.38
여가문화시설	9	0.72	7	0.69	27	2.43	43	1.28
기타	2	0.16	2	0.20	7	0.63	11	0.33
계	1,244	100	1,011	100	1,110	100	3,365	100

비고 : $\chi^2(12) = 47.4689$ ***/ $p < 0.05$: *, $p < 0.01$: **, $p < 0.001$: ***

4) 주택형태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5$)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취업 및 창업 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집단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2] 주택형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배당 확대	105	4.87	14	2.75	22	4.47	10	4.78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54	21.07	113	22.20	111	22.56	28	13.40	706	20.98
취업및창업 지원	983	45.61	272	53.44	225	45.73	110	52.63	1,590	47.25
직업교육 지원	326	15.13	58	11.39	64	13.01	33	15.79	481	14.29
등록금,주거비,대출 이자 지원	246	11.42	50	9.82	60	12.20	27	12.92	383	11.38
여가문화시설	34	1.58	2	0.39	7	1.42	0	0.00	43	1.28
기타	7	0.32	0	0.00	3	0.61	1	0.48	11	0.33
계	2,155	100	509	100	492	100	209	100	3,365	100

비고 : $\chi^2(18) = 34.8712$ */ $p < 0.05$: *, $p < 0.01$: **, $p < 0.001$: ***

5) 점유형태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취업 및 창업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집단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교육 지원의 응답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 집단의 경우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3] 점유형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청년배당 확대	87	3.93	25	4.64	36	6.57	3	4.48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69	21.21	114	21.15	111	20.26	12	17.91	706	20.98
취업및창업 지원	1,072	48.48	246	45.64	240	43.80	32	47.76	1,590	47.25
직업교육 지원	329	14.88	64	11.87	76	13.87	12	17.91	481	14.29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217	9.81	77	14.29	82	14.96	7	10.45	383	11.38
여가문화 시설	30	1.36	11	2.04	2	0.36	0	0.00	43	1.28
기타	7	0.32	2	0.37	1	0.18	1	1.49	11	0.33
계	2,211	100	539	100	548	100	67	100	3,365	100

비고 : $\chi^2(18) = 38.3060$ **

$p < 0.05$: *, $p < 0.01$: **, $p < 0.001$: ***

6) 가구소득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취업 및 창업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창업지원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4] 가구소득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배당 확대	16	5.56	18	5.07	24	4.64	26	4.81	18	3.51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91	31.60	90	25.35	111	21.47	107	19.81	100	19.49
취업및창업 지원	121	42.01	141	39.72	249	48.16	271	50.19	238	46.39
직업교육 지원	38	13.19	60	16.90	65	12.57	71	13.15	87	16.96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21	7.29	42	11.83	59	11.41	58	10.74	54	10.53
여가문화시설	1	0.35	4	1.13	7	1.35	3	0.56	13	2.53
기타	0	0.00	0	0.00	2	0.39	4	0.74	3	0.58
계	288	100	355	100	517	100	540	100	513	100

[표 2-64] 가구소득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계속)

구 분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배당 확대	13	3.68	12	4.56	24	4.48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64	18.13	52	19.77	91	16.98	706	20.98
취업맞춤업 지원	168	47.59	136	51.71	266	49.63	1,590	47.25
직업교육 지원	50	14.16	33	12.55	77	14.37	481	14.29
등록금,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	49	13.88	27	10.27	73	13.62	383	11.38
여가문화시설	8	2.27	2	0.76	5	0.93	43	1.28
기타	1	0.28	1	0.38	0	0.00	11	0.33
계	353	100	263	100	536	100	3,365	100

비교 : $\chi^2(42) = 75.0856$ ** / $p < 0.05$: *, $p < 0.01$: **, $p < 0.001$: ***

7) 교육수준별 분석결과

주택형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취업 및 창업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창업지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5] 교육수준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청년배당 확대	29	6.16	52	5.07	23	3.85	44	4.21	3	1.34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23	26.11	238	23.20	126	21.07	186	17.78	33	14.73	706	20.98
취업및 창업지원	223	47.35	472	46.00	279	46.66	506	48.37	110	49.11	1,590	47.25
직업교육 자원	68	14.44	128	12.48	78	13.04	161	15.39	46	20.54	481	14.29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22	4.67	119	11.60	85	14.21	129	12.33	28	12.50	383	11.38
여가문화시설	5	1.06	14	1.36	4	0.67	16	1.53	4	1.79	43	1.28
기타	1	0.21	3	0.29	3	0.50	4	0.38	0	0.00	11	0.33
계	471	100	1,026	100	598	100	1,046	100	224	100	3,365	100

비고 : $\chi^2(24) = 66,3411$ ***

$p < 0.05$: *, $p < 0.01$: **, $p < 0.001$: ***

8) 결혼상태별 분석결과

결혼상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01$)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취업 및 창업지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별/별거 집단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집단의 경우,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6] 결혼상태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분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청년배당 확대	74	3.51	54	6.38	23	5.64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37	20.70	164	19.39	105	25.74	706	20.98
취업맞춤업 지원	1,036	49.08	369	43.62	185	45.34	1,590	47.25
직업교육 지원	339	16.06	85	10.05	57	13.97	481	14.29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194	9.19	159	18.79	30	7.35	383	11.38
여가문화 시설	23	1.09	13	1.54	7	1.72	43	1.28
기타	8	0.38	2	0.24	1	0.25	11	0.33
계	2,111	100	846	100	408	100	3,365	100

비고 : $\chi^2(12) = 95,1645$ ***

$p < 0.05$: *, $p < 0.01$: **, $p < 0.001$: ***

9) 1인가구 여부별 분석결과

1인가구 여부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응답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2-67] 1인가구 여부별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구 분	다인가구		1인가구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청년배당 확대	136	4.58	15	3.79	151	4.49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616	20.75	90	22.73	706	20.98
취업맞창업 지원	1,410	47.49	180	45.45	1,590	47.25
직업교육 지원	419	14.11	62	15.66	481	14.29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340	11.45	43	10.86	383	11.38
여가문화시설	39	1.31	4	1.01	43	1.28
기타	9	0.30	2	0.51	11	0.33
계	2,969	100	396	100	3,365	100

비고 : $\chi^2(6) = 2.8269$

$p < 0.05$: *, $p < 0.01$: **, $p < 0.001$: ***

제 3 장

고양시민의 삶의 질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절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에서 수집된 삶의 질 관련 만족도 변수들을 이용하여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고양시 내 행정단위 별로 삶의 질 수준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한다. 더 나아가 고양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고양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 내 행정단위 별 삶의 질 관련 변수들의 경우, 먼저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여 각 구별 간(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통계적 차이를 확인한다. 이어 각 행정단위 별 단순 기술통계를 산출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장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응답자 특성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을 의미하며 남과 여로 구분한 이분변수를, 지역구분 변수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즉 구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주택형태 변수는 응답자의 주택형태를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대세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점유형태 변수는 응답자의 주택점유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 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응답자의 가구 총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이용하였으며, 교육수준 변수는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 졸 변수로 구분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결혼상태 변수는 응답자의 결혼상태를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로 구분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1인가구 여부 변수는 응답자의 총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3-1]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특성 변수 설명

변수	설명	구분
연령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연령을 1세 단위 연속형 변수로 사용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 여성
지역구분	응답자 거주지역을 구단위로 구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주택형태	응답자의 주택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기타
점유형태	응답자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가구소득	응답자의 가구총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교육수준	응답자의 최종학력	중졸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결혼상태	응답자의 결혼상태	기혼, 미혼, 이혼/사별/별거
1인가구 여부	응답자의 총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가구 여부 구분	1인가구, 다인가구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삶의 질 관련 만족도 변수들은 다음 [표 3-2]와 같으며, 사회 조사의 영역구분을 따라 총 6가지 분야로 구성하였다. 먼저 주거와 교통 분야의 경우, 총 6가지 주택 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지하철 이용 만족도, 기차 이용 만족도, 택시 이용 만족도, 버스 이용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문화와 여가 분야의 경우 여가생활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소득과 소비 분야의 경우 개인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사회통합과 공동체 분야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일자리와 노동의 경우, 총 5가지 하는 일 만족도, 임금수준 만족도, 고용 안정성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고양시 행정 분야의 경우 시정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생활환경 분야의 경우 총 11가지 주거, 경제, 고용(일자리), 가족·사회적 관계, 주민자치(참여), 교육·보육,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교통, 안전(생활 안전·재난안전), 문화·여가, 건강(의료·보건)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표 3-2] 분석에 사용된 삶의 만족도 변수 정리

분야	변수	문항
주거와 교통	주택만족도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거주지 만족도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시군)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지하철 이용 만족도	귀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작성 ※ 비해당 응답자 제외
	기차 이용 만족도	
	택시 이용 만족도	
버스 이용 만족도		
문화와 여가	여가생활 만족도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소득과 소비	개인소득 만족도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 모두 포함 합니다)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소득
	소비생활 만족도	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사회통합과 공동체	삶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와 노동	하는 일 만족도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조사대상 :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만족도	
	고용 안정성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고양시정	시정만족도	귀하는 고양시의 시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생활환경	주거	귀하는 현재 본인을 둘러싼 생활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경제	
	고용(일자리)	
	가족 사회적 관계	
	주민자치(참여)	
	교육 보육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교통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문화 여가	
	건강(의료·보건)	

제2절 분석 결과

1. 고양시 행정단위별 삶의 질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에서 수집된 삶의 질 관련 변수들이 고양시 행정단위 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주거와 교통분야 삶의 질 분석결과

주거와 교통분야 삶의 질에 관해 분석해 보았으며, 해당 분야의 경우 주택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지하철 이용 만족도, 기차 이용 만족도, 택시 이용 만족도, 버스 이용만족도를 각 행정단위 별로 살펴보았다.

각 행정단위별 주택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 결과 구별 기차 이용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주택 만족도 평균은 삼송동(4.14)이 가장 높고, 주교동(2.7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 동구의 경우, 주택 만족도 평균은 풍산동(3.72)이 가장 높고, 마두1동(3.0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 서구의 경우, 주택 만족도 평균은 송포동(3.83)이 가장 높고, 일산2동(3.1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 행정단위별(구별) 주택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47	1.01	1,244	1.11
일산동구	3.51	0.98	1,011	
일산서구	3.53	0.96	1,110	
전체	3.50	0.98	3,365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4] 행정단위별(동별) 주택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46	1.06	95
	관산동	3.09	1.19	222
	능곡동	3.75	0.89	104
	삼송동	4.14	0.83	22
	성사1동	3.53	1.07	53
	성사2동	3.76	0.82	38
	원신동	3.69	0.97	70
	주교동	2.78	1.12	79
	행신동	3.55	0.67	33
	행신3동	3.73	0.85	123
	행주동	3.24	0.69	29
	화정1동	3.62	0.80	179
	화정2동	3.50	0.75	66
	흥도동	3.58	0.99	131
소계	3.47	1.01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3.22	1.01	130
	마두1동	3.06	0.93	31
	마두2동	3.41	0.97	144
	백석1동	3.57	1.00	127
	백석2동	3.63	0.95	123
	장항1동	3.71	0.84	69
	장항2동	3.59	1.04	90
	정발산동	3.16	0.90	57
	중산동	3.54	1.07	35
	풍산동	3.72	0.90	205
소계	3.51	0.98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53	1.04	163
	송산동	3.45	0.99	146
	송포동	3.83	0.91	138
	일산1동	3.48	0.72	123
	일산2동	3.16	1.08	88
	일산3동	3.41	1.09	69
	주엽1동	3.76	0.92	186
	주엽2동	3.52	0.86	116
	탄현동	3.28	0.90	81
소계	3.53	0.96	1,110	
계	3.50	0.98	3,365	

각 행정단위별 거주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 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거주지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거주지 만족도 평균은 삼송동(4.14)이 가장 높고, 관산동(3.05)이 가장 낮은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 동구의 경우, 거주지 만족도 평균은 백석2동(3.85)이 가장 높고, 고봉동(2.68)이 가장 낮은(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거주지 만족도 평균은 탄현동(3.58)이 가장 높고, 송산동(3.2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행정단위별(구별) 거주지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43	0.92	1,244	1.20
일산동구	3.39	1.00	1,011	
일산서구	3.45	0.91	1,110	
전체	3.43	0.94	3,365	

비고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3-6] 행정단위별(동별) 거주지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39	0.93	95
	관산동	3.05	0.99	222
	능곡동	3.28	0.86	104
	삼송동	4.14	0.83	22
	성사1동	3.36	0.94	53
	성사2동	3.42	0.83	38
	원신동	3.57	0.93	70
	주교동	3.32	0.90	79
	행산동	3.27	0.72	33
	행산3동	3.56	0.84	123
	행주동	3.17	0.66	29
	화정1동	3.75	0.79	179
	화정2동	3.74	0.75	66
	흥도동	3.53	0.98	131
소계	3.43	0.92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68	0.72	130
	마두1동	3.55	0.77	31
	마두2동	3.31	1.10	144
	백석1동	3.54	1.04	127
	백석2동	3.85	0.86	123
	장항1동	2.96	1.09	69
	장항2동	3.50	0.96	90
	정발산동	3.63	0.84	57
	중산동	3.74	0.74	35
	풍산동	3.47	0.94	205
소계	3.39	1.00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53	0.89	163
	송산동	3.23	0.99	146
	송포동	3.54	0.90	138
	일산1동	3.50	0.81	123
	일산2동	3.27	0.91	88
	일산3동	3.41	0.85	69
	주엽동	3.49	0.97	186
	주엽2동	3.46	0.86	116
	탄현동	3.58	0.89	81
소계	3.45	0.91	1,110	
계	3.43	0.94	3,365	

각 행정단위별 지하철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 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지하철 이용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지하철 이용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4)이 가장 높고, 고양동(2.27)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마두1동(4.19)이 가장 높고, 고봉동(2.68)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대화동(3.4)이 가장 높고, 일산 3동(2.97)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기 행정단위별(구별) 지하철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37	1.17	1,024	2.94
일산동구	3.34	1.17	764	
일산서구	3.25	1.10	990	
전체	3.32	1.15	2,778	

비고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3-8] 행정단위별(동별) 지하철 이용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2.27	1.17	81
	관산동	3.16	1.14	129
	능곡동	3.78	1.10	100
	삼송동	3.95	0.97	21
	성사1동	3.85	1.01	48
	성사2동	3.38	0.98	37
	원신동	3.82	1.03	65
	주교동	3.49	0.90	63
	행산동	3.48	1.03	31
	행산3동	2.64	1.17	95
	행주동	4.00	0.92	27
	화정1동	3.85	0.83	154
	화정2동	3.33	1.10	58
	흥도동	3.18	1.22	115
소계	3.37	1.17	1,024	
일산 동구	고봉동	2.68	0.81	34
	마두1동	4.19	0.80	26
	마두2동	3.07	1.15	134
	백석1동	3.51	1.22	113
	백석2동	3.81	1.01	96
	장항1동	3.15	1.06	53
	장항2동	3.45	1.14	76
	정발산동	3.66	0.91	41
	중산동	3.90	0.98	29
	풍산동	2.98	1.22	162
	소계	3.34	1.17	764
일산 서구	대화동	3.40	1.01	144
	송산동	2.99	1.38	127
	송포동	3.38	0.92	133
	일산1동	3.36	0.81	104
	일산2동	3.05	1.13	76
	일산3동	2.97	1.12	65
	주엽동	3.19	1.08	162
	주엽2동	3.38	1.18	107
	탄현동	3.38	1.19	72
	소계	3.25	1.10	990
계	3.32	1.15	2,778	

각 행정단위별 기차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 단위 분산 분석결과 구별 기차 이용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0.99$, $P<0.001$). 사후검정 결과 덕양구(3.37)가 일산 동구(3.11) 및 서구(3.1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기차 이용 만족도 평균은 삼송동(4.11)이 가장 높고, 고양동(2.7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기차 이용 만족도 평균은 마두 1동(3.73)이 가장 높고, 고봉동(2.6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기차 이용 만족도 평균은 탄현동(3.33)이 가장 높고 송포동(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3-9] 행정단위별(구별) 기차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37	1.02	516	10.99***
일산동구	3.11	1.04	527	
일산서구	3.15	0.92	652	
전체	3.20	0.99	1,69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10] 행정단위별(동별) 기차 이용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2.75	1.23	36
	관산동	2.80	1.11	54
	능곡동	3.87	0.89	84
	삼송동	4.11	0.78	9
	성사1동	3.42	0.88	24
	성사2동	3.08	0.79	12
	원신동	3.43	0.96	28
	주교동	3.10	0.98	31
	행산동	3.85	0.88	26
	행산3동	3.14	0.82	59
	행주동	4.00	0.53	22
	화정1동	3.70	0.88	40
	화정2동	3.39	0.78	44
	흥도동	3.13	1.13	47
소계	3.37	1.02	516	
일산 동구	고봉동	2.61	0.72	31
	마두1동	3.73	0.88	15
	마두2동	2.68	1.07	104
	백석1동	3.32	1.08	78
	백석2동	3.37	0.85	51
	장항1동	3.20	1.04	40
	장항2동	3.06	0.94	49
	정발산동	3.24	1.01	25
	중산동	3.59	0.93	27
	풍산동	3.13	1.05	107
소계	3.11	1.04	527	
일산 서구	대화동	3.22	0.98	101
	송산동	3.24	1.18	80
	송포동	3.00	0.89	75
	일산1동	3.17	0.69	95
	일산2동	3.11	0.68	45
	일산3동	3.22	0.66	55
	주엽1동	3.04	0.99	98
	주엽2동	3.10	0.98	63
	탄현동	3.33	0.97	40
소계	3.15	0.92	652	
계	3.20	0.99	1,695	

각 행정단위별 택시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 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택시 이용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택시이용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3.54)이 가장 높고, 흥도동(2.44)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택시 이용 만족도 평균은 정발산동(3.35)이 가장 높고, 고봉동(2.1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택시 이용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1)이 가장 높고, 송포동(2.6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1] 행정단위별(구별) 택시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97	1.02	734	0.69
일산동구	2.98	0.99	669	
일산서구	2.92	0.88	806	
전체	2.96	0.96	2,209	

비고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3-12] 행정단위별(동별) 택시 이용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2.88	0.77	59
	관산동	2.61	1.11	96
	능곡동	3.32	1.11	90
	삼송동	3.00	1.04	14
	성사1동	3.09	0.63	33
	성사2동	3.12	0.33	25
	원신동	2.95	1.04	55
	주교동	3.00	0.97	56
	행산동	3.17	0.83	30
	행산3동	2.79	0.91	62
	행주동	3.54	1.06	24
	화정1동	3.44	1.02	54
	화정2동	3.24	0.72	49
	흥도동	2.44	1.11	87
소계	2.97	1.02	734	
일산 동구	고봉동	2.13	0.83	64
	마두1동	3.28	0.84	25
	마두2동	2.87	0.93	106
	백석1동	3.07	0.93	88
	백석2동	3.21	0.95	70
	장항1동	2.18	0.91	49
	장항2동	3.13	0.91	62
	정발산동	3.35	0.98	37
	중산동	3.19	0.88	27
	풍산동	3.28	0.90	141
	소계	2.98	0.99	669
일산 서구	대화동	3.02	0.85	131
	송산동	2.78	1.05	114
	송포동	2.63	0.84	93
	일산1동	3.03	0.81	99
	일산2동	2.75	0.92	68
	일산3동	3.10	0.67	58
	주엽동	3.00	0.87	112
	주엽2동	3.03	0.76	74
	탄현동	3.02	0.94	57
	소계	2.92	0.88	806
계	2.96	0.96	2,209	

각 행정단위별 버스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 단위 분산분석결과 버스 이용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8.15$, $P<0.001$). 사후검정결과 덕양구(3.11)는 일산 동구(2.94) 및 서구(2.9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버스 이용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4.07)이 가장 높고, 흥도동(2.6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버스 이용 만족도 평균은 중산동(3.7)이 가장 높고, 장항1동(1.4)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버스 이용 만족도 평균은 주엽2동(3.35)이 가장 높고, 송산동(1.9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3] 행정단위별(구별) 버스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11	1.08	1,145	8.15***
일산동구	2.94	1.15	847	
일산서구	2.94	1.11	1,012	
전체	3.00	1.11	3,004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14] 행정단위별(동별) 버스 이용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00	0.84	88
	관산동	2.62	1.06	197
	능곡동	3.39	1.30	101
	삼송동	3.15	0.81	20
	성사1동	3.15	0.91	47
	성사2동	3.37	0.65	35
	원신동	3.18	1.15	67
	주교동	3.14	0.96	77
	행산동	3.03	1.29	33
	행산3동	3.54	1.00	115
	행주동	4.07	1.00	29
	화정1동	3.34	0.88	156
	화정2동	3.22	0.95	59
	흥도동	2.62	1.14	121
소계	3.11	1.08	1,145	
일산 동구	고봉동	1.91	0.48	86
	마두1동	3.57	0.79	28
	마두2동	3.07	0.96	135
	백석1동	3.39	1.09	112
	백석2동	3.51	1.01	100
	장항1동	1.40	0.71	62
	장항2동	2.91	1.22	74
	정발산동	3.36	1.00	45
	중산동	3.70	0.98	33
	풍산동	2.95	1.02	172
소계	2.94	1.15	847	
일산 서구	대화동	3.15	0.99	150
	송산동	1.95	1.16	131
	송포동	2.95	0.97	137
	일산1동	3.27	0.89	109
	일산2동	2.99	0.90	76
	일산3동	2.94	1.01	67
	주엽동	3.00	1.12	167
	주엽2동	3.35	1.08	106
	탄현동	3.00	1.15	69
소계	2.94	1.11	1,012	
계	3.00	1.11	3,004	

2) 문화와 여가 분야 삶의 질 분석결과

다음으로 문화와 여가 분야 삶의 질에 관해 분석해 보았으며, 해당 분야의 경우 여가 생활 만족도를 각 행정동별로 살펴보았다.

각 행정단위별 여가 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 분석결과 구별 여가 생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0.92$, $P<0.001$). 사후 검정 결과 덕양구(3.09)는 일산 동구(3.23) 및 서구(3.2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여가 생활 만족도 평균은 화정1동(3.4)이 가장 높고, 관산동(2.6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여가 생활만족도 평균은 백석2동(3.49)이 가장 높고, 장항1동(2.4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여가 생활 만족도 평균은 주엽1동(3.43)이 가장 높고, 송산동(2.9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5] 행정단위별(구별) 여가 생활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09	0.82	1,244	10.92***
일산동구	3.23	0.83	1,011	
일산서구	3.22	0.80	1,110	
전체	3.18	0.82	3,36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16] 행정단위별(동별) 여가 생활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16	0.83	95
	관산동	2.66	0.87	222
	능곡동	3.04	0.72	104
	삼송동	3.36	0.66	22
	성사1동	3.38	0.77	53
	성사2동	3.32	0.70	38
	원신동	2.96	0.75	70
	주교동	3.09	0.51	79
	행산동	3.27	0.80	33
	행산3동	3.20	0.70	123
	행주동	3.17	0.89	29
	화정1동	3.40	0.64	179
	화정2동	3.36	0.85	66
	흥도동	2.92	1.02	131
소계	3.09	0.82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43	0.67	130
	마두1동	3.35	0.66	31
	마두2동	3.29	0.83	144
	백석1동	3.44	0.85	127
	백석2동	3.49	0.77	123
	장항1동	2.96	0.53	69
	장항2동	3.34	0.82	90
	정발산동	3.32	0.74	57
	중산동	3.37	0.84	35
	풍산동	3.39	0.78	205
소계	3.23	0.83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30	0.86	163
	송산동	2.93	0.88	146
	송포동	3.25	0.84	138
	일산1동	3.13	0.79	123
	일산2동	3.08	0.71	88
	일산3동	3.39	0.67	69
	주엽동	3.43	0.72	186
	주엽2동	3.25	0.78	116
	탄현동	3.15	0.63	81
소계	3.22	0.80	1,110	
계	3.18	0.82	3,365	

3) 소득과 소비 분야 삶의 질 분석결과

다음으로 소득과 소비 분야 삶의 질에 관해 분석해 보았으며, 해당 분야의 경우 개인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를 각 행정동별로 살펴보았다.

각 행정단위별 개인 소득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별 분산분석 결과 구별 개인소득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개인소득 만족도 평균은 성사2동(3.05)이 가장 높고, 흥도동(2.3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개인 소득 만족도 평균은 백석1동(2.98)이 가장 높고, 정발산동(2.3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개인 소득 만족도 평균은 주엽1동(3.03)이 가장 높고, 송산동(2.58)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7] 행정단위별(구별) 개인소득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72	1.00	883	2.38
일산동구	2.80	1.00	709	
일산서구	2.82	0.94	699	
전체	2.77	0.98	2,291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18] 행정단위별(동별) 개인소득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2.96	1.01	52
	관산동	2.55	1.04	175
	능곡동	2.91	0.97	67
	삼송동	2.72	1.07	18
	성사1동	2.58	1.08	40
	성사2동	3.05	0.89	20
	원신동	2.62	0.99	58
	주교동	2.71	0.95	68
	행산동	2.74	0.69	23
	행산3동	2.74	0.99	87
	행주동	2.67	0.82	24
	화정1동	2.99	0.84	110
	화정2동	2.95	0.91	44
	흥도동	2.39	1.11	97
소계	2.72	1.00	883	
일산 동구	고봉동	2.58	0.87	80
	마두1동	2.75	1.07	20
	마두2동	2.72	0.92	90
	백석1동	2.98	1.07	95
	백석2동	2.85	1.02	97
	장항1동	2.84	0.87	43
	장항2동	2.88	1.06	75
	정발산동	2.36	0.98	42
	중산동	2.58	0.93	24
	풍산동	2.95	1.00	143
소계	2.80	1.00	709	
일산 서구	대화동	2.85	0.96	108
	송산동	2.58	1.01	118
	송포동	2.93	0.81	76
	일산1동	2.74	0.87	82
	일산2동	2.92	0.93	52
	일산3동	2.80	1.00	46
	주엽동	3.03	0.84	101
	주엽2동	2.78	1.03	67
	탄현동	2.76	0.97	49
소계	2.82	0.94	699	
계	2.77	0.98	2,291	

각 행정단위별 소비 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 분석결과 소비생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소비 생활 만족도 평균은 능곡동(3.13)이 가장 높고, 흥도동(2.6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소비 생활 만족도 평균은 백석1동(3.06)이 가장 높고, 고봉동(2.6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소비 생활 만족도 평균은 주엽1동(3.19)이 가장 높고, 송산동(2.7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9] 행정단위별(구별) 소비 생활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87	0.85	1,181	2.98
일산동구	2.92	0.85	961	
일산서구	2.95	0.84	1,042	
전체	2.91	0.85	3,184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20] 행정단위별(동별) 소비 생활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2.84	0.83	87
	관산동	2.73	0.83	208
	능곡동	3.13	0.86	100
	삼송동	2.86	1.04	22
	성사1동	2.98	0.93	53
	성사2동	3.03	0.70	36
	원신동	2.83	0.80	69
	주교동	2.74	0.83	77
	행산동	2.94	0.67	32
	행산3동	2.82	0.81	119
	행주동	3.04	0.64	28
	화정1동	3.04	0.82	167
	화정2동	2.80	0.74	64
	흥도동	2.69	0.99	119
소계	2.87	0.85	1,181	
일산 동구	고봉동	2.61	0.84	128
	마두1동	2.89	0.64	27
	마두2동	3.02	0.72	132
	백석1동	3.06	0.95	122
	백석2동	2.89	0.89	117
	장항1동	2.91	0.73	68
	장항2동	3.00	0.86	88
	정발산동	2.71	0.81	55
	중산동	2.72	0.73	32
	풍산동	3.05	0.91	192
소계	2.92	0.85	961	
일산 서구	대화동	2.89	0.75	152
	송산동	2.75	0.86	141
	송포동	3.02	0.85	125
	일산1동	2.85	0.88	117
	일산2동	2.92	0.88	85
	일산3동	3.08	0.79	66
	주엽동	3.19	0.76	168
	주엽2동	2.88	0.88	111
	탄현동	2.99	0.88	77
소계	2.95	0.84	1,042	
계	2.91	0.85	3,184	

4) 사회통합과 공동체 분야 삶의 질 분석결과

다음으로 사회통합과 공동체 분야 삶의 질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며, 해당 분야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각 행정동별로 살펴보았다.

각 행정단위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 결과 구별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능곡동(3.24)이 가장 높고, 주교동(2.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풍산동(3.24)이 가장 높고, 중산동(2.74)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58)이 가장 높고, 송산동(2.8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1] 행정단위별(구별) 삶에 대한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10	0.87	1,244	0.58
일산동구	3.08	0.91	1,011	
일산서구	3.12	0.88	1,110	
전체	3.10	0.89	3,365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22] 행정단위별(동별) 삶에 대한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11	0.82	95
	관산동	2.97	0.80	222
	능곡동	3.24	0.84	104
	삼송동	3.14	0.99	22
	성사1동	3.09	0.81	53
	성사2동	3.24	0.71	38
	원신동	3.00	0.88	70
	주교동	2.90	0.84	79
	행산동	3.18	0.92	33
	행산3동	3.24	0.92	123
	행주동	3.21	0.68	29
	화정1동	3.22	0.82	179
	화정2동	3.23	0.78	66
	흥도동	2.93	1.09	131
소계	3.10	0.87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95	0.93	130
	마두1동	3.06	0.93	31
	마두2동	3.09	0.85	144
	백석1동	3.13	0.99	127
	백석2동	3.02	0.88	123
	장항1동	2.96	0.76	69
	장항2동	3.11	1.01	90
	정발산동	3.02	0.86	57
	중산동	2.74	0.70	35
	풍산동	3.24	0.93	205
소계	3.08	0.91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07	0.84	163
	송산동	2.83	0.83	146
	송포동	3.09	0.97	138
	일산1동	3.22	0.85	123
	일산2동	3.22	0.85	88
	일산3동	3.58	0.76	69
	주엽1동	3.33	0.84	186
	주엽2동	2.91	0.86	116
	탄현동	2.91	0.88	81
소계	3.12	0.88	1,110	
계	3.10	0.89	3,365	

5) 일자리와 노동 분야 삶의 질 분석결과

다음으로 일자리와 노동 분야 삶의 질에 관해 분석해 보았으며, 해당 분야의 경우 하는 일 만족도, 임금수준 만족도, 고용 안정성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를 각 행정동별로 살펴보았다.

각 행정단위별 하는 일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하는 일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하는 일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4.05)이 가장 높고, 주교동(3.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하는 일 만족도 평균은 장항2동(3.84)이 가장 높고, 정발산동(3.08)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하는 일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65)이 가장 높고, 대화동(3.17)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3] 행정단위별(구별) 하는 일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42	0.91	589	1.80
일산동구	3.53	0.88	449	
일산서구	3.47	0.89	499	
전체	3.47	0.90	1,537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24] 행정단위별(동별) 하는 일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55	0.86	42
	관산동	3.11	0.98	116
	능곡동	3.67	0.89	43
	삼송동	3.40	0.84	10
	성사1동	3.41	1.05	22
	성사2동	3.27	0.80	15
	원신동	3.49	0.78	35
	주교동	3.10	0.76	30
	행산동	3.57	0.81	21
	행산3동	3.35	0.98	51
	행주동	4.05	0.83	20
	화정1동	3.64	0.79	77
	화정2동	3.62	0.78	39
	흥도동	3.31	0.93	68
	소계	3.42	0.91	589
일산 동구	고봉동	3.41	0.57	27
	마두1동	3.53	0.64	15
	마두2동	3.58	0.92	65
	백석1동	3.52	0.91	73
	백석2동	3.55	0.92	65
	장항1동	3.15	0.67	20
	장항2동	3.84	0.80	45
	정발산동	3.08	0.83	24
	중산동	3.56	0.78	18
	풍산동	3.54	0.97	97
소계	3.53	0.88	449	
일산 서구	대화동	3.17	0.89	83
	송산동	3.48	0.93	85
	송포동	3.52	0.95	56
	일산1동	3.48	0.90	52
	일산2동	3.60	0.93	30
	일산3동	3.65	0.60	34
	주엽동	3.65	0.84	69
	주엽2동	3.53	0.96	49
	탄현동	3.39	0.80	41
소계	3.47	0.89	499	
계	3.47	0.90	1,537	

각 행정단위별 임금수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 분석결과 임금수준 만족도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 보면 덕양구의 경우, 임금수준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3.4)이 가장 높고, 관산동(2.54)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임금수준 만족도 평균은 장항2동(3.2)이 가장 높고, 정발산동(2.67)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임금수준 만족도 평균은 주엽1동(3.23)이 가장 높고, 일산1동(2.8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5] 행정단위별(구별) 임금수준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91	0.96	589	2.77
일산동구	3.05	0.97	449	
일산서구	2.98	0.88	499	
전체	2.97	0.94	1,537	

비고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3-26] 행정단위별(동별) 임금수준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05	0.96	42
	관산동	2.67	0.90	116
	능곡동	3.16	0.97	43
	삼송동	2.80	1.03	10
	성사1동	2.95	1.09	22
	성사2동	2.80	0.56	15
	원신동	2.54	0.82	35
	주교동	3.07	0.78	30
	행산동	3.19	0.93	21
	행산3동	2.92	1.07	51
	행주동	3.40	1.10	20
	화정1동	3.05	0.83	77
	화정2동	3.15	0.99	39
	흥도동	2.71	1.02	68
	소계	2.91	0.96	589
일산 동구	고봉동	3.00	0.62	27
	마두1동	2.93	0.96	15
	마두2동	3.11	1.02	65
	백석1동	3.07	0.98	73
	백석2동	2.98	1.11	65
	장항1동	3.00	0.79	20
	장항2동	3.20	1.10	45
	정발산동	2.67	1.01	24
	중산동	2.94	0.64	18
	풍산동	3.13	0.94	97
	소계	3.05	0.97	449
일산 서구	대화동	2.86	0.91	83
	송산동	2.84	0.87	85
	송포동	3.11	0.82	56
	일산1동	2.81	0.84	52
	일산2동	3.07	0.87	30
	일산3동	3.21	0.54	34
	주엽1동	3.23	0.96	69
	주엽2동	3.02	0.99	49
	탄현동	2.83	0.77	41
	소계	2.98	0.88	499
계	2.97	0.94	1,537	

각 행정단위별 고용안전성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고용 안정성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5.27, P<0.01$). 사후검정 결과 덕양구(3.23)는 일산동구(3.43)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고용안전성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3.75)이 가장 높고, 원신동(2.8)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고용안전성 만족도 평균은 마두2동(3.65)이 가장 높고, 장항1동(2.9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고용안전성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59)이 가장 높고, 일산1동(3.1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7] 행정단위별(구별) 고용 안정성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23	1.00	589	5.27**
일산동구	3.43	1.02	449	
일산서구	3.29	0.95	499	
전체	3.31	0.99	1,537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28] 행정단위별(동별) 고용 안정성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64	0.88	42
	관산동	3.05	0.95	116
	능곡동	3.21	0.94	43
	삼송동	3.20	1.14	10
	성사1동	3.55	1.06	22
	성사2동	3.33	0.98	15
	원신동	2.80	0.80	35
	주교동	3.13	0.78	30
	행산동	3.38	0.92	21
	행산3동	3.33	1.09	51
	행주동	3.75	0.97	20
	화정1동	3.32	1.03	77
	화정2동	3.23	0.90	39
	흥도동	3.06	1.17	68
소계	3.23	1.00	589	
일산 동구	고봉동	3.19	0.79	27
	마두1동	3.53	0.83	15
	마두2동	3.65	1.05	65
	백석1동	3.53	0.99	73
	백석2동	3.23	1.13	65
	장항1동	2.95	0.76	20
	장항2동	3.40	1.14	45
	정발산동	3.17	1.05	24
	중산동	3.17	0.71	18
	풍산동	3.62	0.98	97
소계	3.43	1.02	449	
일산 서구	대화동	3.17	0.93	83
	송산동	3.21	0.91	85
	송포동	3.29	1.00	56
	일산1동	3.13	0.91	52
	일산2동	3.33	0.96	30
	일산3동	3.59	0.99	34
	주엽동	3.48	1.04	69
	주엽2동	3.37	0.88	49
	탄현동	3.22	0.94	41
소계	3.29	0.95	499	
계	3.31	0.99	1,537	

각 행정단위별 근무환경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 분석결과 근무환경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5.67$, $P<0.01$). 사후검정 결과 덕양구(3.17)는 일산동구(3.38)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근무환경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3.75)이 가장 높고, 관산동(2.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근무환경 만족도 평균은 마두1동(3.6)이 가장 높고, 정발산동(2.9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근무환경 만족도 평균은 주엽1동(3.45)이 가장 높고, 탄현동(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9] 행정단위별(구별) 근무환경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17	1.00	589	5.67 **
일산동구	3.38	0.96	449	
일산서구	3.28	0.97	499	
전체	3.27	0.98	1,537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30] 행정단위별(동별) 근무환경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38	0.99	42
	관산동	2.91	0.98	116
	능곡동	3.30	0.99	43
	삼송동	3.70	1.06	10
	성사1동	3.41	0.96	22
	성사2동	3.13	0.83	15
	원신동	2.97	1.10	35
	주교동	3.07	0.78	30
	행산동	3.29	0.90	21
	행산3동	3.31	1.07	51
	행주동	3.75	0.97	20
	화정1동	3.25	0.95	77
	화정2동	3.33	0.66	39
	흥도동	2.96	1.20	68
소계	3.17	1.00	589	
일산 동구	고봉동	3.15	0.77	27
	마두1동	3.60	0.99	15
	마두2동	3.45	1.00	65
	백석1동	3.48	0.88	73
	백석2동	3.40	0.90	65
	장항1동	3.15	0.81	20
	장항2동	3.51	1.06	45
	정발산동	2.92	0.97	24
	중산동	3.44	0.92	18
	풍산동	3.37	1.04	97
소계	3.38	0.96	449	
일산 서구	대화동	3.10	0.91	83
	송산동	3.29	1.02	85
	송포동	3.39	1.06	56
	일산1동	3.17	0.88	52
	일산2동	3.37	1.00	30
	일산3동	3.41	0.89	34
	주엽1동	3.45	0.92	69
	주엽2동	3.37	1.03	49
	탄현동	3.00	0.92	41
소계	3.28	0.97	499	
계	3.27	0.98	1,537	

각 행정단위별 근로시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 분석결과 근로시간 만족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근로시간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3.85)이 가장 높고, 관산동(2.8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근로시간 만족도 평균은 장항2동(3.64)이 가장 높고, 정발산동(2.9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근로시간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44)이 가장 높고, 대화동(3.1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1] 행정단위별(구별) 근로시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22	1.03	589	2.36
일산동구	3.35	0.98	449	
일산서구	3.31	0.96	499	
전체	3.29	1.00	1,537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32] 행정단위별(동별) 근로시간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38	1.08	42
	관산동	2.85	1.07	116
	능곡동	3.60	0.93	43
	삼송동	3.80	1.03	10
	성사1동	3.41	1.10	22
	성사2동	3.27	1.03	15
	원신동	3.00	1.03	35
	주교동	3.10	0.88	30
	행산동	3.19	0.93	21
	행산3동	3.47	0.92	51
	행주동	3.85	0.93	20
	화정1동	3.32	0.85	77
	화정2동	3.18	0.91	39
	흥도동	3.07	1.21	68
소계	3.22	1.03	589	
일산 동구	고봉동	3.07	0.73	27
	마두1동	3.60	0.99	15
	마두2동	3.46	1.05	65
	백석1동	3.36	0.98	73
	백석2동	3.26	1.00	65
	장항1동	3.45	0.76	20
	장항2동	3.64	0.93	45
	정발산동	2.92	1.02	24
	중산동	3.33	0.84	18
	풍산동	3.34	1.04	97
소계	3.35	0.98	449	
일산 서구	대화동	3.12	0.90	83
	송산동	3.35	1.08	85
	송포동	3.38	0.95	56
	일산1동	3.35	0.90	52
	일산2동	3.40	0.89	30
	일산3동	3.44	0.93	34
	주엽동	3.33	0.97	69
	주엽2동	3.33	0.97	49
	탄현동	3.20	1.01	41
소계	3.31	0.96	499	
계	3.29	1.00	1,537	

6) 고양시정 분야 삶의 질 분석결과

다음으로 고양 시정 분야 삶의 질에 관해 분석해 보았으며, 해당 분야의 경우 시정 만족도를 각 행정동별로 살펴보았다.

각 행정단위별 시정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 결과 시정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4.01$, $P<0.001$). 사후 검정결과 덕양구(2.97)는 일산동구(2.84) 및 서구(2.78)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시정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3.69)이 가장 높고, 관산동(2.7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시정 만족도 평균은 풍산동(3.09)이 가장 높고, 장항1동(2.2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시정 만족도 평균은 일산1동(3.14)이 가장 높고, 송산동(2.3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3] 행정단위별(구별) 시정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97	0.82	1,244	14.01 ***
일산동구	2.84	0.87	1,011	
일산서구	2.78	0.91	1,110	
전체	2.87	0.87	3,36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34] 행정단위별(동별) 시정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03	0.75	95
	관산동	2.75	0.90	222
	능곡동	3.05	0.85	104
	삼송동	3.00	0.82	22
	성사1동	3.06	0.74	53
	성사2동	3.05	0.84	38
	원신동	3.00	0.72	70
	주교동	2.78	0.73	79
	행산동	2.97	0.92	33
	행산3동	2.90	0.80	123
	행주동	3.69	0.85	29
	화정1동	3.14	0.68	179
	화정2동	3.08	0.83	66
	흥도동	2.85	0.88	131
소계	2.97	0.82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66	0.60	130
	마두1동	3.03	0.41	31
	마두2동	2.51	1.00	144
	백석1동	2.90	0.93	127
	백석2동	3.07	0.78	123
	장항1동	2.26	0.78	69
	장항2동	2.94	0.90	90
	정발산동	3.00	0.82	57
	중산동	2.86	0.94	35
	풍산동	3.09	0.84	205
소계	2.84	0.87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05	0.74	163
	송산동	2.32	0.92	146
	송포동	2.66	0.92	138
	일산1동	3.14	0.71	123
	일산2동	2.84	0.93	88
	일산3동	2.74	0.93	69
	주엽1동	2.75	1.03	186
	주엽2동	2.73	0.85	116
	탄현동	2.85	0.84	81
소계	2.78	0.91	1,110	
계	2.87	0.87	3,365	

7) 고양시 생활환경 분야 삶의 질 분석결과

다음으로 고양시 생활환경 분야 삶의 질에 관해 분석해 보았으며, 해당 분야의 경우 주거, 경제, 고용(일자리), 가족·사회적 관계, 주민자치(참여), 교육·보육,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교통,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문화·여가, 건강(의료·보건)를 각 행정동 별로 살펴보았다.

각 행정단위별 주거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 결과 주거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주거 만족도 평균은 삼송동(3.91)이 가장 높고, 주교동(2.7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주거 만족도 평균은 풍산동(3.72)이 가장 높고, 마두1동(2.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주거 만족도 평균은 송포동(3.66)이 가장 높고, 일산2동(3.2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5] 행정단위별(구별) 주거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38	0.93	1,244	1.39
일산동구	3.42	0.96	1,011	
일산서구	3.45	0.86	1,110	
전체	3.42	0.91	3,365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36] 행정단위별(동별) 주거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40	0.98	95
	관산동	3.05	1.09	222
	능곡동	3.48	0.88	104
	삼송동	3.91	0.97	22
	성사1동	3.38	0.95	53
	성사2동	3.58	0.64	38
	원신동	3.54	0.90	70
	주교동	2.82	0.83	79
	행산동	3.61	0.75	33
	행산3동	3.51	0.80	123
	행주동	3.24	0.69	29
	화정1동	3.54	0.81	179
	화정2동	3.53	0.68	66
	흥도동	3.55	0.92	131
소계	3.38	0.93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3.05	1.00	130
	마두1동	2.90	0.94	31
	마두2동	3.33	0.95	144
	백석1동	3.46	0.97	127
	백석2동	3.57	0.86	123
	장항1동	3.32	0.96	69
	장항2동	3.60	1.00	90
	정발산동	3.11	0.96	57
	중산동	3.43	1.01	35
	풍산동	3.72	0.83	205
소계	3.42	0.96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37	0.94	163
	송산동	3.36	0.89	146
	송포동	3.66	0.81	138
	일산1동	3.52	0.69	123
	일산2동	3.22	0.82	88
	일산3동	3.23	0.96	69
	주엽동	3.62	0.76	186
	주엽2동	3.42	0.94	116
	탄현동	3.33	0.84	81
소계	3.45	0.86	1,110	
계	3.42	0.91	3,365	

각 행정단위별 경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 결과 경제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3.18$, $P<0.001$). 사후 검정결과 일산서구(3.02)는 덕양구(2.84) 및 일산동구(2.9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경제 만족도 평균은 행신1동(3.21)이 가장 높고, 관산동(2.57)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경제 만족도 평균은 풍산동(3.1)이 가장 높고, 고봉동(2.6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경제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3)이 가장 높고, 대화동(2.9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7] 행정단위별(구별) 경제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84	0.83	1,244	13.18 ***
일산동구	2.90	0.90	1,011	
일산서구	3.02	0.82	1,110	
전체	2.92	0.85	3,36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38] 행정단위별(동별) 경제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2.97	0.90	95
	관산동	2.57	0.86	222
	능곡동	2.96	0.79	104
	삼송동	2.68	0.89	22
	성사1동	2.62	0.81	53
	성사2동	2.89	0.80	38
	원신동	2.67	0.85	70
	주교동	2.66	0.78	79
	행산동	3.21	0.70	33
	행산3동	2.98	0.86	123
	행주동	2.97	0.94	29
	화정1동	3.07	0.57	179
	화정2동	3.14	0.58	66
	흥도동	2.73	0.95	131
소계	2.84	0.83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62	0.90	130
	마두1동	2.68	0.79	31
	마두2동	2.92	0.90	144
	백석1동	2.99	0.94	127
	백석2동	2.95	0.84	123
	장항1동	2.70	0.69	69
	장항2동	3.00	1.03	90
	정발산동	2.74	0.81	57
	중산동	2.89	0.93	35
	풍산동	3.10	0.90	205
소계	2.90	0.90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2.91	0.76	163
	송산동	2.92	0.94	146
	송포동	3.11	0.89	138
	일산1동	3.00	0.76	123
	일산2동	2.92	0.79	88
	일산3동	3.30	0.69	69
	주엽동	3.18	0.80	186
	주엽2동	2.95	0.80	116
	탄현동	2.93	0.74	81
소계	3.02	0.82	1,110	
계	2.92	0.85	3,365	

각 행정단위별 고용(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고용(일자리) 이용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덕양구의 경우, 고용(일자리) 만족도 평균은 고양동(3.09)이 가장 높고, 삼송동(2.5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고용(일자리) 평균은 마두1동(3.06)이 가장 높고, 고봉동(2.5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고용(일자리) 평균은 일산3동(3.22)이 가장 높고, 주엽2동(2.6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9] 행정단위별(구별) 고용(일자리)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89	0.78	1,244	1.45
일산동구	2.85	0.86	1,011	
일산서구	2.91	0.86	1,110	
전체	2.89	0.83	3,365	

비고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3-40] 행정단위별(동별) 고용(일자리) 이용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09	0.76	95
	관산동	2.78	0.84	222
	능곡동	3.04	0.79	104
	삼송동	2.55	0.80	22
	성사1동	2.89	0.89	53
	성사2동	2.95	0.52	38
	원신동	2.69	0.89	70
	주교동	2.85	0.64	79
	행산동	2.91	0.72	33
	행산3동	2.88	0.78	123
	행주동	3.07	0.92	29
	화정1동	3.04	0.54	179
	화정2동	3.05	0.71	66
	흥도동	2.72	0.89	131
소계	2.89	0.78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56	0.87	130
	마두1동	3.06	0.63	31
	마두2동	2.77	0.85	144
	백석1동	2.96	0.91	127
	백석2동	3.00	0.87	123
	장항1동	2.58	0.58	69
	장항2동	2.93	0.87	90
	정발산동	2.70	0.68	57
	중산동	2.94	0.87	35
	풍산동	2.98	0.88	205
소계	2.85	0.86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2.90	0.87	163
	송산동	2.89	0.92	146
	송포동	2.96	0.93	138
	일산1동	2.86	0.89	123
	일산2동	2.84	0.77	88
	일산3동	3.22	0.64	69
	주엽1동	3.04	0.86	186
	주엽2동	2.69	0.82	116
	탄현동	2.78	0.74	81
소계	2.91	0.86	1,110	
계	2.89	0.83	3,365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각 행정단위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 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평균은 고양동(4.09)이 가장 높고, 행주동(3.3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평균은 풍산동(3.86)이 가장 높고, 장항1동(3.38)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평균은 주엽1동(3.84)이 가장 높고, 일산2동(3.4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1] 행정단위별(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68	0.85	1,244	1.10
일산동구	3.66	0.90	1,011	
일산서구	3.63	0.82	1,110	
전체	3.66	0.85	3,365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42] 행정단위별(동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4.09	0.95	95
	관산동	3.71	0.83	222
	능곡동	3.62	0.84	104
	삼송동	3.95	0.90	22
	성사1동	3.89	0.87	53
	성사2동	3.63	0.88	38
	원신동	3.60	0.91	70
	주교동	3.39	0.76	79
	행산동	3.70	0.73	33
	행산3동	3.61	0.82	123
	행주동	3.31	0.60	29
	화정1동	3.57	0.73	179
	화정2동	3.85	0.81	66
	흥도동	3.69	0.97	131
소계	3.68	0.85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3.82	0.74	130
	마두1동	3.58	0.96	31
	마두2동	3.57	0.84	144
	백석1동	3.56	1.02	127
	백석2동	3.69	0.96	123
	장항1동	3.38	0.82	69
	장항2동	3.44	0.89	90
	정발산동	3.79	0.94	57
	중산동	3.66	1.00	35
	풍산동	3.86	0.84	205
소계	3.66	0.90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55	0.82	163
	송산동	3.66	0.83	146
	송포동	3.75	0.90	138
	일산1동	3.58	0.84	123
	일산2동	3.41	0.87	88
	일산3동	3.68	0.76	69
	주엽동	3.84	0.74	186
	주엽2동	3.47	0.77	116
	탄현동	3.53	0.73	81
소계	3.63	0.82	1,110	
계	3.66	0.85	3,365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주민자치(참여)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평균은 행주동(3.10)이 가장 높고, 삼송동(2.7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평균은 마두1동(3.13)이 가장 높고, 고봉동(2.78)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평균은 주엽1동(3.09)이 가장 높고, 주엽2동(2.8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3] 행정단위별(구별)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91	0.61	1,244	1.76
일산동구	2.95	0.63	1,011	
일산서구	2.96	0.61	1,110	
전체	2.94	0.62	3,365	

비고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3-44] 행정단위별 (동별)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2.94	0.54	95
	관산동	2.80	0.61	222
	능곡동	3.08	0.62	104
	삼송동	2.73	0.63	22
	성사1동	2.91	0.66	53
	성사2동	2.95	0.57	38
	원신동	2.77	0.52	70
	주교동	2.75	0.52	79
	행산동	2.91	0.58	33
	행산3동	2.97	0.63	123
	행주동	3.10	0.67	29
	화정1동	3.06	0.45	179
	화정2동	3.06	0.70	66
	흥도동	2.79	0.78	131
소계	2.91	0.61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78	0.59	130
	마두1동	3.13	0.43	31
	마두2동	2.92	0.67	144
	백석1동	2.98	0.76	127
	백석2동	2.98	0.66	123
	장항1동	3.04	0.50	69
	장항2동	2.98	0.52	90
	정발산동	2.88	0.60	57
	중산동	3.00	0.64	35
	풍산동	3.00	0.62	205
소계	2.95	0.63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01	0.61	163
	송산동	2.87	0.66	146
	송포동	2.91	0.64	138
	일산1동	2.89	0.62	123
	일산2동	2.97	0.61	88
	일산3동	3.03	0.59	69
	주엽1동	3.09	0.53	186
	주엽2동	2.86	0.67	116
	탄현동	2.96	0.49	81
소계	2.96	0.61	1,110	
계	2.94	0.62	3,365	

각 행정단위별 교육·보육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 분석결과 교육·보육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교육·보육 만족도 평균은 화정1동(3.21)이 가장 높고, 관산동(2.7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교육·보육 만족도 평균은 중산동(3.31)이 가장 높고, 고봉동(2.6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교육·보육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19)이 가장 높고, 탄현동(2.8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5] 행정단위별(구별) 교육·보육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98	0.69	1,244	2.01
일산동구	3.01	0.72	1,011	
일산서구	3.04	0.69	1,110	
전체	3.01	0.70	3,365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표 3-46] 행정단위별(동별) 교육·보육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17	0.61	95
	관산동	2.71	0.72	222
	능곡동	3.04	0.50	104
	삼송동	2.91	0.92	22
	성사1동	2.96	0.68	53
	성사2동	2.89	0.45	38
	원신동	2.91	0.68	70
	주교동	2.84	0.63	79
	행산동	3.06	0.61	33
	행산3동	2.93	0.66	123
	행주동	3.03	0.63	29
	화정1동	3.21	0.64	179
	화정2동	3.11	0.61	66
	흥도동	3.06	0.87	131
소계	2.98	0.69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66	0.65	130
	마두1동	3.10	0.47	31
	마두2동	2.94	0.74	144
	백석1동	3.02	0.86	127
	백석2동	3.13	0.65	123
	장항1동	2.96	0.40	69
	장항2동	2.93	0.73	90
	정발산동	3.18	0.68	57
	중산동	3.31	0.72	35
	풍산동	3.14	0.75	205
소계	3.01	0.72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12	0.73	163
	송산동	3.05	0.65	146
	송포동	3.05	0.78	138
	일산1동	3.01	0.63	123
	일산2동	2.97	0.63	88
	일산3동	3.19	0.69	69
	주엽동	3.07	0.70	186
	주엽2동	2.96	0.70	116
	탄현동	2.86	0.56	81
소계	3.04	0.69	1,110	
계	3.01	0.70	3,365	

각 행정단위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별 분산분석결과 구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0.20$, $P<0.001$). 사후검정 결과 일산동구(2.79)는 덕양구(2.96) 및 일산서구(2.93)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 평균은 삼송동(3.32)이 가장 높고, 원신동(2.7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 평균은 정발산동(3.25)이 가장 높고, 고봉동(2.1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 평균은 대화동(3.05)이 가장 높고, 탄현동(2.6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7] 행정단위별(구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이용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96	0.88	1,244	10.20 ***
일산동구	2.79	0.95	1,011	
일산서구	2.93	0.90	1,110	
전체	2.90	0.91	3,36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48] 행정단위별(동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이용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01	0.76	95
	관산동	2.93	0.82	222
	능곡동	3.01	0.83	104
	삼송동	3.32	1.13	22
	성사1동	2.77	0.97	53
	성사2동	3.00	0.66	38
	원신동	2.73	1.05	70
	주교동	2.77	0.62	79
	행산동	2.85	0.76	33
	행산3동	2.93	0.87	123
	행주동	2.86	0.92	29
	화정1동	3.12	0.75	179
	화정2동	2.89	0.90	66
	흥도동	3.06	1.21	131
소계	2.96	0.88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16	0.59	130
	마두1동	3.19	0.60	31
	마두2동	2.76	0.91	144
	백석1동	2.74	1.03	127
	백석2동	3.04	0.97	123
	장항1동	2.39	0.65	69
	장항2동	2.64	0.98	90
	정발산동	3.25	0.81	57
	중산동	2.94	1.08	35
	풍산동	3.09	0.95	205
소계	2.79	0.95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05	0.85	163
	송산동	2.92	0.94	146
	송포동	2.81	0.91	138
	일산1동	2.91	0.68	123
	일산2동	2.84	0.95	88
	일산3동	3.00	0.99	69
	주엽1동	3.03	0.96	186
	주엽2동	2.97	0.95	116
	탄현동	2.65	0.87	81
소계	2.93	0.90	1,110	
계	2.90	0.91	3,365	

각 행정단위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교통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79$, $P<0.05$). 사후검정 결과 덕양구(2.87)는 일산동구(2.77) 및 일산서구(2.7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으나 그 통계적 유의도가 아주 강건하지는 않았다(모두 $P<0.1$ 수준). 한편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교통 만족도 평균은 화정1동(3.46)이 가장 높고, 흥도동(2.2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교통 만족도 평균은 정발산(3.46)이 가장 높고, 고봉동(1.6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교통 만족도 평균은 대화동(3.13)이 가장 높고, 송산동(1.9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9] 행정단위별(구별) 교통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2.87	1.02	1,244	3.79 *
일산동구	2.77	1.15	1,011	
일산서구	2.76	1.09	1,110	
전체	2.80	1.08	3,36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50] 행정단위별(동별) 교통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2.61	0.99	95
	관산동	2.46	0.93	222
	능곡동	3.10	0.85	104
	삼송동	3.14	1.08	22
	성사1동	3.06	1.01	53
	성사2동	3.24	0.59	38
	원신동	2.89	1.02	70
	주교동	2.92	0.83	79
	행산동	2.85	1.03	33
	행산3동	2.89	1.07	123
	행주동	3.14	0.83	29
	화정1동	3.46	0.81	179
	화정2동	3.26	0.85	66
	흥도동	2.23	1.13	131
소계	2.87	1.02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1.62	0.69	130
	마두1동	3.45	0.89	31
	마두2동	2.78	1.05	144
	백석1동	3.20	1.16	127
	백석2동	3.37	1.03	123
	장항1동	2.07	0.75	69
	장항2동	2.90	1.03	90
	정발산동	3.46	0.93	57
	중산동	3.40	0.98	35
	풍산동	2.62	1.10	205
	소계	2.77	1.15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13	1.00	163
	송산동	1.96	0.95	146
	송포동	2.65	1.06	138
	일산1동	3.09	0.91	123
	일산2동	2.75	1.16	88
	일산3동	2.87	1.07	69
	주엽1동	2.73	1.07	186
	주엽2동	2.91	1.16	116
	탄현동	2.94	1.02	81
	소계	2.76	1.09	1,110
계	2.80	1.08	3,365	

각 행정단위별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분석결과 구별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4.54$, $P<0.05$). 사후검정결과 일산동구(3.13)는 일산서구(3.19)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 평균은 화정2동(3.48)이 가장 높고, 관산동(2.8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 평균은 정발산동(3.39)이 가장 높고, 고봉동(2.3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45)이 가장 높고, 일산2동(3.0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1] 행정단위별(구별)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이용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19	0.77	1,244	4.54 *
일산동구	3.13	0.83	1,011	
일산서구	3.23	0.77	1,110	
전체	3.19	0.79	3,36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52] 행정단위별(동별) 안전 (생활안전·재난안전)이용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26	0.69	95
	관산동	2.82	0.66	222
	능곡동	3.02	0.68	104
	삼송동	3.45	0.96	22
	성사1동	2.89	0.97	53
	성사2동	3.26	0.76	38
	원신동	3.40	0.73	70
	주교동	2.96	0.61	79
	행산동	3.03	0.73	33
	행산3동	3.32	0.75	123
	행주동	3.34	0.90	29
	화정1동	3.42	0.59	179
	화정2동	3.48	0.68	66
	흥도동	3.40	0.97	131
소계	3.19	0.77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35	0.51	130
	마두1동	3.26	0.63	31
	마두2동	3.19	0.78	144
	백석1동	3.26	0.88	127
	백석2동	3.30	0.82	123
	장항1동	2.78	0.57	69
	장항2동	3.24	0.78	90
	정발산동	3.39	0.73	57
	중산동	3.34	0.84	35
	풍산동	3.33	0.84	205
소계	3.13	0.83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28	0.81	163
	송산동	3.17	0.83	146
	송포동	3.25	0.83	138
	일산1동	3.17	0.72	123
	일산2동	3.01	0.70	88
	일산3동	3.45	0.78	69
	주엽1동	3.30	0.68	186
	주엽2동	3.27	0.83	116
	탄현동	3.16	0.68	81
소계	3.23	0.77	1,110	
계	3.19	0.79	3,365	

각 행정단위별 문화·여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위 분산 분석 결과 구별 문화·여가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0.92$, $P<0.001$). 사후검정 결과 덕양구(3.09)는 일산동구(3.23)과 일산서구(3.2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은 화정1동(3.40)이 가장 높고, 관산동(2.66)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은 백석2동(3.49)이 가장 높고, 고봉동(2.4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문화·여가 만족도 평균은 주엽1동(3.43)이 가장 높고, 송산동(2.9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3] 행정단위별(구별) 문화·여가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09	0.82	1,244	10.92 ***
일산동구	3.23	0.83	1,011	
일산서구	3.22	0.80	1,110	
전체	3.18	0.82	3,36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54] 행정단위별(동별) 문화여가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16	0.83	95
	관산동	2.66	0.87	222
	능곡동	3.04	0.72	104
	삼송동	3.36	0.66	22
	성사1동	3.38	0.77	53
	성사2동	3.32	0.70	38
	원신동	2.96	0.75	70
	주교동	3.09	0.51	79
	행산동	3.27	0.80	33
	행산3동	3.20	0.70	123
	행주동	3.17	0.89	29
	화정1동	3.40	0.64	179
	화정2동	3.36	0.85	66
	흥도동	2.92	1.02	131
소계	3.09	0.82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43	0.67	130
	마두1동	3.35	0.66	31
	마두2동	3.29	0.83	144
	백석1동	3.44	0.85	127
	백석2동	3.49	0.77	123
	장항1동	2.96	0.53	69
	장항2동	3.34	0.82	90
	정발산동	3.32	0.74	57
	중산동	3.37	0.84	35
	풍산동	3.39	0.78	205
소계	3.23	0.83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30	0.86	163
	송산동	2.93	0.88	146
	송포동	3.25	0.84	138
	일산1동	3.13	0.79	123
	일산2동	3.08	0.71	88
	일산3동	3.39	0.67	69
	주엽동	3.43	0.72	186
	주엽2동	3.25	0.78	116
	탄현동	3.15	0.63	81
소계	3.22	0.80	1,110	
계	3.18	0.82	3,365	

각 행정단위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구단 위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2.00$, $P<0.001$). 사후검정 결과 덕양구(3.07)는 일산동구(3.33) 및 일산서구(3.2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평균은 삼송동(3.50)이 가장 높고, 관산동(2.5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동구의 경우,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평균은 백석1동(3.51)이 가장 높고, 고봉동(2.77)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평균은 일산3동(3.65)이 가장 높고, 송산동(2.9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5] 행정단위별(구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덕양구	3.07	0.82	1,244	32.00 ***
일산동구	3.33	0.81	1,011	
일산서구	3.25	0.79	1,110	
전체	3.21	0.82	3,365	

비고 : $p<0.05$: *, $p<0.01$: **, $p<0.001$: ***

[표 3-56] 행정단위별(동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행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덕양구	고양동	3.18	0.77	95
	관산동	2.59	0.87	222
	능곡동	3.13	0.71	104
	삼송동	3.50	0.91	22
	성사1동	3.38	0.77	53
	성사2동	3.32	0.74	38
	원신동	2.99	0.75	70
	주교동	3.01	0.57	79
	행산동	3.27	0.52	33
	행산3동	3.14	0.90	123
	행주동	3.10	0.67	29
	화정1동	3.37	0.62	179
	화정2동	3.20	0.93	66
	흥도동	2.95	0.86	131
	소계	3.07	0.82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2.77	0.72	130
	마두1동	3.26	0.58	31
	마두2동	3.27	0.82	144
	백석1동	3.51	0.82	127
	백석2동	3.43	0.79	123
	장항1동	3.30	0.81	69
	장항2동	3.46	0.82	90
	정발산동	3.42	0.71	57
	중산동	3.37	0.88	35
	풍산동	3.49	0.75	205
	소계	3.33	0.81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3.34	0.83	163
	송산동	2.91	0.87	146
	송포동	3.23	0.86	138
	일산1동	3.18	0.80	123
	일산2동	3.22	0.69	88
	일산3동	3.65	0.72	69
	주엽1동	3.43	0.71	186
	주엽2동	3.16	0.71	116
	탄현동	3.21	0.65	81
	소계	3.25	0.79	1,110
계	3.21	0.82	3,365	

비고 : p<0.05 : *, p<0.01 : **, p<0.001 : ***

2.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분석

다음으로는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에서 수집된 삶의 질 관련 변수들이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표 3-57]의 모형1은 주택만족도, 모형2는 거주지 만족도, 모형3은 지하철 이용 만족도, 모형4는 기차 이용 만족도, 모형5는 택시 이용 만족도, 모형6은 버스 이용 만족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모형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준거집단인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택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 거주 응답자는 준거집단인 자가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택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준거집단인 다인가구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 준거집단인 다인가구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하철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하철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하철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세 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하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차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동구 및 서구의 경우 덕양구에 비해,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차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택시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 응답자의 경우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택시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버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 거주 응답자는 다인가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버스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7]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주택 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자하철 만족도	가차 만족도	택시 만족도	버스 만족도	
연령	0.002 (0.001)	0.006** (0.002)	0.004* (0.002)	-0.002 (0.002)	0.001 (0.002)	0.001 (0.002)	
여성	-0.038 (0.034)	0.018 (0.041)	-0.119** (0.044)	-0.092 (0.049)	-0.080 (0.042)	-0.036 (0.041)	
교육수준	-0.016 (0.016)	0.055** (0.020)	-0.074*** (0.021)	-0.062** (0.023)	-0.013 (0.020)	0.001 (0.020)	
가구소득	0.037*** (0.009)	0.150*** (0.011)	-0.027* (0.012)	-0.020 (0.013)	0.005 (0.011)	-0.015 (0.011)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067 (0.055)	0.013 (0.065)	-0.027 (0.072)	-0.040 (0.078)	0.109 (0.066)	0.036 (0.068)
	이혼/사별 /별거	0.055 (0.062)	0.131 (0.073)	0.000 (0.083)	0.003 (0.098)	0.112 (0.081)	0.005 (0.077)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008 (0.047)	-0.030 (0.055)	-0.013 (0.060)	-0.308*** (0.067)	0.057 (0.058)	-0.130* (0.057)
	일산서구	-0.026 (0.041)	-0.024 (0.049)	-0.048 (0.051)	-0.193** (0.059)	-0.028 (0.050)	-0.158** (0.049)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260*** (0.053)	-0.009 (0.062)	-0.009 (0.072)	0.074 (0.080)	-0.291*** (0.065)	-0.346*** (0.065)
	연립/ 다세대	-0.489*** (0.051)	-0.101 (0.058)	0.051 (0.067)	-0.171* (0.075)	-0.058 (0.063)	-0.265*** (0.061)
	기타	-0.130 (0.078)	0.076 (0.086)	0.169 (0.101)	0.039 (0.112)	-0.028 (0.096)	-0.183 (0.097)
점유형태 (준거: 자가)	전세	-0.235*** (0.047)	-0.028 (0.055)	-0.012 (0.061)	-0.127 (0.067)	0.068 (0.057)	0.089 (0.057)
	월세	-0.239*** (0.051)	-0.089 (0.059)	0.205** (0.066)	0.128 (0.074)	0.151* (0.062)	0.257*** (0.061)
	무상	-0.145 (0.121)	-0.133 (0.139)	-0.134 (0.170)	0.244 (0.206)	0.177 (0.158)	-0.024 (0.152)
1인가구 (준거: 다인가구)	0.233*** (0.064)	0.279*** (0.071)	0.180* (0.086)	0.006 (0.096)	0.041 (0.081)	0.237** (0.080)	
상수	3.462*** (0.123)	1.610*** (0.155)	3.505*** (0.159)	3.807*** (0.176)	2.953*** (0.150)	3.128*** (0.150)	
N	3365	2291	2778	1695	2209	3004	
R-sq	0.056	0.112	0.041	0.034	0.018	0.034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 < 0.05$: *, $p < 0.01$: **, $p < 0.001$: ***

다음으로 [표 3-58]의 모형1은 여가생활 만족도, 모형2는 개인소득 만족도, 모형3은 개인소비 만족도, 모형4는 삶의 만족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모형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동구 거주 응답자는 덕양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전세 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 응답자는 다인가구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독주택 거주 응답자와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개인소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다인거주 응답자에 비해 개인소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소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거주 응답자 및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개인소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다인거주 응답자에 비해 개인소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덕양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는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전세 및 월세 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여가생활 만족도	개인소득 만족도	개인소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연령		-0.002 (0.001)	0.006** (0.002)	0.003* (0.001)	0.001 (0.001)
여성		0.008 (0.028)	0.018 (0.041)	0.039 (0.030)	0.079** (0.030)
교육수준		0.057*** (0.013)	0.055** (0.020)	0.044** (0.015)	0.073*** (0.014)
가구소득		0.044*** (0.008)	0.150*** (0.011)	0.116*** (0.008)	0.075*** (0.008)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085 (0.046)	0.013 (0.065)	0.018 (0.047)	-0.049 (0.049)
	이혼/사별 /별거	0.031 (0.051)	0.131 (0.073)	0.059 (0.052)	-0.043 (0.056)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134*** (0.039)	-0.030 (0.055)	-0.008 (0.041)	-0.104* (0.042)
	일산서구	0.058 (0.034)	-0.024 (0.049)	0.002 (0.035)	-0.076* (0.036)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276*** (0.044)	-0.009 (0.062)	-0.098* (0.045)	-0.034 (0.047)
	연립/ 다세대	-0.224*** (0.042)	-0.101 (0.058)	-0.117** (0.044)	-0.125** (0.045)
	기타	-0.137* (0.064)	0.076 (0.086)	0.001 (0.066)	0.057 (0.069)
점유형태 (준거: 자가)	전세	0.102** (0.039)	-0.028 (0.055)	-0.012 (0.041)	-0.084* (0.042)
	월세	0.005 (0.042)	-0.089 (0.059)	-0.067 (0.044)	-0.180*** (0.046)
	무상	-0.092 (0.100)	-0.133 (0.139)	0.035 (0.103)	-0.005 (0.108)
1인가구 (준거: 다인가구)		0.157** (0.053)	0.279*** (0.071)	0.181*** (0.054)	0.180** (0.057)
상수		2.860*** (0.101)	1.610*** (0.155)	2.079*** (0.111)	2.563*** (0.110)
N		3365	2291	3184	3365
R-sq		0.075	0.112	0.101	0.068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0.05 : *, p<0.01 : **, p<0.001 : ***

다음으로 [표 3-59]의 모형1은 하는일 만족도, 모형2는 임금수준 만족도, 모형3은 고용안정성 만족도, 모형4는 근무환경 만족도, 모형5는 근로시간 만족도, 모형6은 시정 만족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하는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하는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수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고용안정성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고용안정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근로시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거주 응답자일수록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근로시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시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및 이혼/사별/별거 응답자의 경우 기혼 응답자에 비해, 전세 및 월세 거주 응답자의 경우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시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덕양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는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시정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9]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3)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하는일 만족도	임금수준 만족도	고용안정성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시정 만족도	
연령	-0.000 (0.002)	0.002 (0.003)	-0.007* (0.003)	-0.001 (0.003)	0.002 (0.003)	0.003* (0.001)	
여성	0.037 (0.045)	-0.041 (0.048)	0.018 (0.050)	0.070 (0.050)	0.110* (0.051)	0.010 (0.030)	
교육수준	0.143*** (0.023)	0.074** (0.025)	0.121*** (0.026)	0.131*** (0.026)	0.109*** (0.026)	-0.017 (0.014)	
가구소득	0.041** (0.013)	0.082*** (0.014)	0.071*** (0.015)	0.071*** (0.015)	0.054*** (0.015)	0.019* (0.008)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210** (0.074)	-0.097 (0.077)	-0.154 (0.081)	-0.085 (0.081)	-0.117 (0.083)	0.334*** (0.049)
	이혼/사별 /별거	0.038 (0.091)	0.030 (0.096)	-0.020 (0.101)	-0.027 (0.100)	-0.115 (0.103)	0.203*** (0.056)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005 (0.062)	0.054 (0.066)	0.152* (0.069)	0.097 (0.069)	0.012 (0.070)	-0.169*** (0.042)
	일산서구	-0.043 (0.054)	-0.016 (0.057)	-0.016 (0.059)	0.018 (0.059)	0.002 (0.061)	-0.178*** (0.036)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083 (0.076)	-0.038 (0.080)	-0.080 (0.084)	-0.059 (0.084)	-0.059 (0.086)	-0.051 (0.047)
	연립/ 다세대	-0.184** (0.066)	-0.110 (0.069)	-0.007 (0.073)	-0.068 (0.072)	-0.126 (0.074)	-0.119** (0.045)
	기타	0.162 (0.100)	0.098 (0.106)	-0.034 (0.111)	0.163 (0.110)	0.236* (0.113)	0.053 (0.069)
점유형태 (준거 :자가)	전세	0.005 (0.062)	0.031 (0.065)	0.041 (0.068)	-0.014 (0.068)	0.010 (0.070)	0.090* (0.042)
	월세	-0.047 (0.068)	-0.102 (0.071)	-0.107 (0.075)	0.000 (0.075)	0.003 (0.077)	0.170*** (0.045)
	무상	-0.286 (0.178)	-0.016 (0.188)	-0.057 (0.197)	-0.010 (0.196)	-0.034 (0.201)	0.191 (0.108)
1인가구 (준거: 다인가구)	0.098 (0.086)	0.129 (0.091)	0.124 (0.095)	0.067 (0.095)	0.078 (0.097)	0.003 (0.057)	
상수	2.899*** (0.181)	2.283*** (0.190)	2.863*** (0.199)	2.483*** (0.198)	2.576*** (0.204)	2.674*** (0.110)	
N	1537	1537	1537	1537	1537	3365	
R-sq	0.078	0.065	0.083	0.071	0.051	0.041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 < 0.05$: *, $p < 0.01$: **, $p < 0.001$: ***

다음으로 [표 3-60]의 모형1은 주거만족도, 모형2는 경제만족도, 모형3은 고용(일자리) 만족도, 모형4는 가족·사회적관계 만족도, 모형5는 주민자치(참여)만족도, 모형6은 교육·보육만족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전세 및 월세 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월세 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서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덕양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 응답자는 다인가구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고용(일자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응답자의 경우 기혼 응답자에 비해, 일산동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덕양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고용(일자리)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거주 응답자는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 거주 응답자는 다인가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고용(일자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혼/사별/별거 응답자의 경우 기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 서구 응답자는 덕양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월세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민자치(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는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월세 거주 응

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민자치(참여)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보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응답자일수록 기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보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가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보육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0]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4)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주거만족도	경제만족도	고용(일자리)만족도	가족·사회적관계만족도	주민주거(참여)만족도	교육·보육만족도	
연령	0.001 (0.001)	-0.000 (0.001)	-0.002 (0.001)	-0.004*** (0.001)	0.000 (0.001)	0.003** (0.001)	
여성	-0.037 (0.031)	0.024 (0.028)	-0.022 (0.029)	0.031 (0.030)	0.038 (0.022)	-0.010 (0.025)	
교육수준	-0.016 (0.015)	-0.005 (0.014)	0.034* (0.014)	-0.012 (0.014)	-0.020 (0.010)	0.017 (0.012)	
가구소득	0.045*** (0.008)	0.104*** (0.008)	0.075*** (0.008)	0.053*** (0.008)	0.031*** (0.006)	0.026*** (0.007)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027 (0.051)	-0.014 (0.046)	-0.117* (0.047)	-0.061 (0.048)	0.043 (0.035)	0.126** (0.040)
	이혼/사별/별거	0.046 (0.057)	0.004 (0.052)	0.064 (0.052)	0.132* (0.054)	0.055 (0.040)	0.011 (0.045)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012 (0.043)	-0.008 (0.039)	-0.099* (0.039)	-0.024 (0.041)	0.001 (0.030)	0.001 (0.034)
	일산서구	-0.036 (0.037)	0.074* (0.034)	-0.046 (0.034)	-0.101** (0.036)	0.017 (0.026)	0.029 (0.030)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360*** (0.049)	-0.216*** (0.044)	-0.068 (0.044)	-0.046 (0.046)	-0.028 (0.034)	-0.121** (0.038)
	연립/다세대	-0.433*** (0.047)	-0.269*** (0.042)	-0.059 (0.043)	-0.076 (0.044)	-0.107*** (0.032)	-0.168*** (0.037)
	기타	-0.053 (0.071)	0.088 (0.065)	0.137* (0.065)	-0.046 (0.068)	0.055 (0.050)	-0.052 (0.056)
점유형태 (준거: 자가)	전세	-0.150*** (0.043)	-0.060 (0.039)	0.046 (0.040)	-0.014 (0.041)	0.009 (0.030)	0.044 (0.034)
	월세	-0.311*** (0.047)	-0.186*** (0.043)	-0.073 (0.043)	-0.117** (0.045)	-0.077* (0.033)	0.071 (0.037)
	무상	-0.096 (0.111)	-0.127 (0.101)	0.029 (0.102)	-0.005 (0.106)	0.076 (0.078)	0.080 (0.088)
1인가구 (준거: 다인가구)	0.158** (0.059)	0.167** (0.054)	0.199*** (0.054)	-0.063 (0.056)	0.080 (0.041)	0.051 (0.046)	
상수	3.380*** (0.113)	2.514*** (0.103)	2.596*** (0.104)	3.737*** (0.108)	2.806*** (0.079)	2.678*** (0.089)	
N	3365	3365	3365	3365	3365	3365	
R-sq	0.073	0.116	0.057	0.039	0.020	0.021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0.05 : *, p<0.01 : **, p<0.001 : ***

다음으로 [표 3-61]의 모형1은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 모형2는 교통만족도, 모형3은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 모형4는 문화·여가 만족도, 모형5는 건강(의료·보건)만족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주거만족도, 모형2는 경제만족도, 모형3은 고용(일자리) 만족도, 모형4는 가족·사회적관계 만족도, 모형5는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모형6은 교육·보육만족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일수록 기혼에 비해, 1인가구 거주 응답자일수록 다인가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산동구 거주 응답자의 경우 덕양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및 기타 거주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통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일수록 기혼 응답자에 비해, 전세 및 월 거주 응답자일수록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통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응답자의 경우 기혼 응답자에 비해, 월세 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 거주 응답자는 다인가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및 기타 거주 응답자는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문화·여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덕양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전세 거주 응답자는 아

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전세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문화·여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및 기타 거주 응답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문화·여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건강(의료·보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일산동구 및 서구 거주 응답자는 덕양구 거주 응답자에 비해, 전세 거주 응답자는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건강(의료·보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건강(의료·보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수들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5)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환경 (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	교통 만족도	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건강 (의료·보건) 만족도	
연령	0.005*** (0.001)	0.002 (0.002)	0.000 (0.001)	-0.002 (0.001)	-0.002 (0.001)	
여성	-0.026 (0.032)	-0.012 (0.038)	-0.050 (0.027)	0.008 (0.028)	-0.023 (0.028)	
교육수준	-0.021 (0.015)	-0.058** (0.018)	0.010 (0.013)	0.057*** (0.013)	0.049*** (0.013)	
가구소득	0.025** (0.009)	-0.017 (0.010)	0.024** (0.007)	0.044*** (0.008)	0.045*** (0.008)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283*** (0.052)	0.210*** (0.062)	0.143** (0.044)	0.085 (0.046)	0.094* (0.045)
	이혼/사별 /별거	0.086 (0.058)	0.010 (0.069)	0.110* (0.050)	0.031 (0.051)	0.085 (0.051)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117** (0.044)	-0.081 (0.052)	-0.062 (0.038)	0.134*** (0.039)	0.209*** (0.038)
	일산서구	-0.033 (0.038)	-0.085 (0.045)	-0.003 (0.033)	0.058 (0.034)	0.106** (0.033)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202*** (0.050)	-0.264*** (0.059)	-0.312*** (0.042)	-0.276*** (0.044)	-0.147*** (0.043)
	연립/ 다세대	-0.098* (0.048)	-0.244*** (0.057)	-0.347*** (0.041)	-0.224*** (0.042)	-0.263*** (0.042)
	기타	-0.226** (0.073)	-0.099 (0.086)	-0.191** (0.062)	-0.137* (0.064)	-0.074 (0.064)
점유형태 (준거: 자가)	전세	-0.043 (0.044)	0.108* (0.053)	0.038 (0.038)	0.102** (0.039)	0.100** (0.039)
	월세	0.001 (0.048)	0.179** (0.057)	0.119** (0.041)	0.005 (0.042)	0.040 (0.042)
	무상	-0.011 (0.114)	0.074 (0.135)	-0.126 (0.097)	-0.092 (0.100)	-0.014 (0.099)
1인가구 (준거: 다인가구)	0.124* (0.060)	0.199** (0.071)	0.119* (0.051)	0.157** (0.053)	0.014 (0.052)	
상수	2.639*** (0.116)	2.958*** (0.137)	3.103*** (0.099)	2.860*** (0.101)	2.859*** (0.101)	
N	3365	3365	3365	3365	3365	
R-sq	0.027	0.033	0.056	0.075	0.077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0.05 : *, p<0.01 : **, p<0.001 : ***

3. 삶의 만족도 및 시정 만족도 항목에 대한 인과성 분석

다음으로 [표 3-62]의 모형1은 삶의 만족도를, 모형2는 시정 만족도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만족도, 경제만족도, 고용(일자리 만족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경제만족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고용(일자리 만족도), 주거만족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만족도,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만족도, 주민자치(참여)만족도, 교육·보육 만족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 교통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참여)만족도, 교통 만족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 교육·보육 만족도, 경제 만족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삶의 질 만족도 및 시정만족도 인과성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삶의 만족도	시정 만족도
주거 만족도	0.096*** (0.017)	0.035 (0.018)
경제 만족도	0.295*** (0.021)	0.058** (0.023)
고용(일자리 만족도)	0.113*** (0.020)	0.005 (0.021)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0.129*** (0.017)	-0.005 (0.018)
주민자치(참여) 만족도	0.043 (0.025)	0.170*** (0.026)
교육·보육 만족도	0.001 (0.023)	0.062* (0.024)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	0.029 (0.017)	0.098*** (0.018)
교통 만족도	-0.028* (0.014)	0.170*** (0.015)

구분	모형1	모형2
	삶의 만족도	시정 만족도
안전 (생활안전·재난안전) 만족도	-0.054* (0.021)	0.014 (0.022)
문화여가 만족도	0.092*** (0.021)	0.026 (0.023)
건강 (의료·보건) 만족도	0.093*** (0.021)	0.034 (0.023)
상수	0.556*** (0.081)	0.902*** (0.087)
N	3365	3365
R-sq	0.320	0.189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 < 0.05$: *, $p < 0.01$: **, $p < 0.001$: ***

제 4 장

고양시 취약계층 및 1인가구 현황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절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및 1인가구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기준으로 각 집단을 선별 하였다.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 응답자,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응답자, 주택점유형태가 전세, 월세, 무상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1인 이하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선별한 취약 계층 및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행정단위별(구별, 동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각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고양시 내 분포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고양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절 분석 결과

1.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먼저 고양시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한 취약계층과,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산출하여 보았다. 먼저 [표 4-1]은 취약 계층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연령대 구분은 응답자의 나이를 바탕으로 청년(19세~34세), 장년(35~49세), 중년(50세~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한 것이며, 노년(54.13%), 중년(29.82%), 장년(11.01%), 청년(5.05%)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66.52%, 남성이 3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덕양구(53.74%), 일산동구(27.31%), 일산서구(18.94%)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택형태의 경우, 아파트(40.09%), 단독주택(32.60%), 연립/다세대(22.91%), 기타(4.41%)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점유형태는 월세(61.67%), 전세(27.31%), 무상(11.01%)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 58.15%, 100~200만원 미만 41.85%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54.19%, 고등학교 졸업 45.81%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이혼/사별/별거(50.22%), 기혼(32.60%), 미혼(17.1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인 가구는 51.10% 다인 가구 48.90%로 나타났다.

[표 4-1] 취약계층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비 율
연령대	청년	11	5.05
	장년	24	11.01
	중년	65	29.82
	노년	118	54.13
성별	남성	76	33.48
	여성	151	66.52
거주지역	덕양구	122	53.74
	일산동구	62	27.31
	일산서구	43	18.94
주택형태	아파트	91	40.09
	단독주택	74	32.60
	연립/다세대	52	22.91
	기타	10	4.41
점유형태	전세	62	27.31
	월세	140	61.67
	무상	25	11.0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2	58.15
	100-200만원 미만	95	41.85
교육수준	중졸이하	123	54.19
	고등학교	104	45.81
결혼상태	기혼	74	32.60
	미혼	39	17.18
	이혼/사별/별거	114	50.22
1인가구 여부	다인 가구	111	48.90
	1인 가구	116	51.10

비고 : n=227

다음 [표 4-2]는 1인 가구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1인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노년(35.70%), 중년(27.09%), 장년(22.03%), 청년(15.1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 38.13%, 여성 61.87%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덕양구(39.90%), 일산동구(36.36%), 일산서구(23.74%)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택형태는 아파트(39.14%), 단독주택(29.04%), 기타(18.43%), 연립/다세대(13.3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점유형태는 월세(46.72%), 자가(28.03%), 전세(19.70%), 무상(5.56%)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37.63%), 100-200만원 미만(21.21%), 200-300만원 미만(20.45%), 300-400만원 미만(8.84%), 400-500만원 미만(5.30%), 500-600만원 미만(3.03%), 600-700만원 미만(1.26%), 700만원 이상(2.27%)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이하(30.30%), 고등학교(26.26%), 대학교(24.75%), 전문대(14.90%), 대학원(3.79%)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상태의 경우, 이혼/사별/별거(51.26%), 미혼(36.11%), 기혼(12.63%)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 1인가구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연령대	청년	61	15.40
	장년	87	21.97
	중년	107	27.02
	노년	141	35.61
성별	남성	151	38.13
	여성	245	61.87
거주지역	덕양구	158	39.90
	일산동구	144	36.36
	일산서구	94	23.74
주택형태	아파트	155	39.14
	단독주택	115	29.04
	연립/다세대	53	13.38
	기타	73	18.43
점유형태	자가	111	28.03
	전세	78	19.70
	월세	185	46.72
	무상	22	5.5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49	37.63
	100-200만원 미만	84	21.21
	200-300만원 미만	81	20.45
	300-400만원 미만	35	8.84
	400-500만원 미만	21	5.30
	500-600만원 미만	12	3.03
	600-700만원 미만	5	1.26
	700만원 이상	9	2.27
교육수준	중졸이하	120	30.30
	고등학교	104	26.26
	전문대	59	14.90
	대학교	98	24.75
	대학원	15	3.79
결혼상태	기혼	50	12.63
	미혼	143	36.11
	이혼/사별/별거	203	51.26

비고 : n=396

2. 취약계층 현황 분석

앞서 선별한 취약계층의 각 행정단위별(구별, 동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구별 취약계층 비율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 구별 취약계층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3.6894$, $p<0.001$). 덕양구의 취약계층은 9.81%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동구 6.13%, 일산서구 3.87%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행정단위별(구별) 취약계층 교차분석 결과

행정단위	비취약 계층		취약 계층		소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덕양구	1,122	90.19	122	9.81	1,244
일산 동구	949	93.87	62	6.13	1,011
일산 서구	1,067	96.13	43	3.87	1,110
계	3,138	93.25	227	6.75	3,365

비교 : $\chi^2(2) = 33.6894$ ***,
 $p<0.05$: *, $p<0.01$: **, $p<0.001$: ***

다음으로 각 동별로 취약계층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 원신동의 취약계층 비율이 34.29%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사2동과 행신1동의 취약계층 비율이 0%로 나타났다. 일산동구의 경우 중산동의 취약계층 비율이 17.14%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두1동과 마두2동의 취약계층 비율이 0%로 나타났다. 일산서구의 경우 주엽2동의 취약계층 비율이 12.07%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엽1동의 취약계층 비율이 0%로 나타났다.

[표 4-4] 행정단위별(구별) 취약계층 비율

행정단위		비취약 계층		취약 계층		소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덕양구	고양동	89	93.68	6	6.32	95
	관산동	206	92.79	16	7.21	222
	능곡동	100	96.15	4	3.85	104
	삼송동	16	72.73	6	27.27	22
	성서1동	40	75.47	13	24.53	53
	성서2동	38	100.00	0	0.00	38
	원산동	46	65.71	24	34.29	70
	주교동	60	75.95	19	24.05	79
	행산동	33	100.00	0	0.00	33
	행산3동	109	88.62	14	11.38	123
	행주동	25	86.21	4	13.79	29
	화정1동	173	96.65	6	3.35	179
	화정2동	65	98.48	1	1.52	66
	흥도동	122	93.13	9	6.87	131
소계	1,122	90.19	122	9.81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119	91.54	11	8.46	130
	마두동	31	100.00	0	0.00	31
	마두2동	144	100.00	0	0.00	144
	백석1동	122	96.06	5	3.94	127
	백석2동	112	91.06	11	8.94	123
	장항1동	64	92.75	5	7.25	69
	장항2동	86	95.56	4	4.44	90
	장발산동	50	87.72	7	12.28	57
	중산동	29	82.86	6	17.14	35
	풍산동	192	93.66	13	6.34	205
소계	949	93.87	62	6.13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154	94.48	9	5.52	163
	송산동	145	99.32	1	0.68	146
	송포동	135	97.83	3	2.17	138
	일산1동	119	96.75	4	3.25	123
	일산2동	78	88.64	10	11.36	88
	일산3동	68	98.55	1	1.45	69
	주엽1동	186	100.00	0	0.00	186
	주엽2동	102	87.93	14	12.07	116
	탄현동	80	98.77	1	1.23	81
소계	1,067	96.13	43	3.87	1,110	
계	3,138	93.25	227	6.75	3,365	

3. 1인가구 현황 분석

다음으로 각 행정단위별(구별, 동별)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구별 1인가구 비율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 구별 1인가구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6472$, $p<0.001$). 일산 동구의 1인가구 비율이 14.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덕양구 12.7%, 일산 서구 8.47%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행정단위(구별) 1인가구 교차분석 결과

행정단위	다인 가구		1인 가구		소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덕양구	1,086	87.30	158	12.70	1,244
일산 동구	867	85.76	144	14.24	1,011
일산 서구	1,016	91.53	94	8.47	1,110
계	2,969	88.23	396	11.77	3,365

비교 : $\chi^2(2) = 18.6472$ ***

$p<0.05$: *, $p<0.01$: **, $p<0.001$: ***

다음으로 각 동별로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덕양구의 경우 삼송동의 1인가구 비율이 36.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신1동의 1인가구 비율이 0%로 나타났다. 일산 동구의 경우 장항2동의 1인가구 비율이 35.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두2동의 1인가구 비율이 2.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 서구의 경우 일산2동의 1인가구 비율이 19.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현동의 1인가구 비율이 1.2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행정단위별(동별) 1인가구 비율

행정단위		다인 가구		1인 가구		소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덕양구	고양동	81	85.26	14	14.74	95
	관산동	199	89.64	23	10.36	222
	능곡동	95	91.35	9	8.65	104
	삼송동	14	63.64	8	36.36	22
	성서1동	44	83.02	9	16.98	53
	성서2동	37	97.37	1	2.63	38
	원신동	46	65.71	24	34.29	70
	주교동	60	75.95	19	24.05	79
	행산동	33	100.00	0	0.00	33
	행산3동	106	86.18	17	13.82	123
	행주동	26	89.66	3	10.34	29
	화정1동	165	92.18	14	7.82	179
	화정2동	64	96.97	2	3.03	66
	흥도동	116	88.55	15	11.45	131
	소계	1,086	87.30	158	12.70	1,244
일산 동구	고봉동	117	90.00	13	10.00	130
	마두동	26	83.87	5	16.13	31
	마두2동	141	97.92	3	2.08	144
	백석동	110	86.61	17	13.39	127
	백석2동	86	69.92	37	30.08	123
	장항1동	64	92.75	5	7.25	69
	장항2동	58	64.44	32	35.56	90
	장발산동	46	80.70	11	19.30	57
	중산동	34	97.14	1	2.86	35
	풍산동	185	90.24	20	9.76	205
소계	867	85.76	144	14.24	1,011	
일산 서구	대화동	141	86.50	22	13.50	163
	송산동	144	98.63	2	1.37	146
	송포동	128	92.75	10	7.25	138
	일산1동	108	87.80	15	12.20	123
	일산2동	71	80.68	17	19.32	88
	일산3동	66	95.65	3	4.35	69
	주엽1동	178	95.70	8	4.30	186
	주엽2동	100	86.21	16	13.79	116
	탄현동	80	98.77	1	1.23	81
소계	1,016	91.53	94	8.47	1,110	
계	3,138	93.25	227	6.75	3,365	

4. 1인 가구 여부와 만족도 문항 간의 유의성 분석

1인 가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분석한 결과로, 3장에서 1인 가구 여부가 각 만족도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 모형들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집단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연령집단의 효과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 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교통, 문화·여가 만족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준거집단인 청년집단에 비해 중년집단과 노년집단 1인 가구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기] 1인 가구 여부와 만족도 문항 간의 유의성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주택 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지하철 만족도	버스 만족도
연령 (준거 :청년)	장년	0.059 (0.168)	-0.111 (0.155)	0.378 (0.216)	0.261 (0.219)
	중년	0.280 (0.206)	0.099 (0.190)	0.627* (0.277)	0.385 (0.264)
	노년	0.082 (0.229)	0.023 (0.211)	0.795** (0.297)	0.427 (0.291)
여성		0.005 (0.103)	0.023 (0.094)	-0.077 (0.132)	-0.044 (0.131)
교육수준		-0.071 (0.053)	-0.027 (0.049)	0.034 (0.067)	0.044 (0.068)
가구소득		0.031 (0.037)	0.014 (0.034)	-0.097* (0.045)	0.032 (0.048)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086 (0.190)	0.061 (0.175)	-0.142 (0.253)	0.011 (0.246)
	이혼/사별/ 별거	0.100 (0.170)	0.023 (0.157)	-0.056 (0.218)	-0.111 (0.221)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021 (0.139)	-0.035 (0.128)	0.266 (0.183)	-0.226 (0.176)
	일산서구	-0.294* (0.136)	-0.299* (0.125)	-0.059 (0.173)	-0.155 (0.175)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513*** (0.128)	-0.202 (0.118)	-0.295 (0.172)	-0.040 (0.163)
	연립/ 다세대	-0.538** (0.165)	-0.393* (0.152)	0.100 (0.212)	-0.166 (0.208)
	기타	-0.160 (0.169)	-0.058 (0.156)	-0.004 (0.214)	-0.034 (0.215)
점유형태	전세	-0.223	0.068	0.229	-0.047

(준거: 자가)		(0,148)	(0,137)	(0,191)	(0,191)
	월세	-0.132 (0,127)	0.038 (0,117)	0.319 (0,168)	0.225 (0,162)
	무상	-0.371 (0,225)	-0.104 (0,208)	-0.024 (0,340)	0.121 (0,302)
상수		3.898*** (0,351)	3.794*** (0,323)	3.224*** (0,455)	2.912*** (0,447)
N		396	396	294	333
R-sq		0.100	0.042	0.112	0.040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4-7] 1인 가구 여부와 만족도 문항 간의 유의성 분석 결과(계속)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여가생활 만족도	개인소득 만족도	개인소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연령 (준거 :청년)	장년	0.111 (0,134)	0.069 (0,178)	0.065 (0,155)	-0.020 (0,155)
	중년	0.358* (0,164)	0.271 (0,223)	0.138 (0,190)	0.028 (0,189)
	노년	0.360* (0,182)	0.398 (0,244)	0.183 (0,210)	0.228 (0,210)
여성		-0.030 (0,082)	0.064 (0,112)	0.032 (0,094)	0.225* (0,094)
교육수준		0.106* (0,042)	-0.056 (0,058)	0.012 (0,049)	0.017 (0,049)
가구소득		0.014 (0,029)	0.277*** (0,039)	0.140*** (0,034)	0.119*** (0,034)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369* (0,151)	0.326 (0,201)	0.498** (0,174)	0.176 (0,174)
	이혼/사별/ 별거	0.136 (0,136)	0.294 (0,182)	0.306 (0,156)	0.110 (0,156)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339** (0,111)	0.187 (0,148)	0.216 (0,127)	0.259* (0,127)
	일산서구	0.118 (0,108)	0.006 (0,169)	0.053 (0,125)	0.117 (0,125)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281** (0,102)	0.253 (0,140)	-0.121 (0,118)	0.159 (0,118)
	연립/ 다세대	-0.093 (0,132)	0.035 (0,180)	0.131 (0,151)	0.133 (0,152)
	기타	-0.066 (0,135)	0.089 (0,179)	-0.181 (0,155)	0.043 (0,155)
점유형태	전세	0.036	-0.100	0.054	-0.031

(준거 자가)		(0.118)	(0.163)	(0.136)	(0.136)
	월세	-0.001 (0.101)	-0.008 (0.139)	-0.018 (0.116)	-0.053 (0.116)
	무상	-0.042 (0.180)	-0.174 (0.254)	-0.103 (0.206)	-0.194 (0.207)
상수		2.377*** (0.280)	1.493*** (0.380)	1.937*** (0.323)	2.175*** (0.323)
N		396	345	395	396
R-sq		0.108	0.165	0.084	0.077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4-7] 1인 가구 여부와 만족도 문항 간의 유의성 분석 결과(계속)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주거 만족도	경제 만족도	고용 (일자리) 만족도	환경 (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
연령 (준거 :청년)	장년	-0.065 (0.157)	-0.053 (0.142)	-0.102 (0.137)	0.050 (0.165)
	중년	0.167 (0.192)	-0.077 (0.173)	-0.141 (0.168)	0.193 (0.202)
	노년	0.151 (0.213)	0.075 (0.192)	0.033 (0.186)	0.270 (0.224)
여성		0.073 (0.096)	0.025 (0.086)	0.130 (0.084)	0.104 (0.100)
교육수준		0.003 (0.049)	-0.051 (0.045)	0.015 (0.043)	-0.008 (0.052)
가구소득		0.050 (0.034)	0.157*** (0.031)	0.125*** (0.030)	0.014 (0.036)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055 (0.177)	0.265 (0.159)	0.034 (0.154)	0.289 (0.186)
	이혼/사별/ 별거	0.073 (0.159)	0.126 (0.143)	-0.057 (0.139)	0.171 (0.167)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066 (0.129)	0.238* (0.117)	0.137 (0.113)	0.196 (0.136)
	일산서구	-0.162 (0.127)	0.159 (0.114)	0.055 (0.111)	0.079 (0.133)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515*** (0.120)	-0.173 (0.108)	-0.050 (0.105)	-0.159 (0.126)
	연립/ 다세대	-0.331* (0.154)	-0.022 (0.139)	0.202 (0.135)	-0.302 (0.162)
	기타	-0.108	-0.013	0.059	-0.156

		(0,158)	(0,142)	(0,138)	(0,166)
점유형태 (준거: 자가)	전세	-0.004 (0,138)	-0.104 (0,125)	0.134 (0,121)	-0.183 (0,145)
	월세	-0.041 (0,118)	-0.057 (0,107)	0.064 (0,103)	-0.047 (0,124)
	무상	-0.417* (0,210)	-0.367 (0,190)	0.077 (0,184)	-0.296 (0,221)
상수		3.297*** (0,328)	2.327*** (0,295)	2.365*** (0,286)	2.670*** (0,344)
N		396	396	396	396
R-sq		0.091	0.118	0.098	0.044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 < 0.05$: *, $p < 0.01$: **, $p < 0.001$: ***

[표 4-7] 1인 가구 여부와 만족도 문항 간의 유의성 분석 결과(계속)

구분		모형2	모형3	모형4
		교통 만족도	안전 만족도 (생활안전·재난안전)	문화여가 만족도
연령 (준거 :청년)	장년	0.271 (0.173)	0.107 (0.135)	0.111 (0.134)
	중년	0.652** (0.212)	0.138 (0.166)	0.358* (0.164)
	노년	0.593* (0.235)	0.288 (0.184)	0.360* (0.182)
여성		0.069 (0.105)	0.077 (0.082)	-0.030 (0.082)
교육수준		0.043 (0.054)	0.069 (0.043)	0.106* (0.042)
가구소득		-0.066 (0.038)	0.037 (0.029)	0.014 (0.029)
결혼상태 (준거 :기혼)	미혼	0.214 (0.195)	0.279 (0.152)	0.369* (0.151)
	이혼/사별/별거	-0.055 (0.175)	0.360** (0.137)	0.136 (0.136)
지역구분 (준거 :덕양구)	일산동구	0.072 (0.142)	-0.048 (0.111)	0.339** (0.111)
	일산서구	0.119 (0.139)	-0.096 (0.109)	0.118 (0.108)
주택유형 (준거 :아파트)	단독주택	-0.161 (0.132)	-0.261* (0.103)	-0.281** (0.102)
	연립/ 다세대	-0.280 (0.170)	-0.472*** (0.133)	-0.093 (0.132)
	기타	0.160	0.002	-0.066

		(0.173)	(0.136)	(0.135)
점유형태 (준가 자가)	전세	-0.050 (0.152)	0.118 (0.119)	0.036 (0.118)
	월세	0.094 (0.130)	0.222* (0.102)	-0.001 (0.101)
	무상	0.025 (0.231)	-0.124 (0.181)	-0.042 (0.180)
상수		2.583*** (0.360)	2.562*** (0.282)	2.377*** (0.280)
N		396	396	396
R-sq		0.060	0.109	0.108

비고 :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p < 0.05$: *, $p < 0.01$: **, $p < 0.001$: ***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제절 연구 결과

1. 고양시 정책수요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 실시한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수요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응답비율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먼저, 사회복지 우선지원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출산보육 지원과 노인복지 사업으로 나뉘지는 두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저연령, 일산 서구/동구, 아파트 거주, 자가 및 전세형태 거주, 고소득, 고학력, 기혼/미혼 응답자, 다인 가구 응답자들은 출산보육 지원에 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고연령, 덕양구, 단독/연립/다세대/기타, 월세 및 무상, 저소득, 저학력, 이혼/사별/별거, 1인 가구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자리 창출 우선분야의 경우, 일자리 발굴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고연령으로 갈수록 일자리 발굴사업에 관한 응답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 것에 반해, 직업훈련과 기업지원에 관한 응답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가사부담 경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은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였는데, 일자리 발굴사업과 취업알선의 경우 가구소득 혹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 패턴을 보인 반면, 기업지원의 경우 가구소득 혹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양시 일자리창출 추진분야의 경우, 대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응답패턴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각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연령대의 경우 고연령대의 경우 농촌산

업과 화훼산업에 대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았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저연령대의 경우 사회적 경제와 4차산업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응답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덕양구의 경우 화훼산업에 대한 응답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았으나)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전시컨벤션 산업의 응답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인접한 킨텍스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형태별로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응답비율이 중소기업의 응답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4차 산업의 응답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반면 사회적 기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혼/사별/별거 응답자, 1인가구 응답자들도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경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역점분야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자리 분야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보건복지에 대한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노년의 경우 일자리 분야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일자리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의 비율이 높았으나 일산 동구 및 서구는 덕양구에 비해 교통 분야가 높았다. 또한 아파트, 자가 및 전세 거주자가 교통분야를 역점 분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가구소득과 교육수준별로 살펴볼 때,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반대로 가구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통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혼/사별/별거 응답자와 1인가구 응답자들도 다른 집단에 비해 보건복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대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출산지원, 영유아 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다양한 응답패턴을 보였다. 연령대의 경우 청년과 노년의 경우 출산지원과 영유아 보육 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년 중년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응답자의 경우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과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일산동구는 출산지원과 영유아 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 형태 별로는 연립/다세대 응답자들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과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과 교육수준 별로는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영유아보육지원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출산지원과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상태와 1인가구 여부별로는 기혼 및 다인가구의 경우 출산지원, 영유아보육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혼/사별/별거와 1인가구의 경우 여성복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와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노년집단의 경우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외의 집단에서는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일산동구와 서구의 경우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덕양구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에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나머지 집단의 경우 일자리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점유형태별로는 무상집단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이외의 집단에서는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나 학력이 증가할수록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반대로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및 노인복지 서비스의 응답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상태와 1인가구 여부별로는 기혼 및 다인가구의 경우 일자리, 이혼/사별/별거와 1인가구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계층 필요정책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취업 및 창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취업 및 창업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일산 동구와 서구에서 취업 및 창업 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

주택과 기타에서는 취업 및 창업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점유형 태별로는 자가와 무상의 경우 취업 및 창업 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세와 월세의 경우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나 학력이 증가할수록 취업 및 창업지원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상 태별로는 미혼 집단의 경우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양시 삶의 질 분석결과 요약

제 3장에서 실시한 고양시 행정단위별 삶의 질 현황 분석결과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행정단위(구)별 만족도 변수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와 교통분야를 살펴보면, 기차 이용 만족도와 버스 이용만족도의 경우 덕양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와 여가분야를 살펴보면, 여가 생활 만족도의 경우 일산동구와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덕양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노동 분야를 살펴보면, 고용 안정성 만족도와 근무 환경 만족도의 경우 일산동구의 만족도 평균이 덕양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시정 분야를 살펴보면, 시정 만족도의 경우 덕양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생활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주거 만족도의 경우 일산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의 경우 덕양구 및 일산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교통만족도의 경우 덕양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안전(생활안전, 재난안전)의 일산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일산 동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문화 여가 만족도와 건강(의료·보건) 만족도의 경우 일산 동구 및 서구의 만족도 평균이 덕양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단 상술한 결과들은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이므로 이를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만족도 변수들간의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적으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 관련 만족도 변수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지하철 만족도의 경우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기차 만족도와 교통만족도에서는 교육수준이 효과가 부적(negative)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기차 만족도, 버스 만족도의 경우 덕양구가 일산 서구 및 동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여가 생활 만족도의 경우 일산동구가 덕양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삶의 만족도와 시정 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의 경우 덕양구가 일산동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일자리) 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 동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서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사회적관계 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서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동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여가 만족도는 덕양구가 일산동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료·보건)의 경우 덕양구가 일산 동구 및 서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아파트 거주 응답자에 비해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거주 응답자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점유 형태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가 거주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택시 이용 만족도, 버스 이용 만족도,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의 경우 월세 거주 응답자가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여가생활 만족도와 건강(의료·보건)만족도의 경우 전세 거주 응답자가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시정 만족도와 교통만족도의 경우 전세 및 월세거주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1인가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만족도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삶의 만족도 및 시정만족도에 대한 인과성 분석 요약

분야별 만족도 문항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모형1)와 시정 만족도(모형2)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만족도, 경제만족도, 고용(일자리 만족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경제만족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고용(일자리 만족도), 주거만족도, 건강(의료·보건)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만족도, 안전(생활안전·재난 안전)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만족도, 주민자치(참여)만족도, 교육·보육 만족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 교통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참여)만족도, 교통 만족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만족도, 교육·보육 만족도, 경제 만족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양시 취약계층 및 1인가구 현황 분석 요약

제 4장에서 실시한 고양시 취약계층 및 1인가구 현황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행정단위(구)별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순으로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의 경우, 취약계층의 비율이 20%를 넘는 행정동이 4개(삼송동, 성사1동, 원신동, 주교동)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행정단위(구)별 1인가구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일산동구, 덕양구, 일산 서구 순으로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30%를 넘는 행정동이 2개(삼송동, 원신동)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산동구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30%를 넘는 행정동이 2개(백석2동, 장항2동)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정책 제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수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록 확인적 수준의 접근이었으나 추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발굴사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양시 일자리 창출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여성이나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이혼/사별/별거 응답자 및 1인 가구 응답자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역점분야의 경우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년 집단,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이혼/사별/별거 응답자 및 1인가구 집단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여성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연령대 및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와 1인가구 여부에 따라 출산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여성복지 분야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실제 노년집단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계층 필요정책의 경우,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실제 청년 집단, 미혼집단에서는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등의 요구도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적인 응답패턴과 실제 정책수요자의 응답패턴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계층별 필요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응답 간의 괴리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집단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의 요구가 확인되었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는 등이다. 청년의 경우에도 실제 청년 연령대에서는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의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적인 정책수요의

응답비율 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 정책과 연관되지 않은 집단의 응답을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함의를 찾으려는 시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세부요인별 하위집단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세밀한 정책수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각 계층별 필요 정책 변수에 관한 분석을 예를 들자면, 노인 계층 필요정책 수요에 관해 분석할 때 실제 정책수요 계층인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그 안에서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세부집단을 구분하여 정책수요를 분석하는 등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정책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책수요의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가구소득과 학력, 결혼상태 중 이혼/사별/별거와 1인가구 등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로 인해 유사한 응답패턴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책 수요 변수들에 대한 분석들이 다양한 혼동요인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단순 교차분석을 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분석모델의 한계상 확인적 수준의 분석이었으므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세부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3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3장에서는 각 행정구역별로 삶의 질과 관련된 만족도 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거와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차 이용만족도의 경우 덕양구가 일산동구 및 서구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행신역이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 응답자들의 경우 행신역의 접근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기차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산 동구와 서구 주민들에게 행신역과 연계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덕양구의 경우 문화·여가 만족도와 건강(의료·보건) 만족도가 일산동구 및 서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만족도 문항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시정만족도에 어떠한 만족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의 경우 주거만족도, 경제만족도, 고용(일자리 만족도), 가족·사회적 관계 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정만족도의 경우는 경제만족도, 주민자치(참여)만족도, 교육·보육 만족도,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만족도, 교통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1인가구의에서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4장의 분석결과를 감안하였을 때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오피스텔·원룸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변수의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거나 세부요인에 따른 하위집단 비교 분석을 통해 그 맥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취약계층 및 1인 가구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취약계층의 경우 덕양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높은 비율을 보인 행정동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오래된 주거지역 혹은 신규 주택단지와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된다. 해당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 일산동구와 덕양구에서 높은 비율이 확인되었는데, 각 구별 맥락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산동구에서 1인 가구의 높은 비율을 보였던 행정동들(장항2동, 정발산동 등)들의 경우 대부분 오피스텔·원룸 밀집지역이다, 반면 덕양구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이거나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동일한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별 맥락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4장의 결과와 3장의 결과를 결합하여 공간정보분석(GIS)을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양시 기획담당관(2019). 『제4회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부 록

2019년 제 4회 고양시 사회조사 조사표(안) 가구주 설문지

2019년 제 4회 고양시 사회조사 조사표(안) 가구원 설문지

부록. 2019년 제 4회 고양시 사회조사 조사표(안) 가구주 설문지



동거비 제33조(비밀의 보호)

-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9년 제4회 고양시 사회조사 조사표(안) [가구주]

인사말씀

고양시에서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 및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고양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정확한 응답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사표 작성 시 의문사항은 고양시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031-8075-2067) 또는 경기도청 인구정책담당관 인구통계팀(☎031-8008-29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가구원 현황

현재 귀 구역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연번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양-음력)	조사여부	비고
1			남 / 여	년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2			남 / 여	년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3			남 / 여	년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4			남 / 여	년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5			남 / 여	년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6			남 / 여	년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가구주와의 관계		조사여부	가구원 수	
① 가구주(본인)	③ 배우자	① 조사	15세 이상	
② 미혼 자녀	④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15세 미만	
⑤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배우자) 포함	② 제외	계	
⑦ 조부모(배우자) 포함	⑧ 미혼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③ 불응()		
⑨ 기타 친·인척	⑩ 기타 동거인			

※ 조사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	--	---------	--



조사표 기입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 응답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고 주된 응답은 1개만 기입하십시오.
- ◆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양력 [2004년 8월 26일(음력 2004년 7월 1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 조사표의 1년간은 2018. 8. 27. ~ 2019. 8. 26. 기간을 말합니다.

I 가구 관련 사항

1 주택형태	2 점유형태
① 단독주택 ⑤ 아파트 ② 연립·다세대주택 ⑥ 기타	① 자기 집 ③ 전세 ② 포함급 있는 월세 ④ 포함급 없는 월세 (사택제) ⑤ 무상

II 개인 관련 사항

3 성별	5 가구주와의 관계	6 교육정도
① 남자 ② 여자 4 생년월일 ① 양력 ② 음력 □□□□년 □□□□월 □□□□일	① 가구주(본인)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본 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배우자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 포함) ⑧ 미혼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⑨ 기타 친인척 ⑩ 기타 동거인	① 안 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과정 ⑧ 대학원 박사과정
7 혼인상태		
① 미혼 ③ 사별 ④ 이혼 ② 배우자 있음		

III 복지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8 귀하는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출산, 보육지원 ④ 노인복지사업 확대 — **8-1** 항목으로
 ② 장애인복지 확대 ⑤ 외국인 지원 사업
 ③ 유급휴가, 보호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⑥ 기타()

8-1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한다면 우선해야 할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간병·목욕 서비스 ④ 가사서비스(집안청소 등) ③ 식사제공
 ② 이야기 상대 ⑤ 취업알선 ⑥ 건강검진
 ⑦ 여가활동 프로그램 ⑧ 정보화 등 각종 교육 ⑨ 기타()

노인이 느끼는 문제

9 귀하는 요즘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경제문제 ② 직업문제 ③ 건강문제 ④ 외로움, 소외감 ⑤ 이성, 결혼문제
 ⑥ 보건의료의식 약화 ⑦ 여가활동문제 ⑧ 복지문제 ⑨ 자녀문제 ⑩ 기타()

노후준비	
10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노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small>※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양력 2000년 8월 26일(음력 2000년 7월 27일 이전 출생))인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small>	
① 조사대상임 → 10-1-10-2 항목도	10-1 준비하고(되어) 있다 <small>※ 주민 것 선택 2개</small>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연금 ② 기타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③ 사적 연금(유령,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④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⑤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⑥ 부동산 운용 ⑦ 주식, 채권 등 ⑧ 기타()
② 조사대상자 아님 → 11 항목도	10-2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②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③ 준비할 능력이 없다 ④ 자녀에게 의존 한다 ⑤ 기타()

IV 주거와 교통

지역 거주기간 및 향후 거주의향		
11 귀택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시군)에서 사신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총 거주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 거주기간 : 약 _____ 년 → 11-1 항목도		
11-1 귀택은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현재 살고 계신 지역(시군)에서 계속 살 생각입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정주의식		
12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시군)에 거주하면서 고향같이 편안하다고 느껴집니까? ----- ① 태어나서 고향이다 ② 태어났으나 고향 같지 않다 ③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 ④ 태어나지 않아서 고향 같지 않다		
주택 만족도		
13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4 귀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또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되어 있습니까? <small>※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은 소화기 항목만 응답</small> <small>※ "주택화재경보기" : 연기 등 화재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로 천장에 등근 원형(지름 10cm 정도) 모양으로 부착됨</small>		
소방시설 설치 유무		
	있음	없음
14-1. 소화기 비치(1개 이상)	①	②
14-2. 주택화재경보기 설치(1개 이상)	①	②
14-2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제화 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③ 전혀 모름		

소득분배 정도	
28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빈부격차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긍정 ② 약간 긍정 ③ 보통 ④ 약간 부정 ⑤ 매우 부정
생활비 지출	
29 귀댁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부문은 무엇입니까? -----	① 식료품비 ② 주거비 ③ 교육비 ④ 보건의료비 ⑤ 의료비 ⑥ 교통통신비 ⑦ 부담스러운 지출 없음 ⑧ 기타()
부채유무 및 원인	
30 귀댁은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21 항목으로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⑤ 사업/영농자금(시설투자, 농기계구입, 자영업 등) ⑥ 기타()	

VII 사회통합과 공동체

자원봉사 참여																							
3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횟수(연간)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 22 항목으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활동 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간 참여횟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1회 평균시간</th> </tr> </thead> <tbody> <tr> <td>31-1.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방과 후 교실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시간</td> </tr> <tr> <td>31-2.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마을청소, 방범 활동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시간</td> </tr> <tr> <td>31-3.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시간</td> </tr> <tr> <td>31-4.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스포츠클럽,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시간</td> </tr> <tr> <td>31-5.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등 관련(해외 구호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시간</td> </tr> <tr> <td>31-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관공서 업무 지원, 무료 상담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시간</td> </tr> </tbody> </table>	활동 분야	연간 참여횟수	1회 평균시간	31-1.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방과 후 교실 등)	___회	___시간	31-2.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마을청소, 방범 활동 등)	___회	___시간	31-3.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등)	___회	___시간	31-4.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스포츠클럽,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	___회	___시간	31-5.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등 관련(해외 구호 포함)	___회	___시간	31-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관공서 업무 지원, 무료 상담 등)	___회	___시간		
활동 분야	연간 참여횟수	1회 평균시간																					
31-1.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방과 후 교실 등)	___회	___시간																					
31-2.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마을청소, 방범 활동 등)	___회	___시간																					
31-3.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등)	___회	___시간																					
31-4.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스포츠클럽,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	___회	___시간																					
31-5.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등 관련(해외 구호 포함)	___회	___시간																					
31-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관공서 업무 지원, 무료 상담 등)	___회	___시간																					
기부																							
3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후원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 기부 : 가족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금(후원금) 또는 물품(음식, 옷, 책, 장난감 등)을 제공	① 있다 ② 없다 - 23 항목으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활동 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간 참여횟수</th> </tr> </thead> <tbody> <tr> <td>32-1.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r> <tr> <td>32-2.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ARS, 방송사, 신문사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r> <tr> <td>32-3. 모금단체(기관), 물품후원단체를 통한 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r> <tr> <td>32-4.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종교에 내는 헌금은 제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r> <tr> <td>32-5.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r> <tr> <td>32-6. 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회</td> </tr> </tbody> </table>	활동 분야	연간 참여횟수	32-1.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	___회	32-2.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ARS, 방송사, 신문사 등)	___회	32-3. 모금단체(기관), 물품후원단체를 통한 후원	___회	32-4.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종교에 내는 헌금은 제외)	___회	32-5.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___회	32-6. 기타()	___회									
활동 분야	연간 참여횟수																						
32-1.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	___회																						
32-2.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ARS, 방송사, 신문사 등)	___회																						
32-3. 모금단체(기관), 물품후원단체를 통한 후원	___회																						
32-4.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종교에 내는 헌금은 제외)	___회																						
32-5.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___회																						
32-6. 기타()	___회																						

삶에 대한 만족도	
33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일의 가치	
34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가치 있다 ② 약간 가치 있다 ③ 보통 ④ 별로 가치 없다 ⑤ 전혀 가치 없다
대중에 대한 신뢰	
35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신뢰할 수 있다 ② 약간 신뢰할 수 있다 ③ 보통 ④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회적 계층의식	
36	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 고려)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상 ② 상하 ③ 중상 ④ 중하 ⑤ 하상 ⑥ 하하

VIII 일자리와 노동

직업선택 요인	
37	귀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수입 ② 안정성 ③ 장래성·발전성 ④ 보람·자아성취 ⑤ 적성·흥미 ⑥ 기타()
일자리 창출	
38	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취업알선(취업박람회 개최 등) ② 창업 등 지원 ③ 일자리 발굴사업 ④ 직업훈련 ⑤ 기업 지원 ⑥ 가사부담 경감 ⑦ 기타()
평소 경제활동	
39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2019. 8. 19.~8. 25.)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 무임,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가(휴가) 휴야가족적 이유, 노사 분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 휴직 중인 것도 '일을 하였다'에 해당합니다.
① 일을 하였다	② 일을 하지 않았다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3 상으로	<input type="checkbox"/> 1 여성 → <input type="checkbox"/> 4 상으로 <input type="checkbox"/> 2 남성 → <input type="checkbox"/> 1 상으로
39-1	귀하는 어디에서 일을 하였습니까? ※ 직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취급 상용명이나 제공 서비스 등 산업 활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는 조사원이 작성함
-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	_____
- 직장(사업체)의 주된 내용 :	_____ (□□)

39-2 귀하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부서 및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장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는 조사원이 작성함

-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_____
 - 부서 및 직책 : _____ (□□)

39-3 귀하는 직장(일)에서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는 고용 계약기간에 따라 1년 이상(상용), 1개월 이상-1년 미만(임시), 1개월 미만(일용)으로 구분합니다.

① 임금근로자

- ① 상용
 ② 임시
 ③ 일용

39-3-1 항목으로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39-3-1 귀하는 다니는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조사대상 : 임금근로자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39-3-1-1. 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39-3-1-2. 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39-3-1-3.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9-3-1-4.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39-3-1-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경력단절여성 ※ 만 19-54세 여성만 작성

※ 조사대상 : 만 19세-54세 [양력 2000년 8월 26일(음력 2000년 7월 27일) - 1965년 8월 26일(음력 1965년 7월 30일)]까지 출생한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40 귀하는 전에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40-1 직장 또는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선택 1-2개

- ① 있다 → 40-1 ~ 40-2 항목으로
 ② 없다 → 41 항목으로

- ① 결혼
 ② 임신, 출산
 ③ 육아
 ④ 자녀의 교육(초등학생)
 ⑤ 가족 돌봄(육아 제외)
 ⑥ 본인의 건강문제
 ⑦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불만족
 ⑧ 임시, 계절적 일의 완료
 ⑨ 직장의 휴업/폐업
 ⑩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⑪ 기타()

40-2 다시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40-2-1 다시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한다면 하고 싶은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다시 일할 생각 있다

- ① 결혼 전까지만
 ② 첫 자녀 출산 전까지만
 ③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으로 성장한 후
 ④ 자녀가 중학교 이상으로 성장한 후
 ⑤ 가정 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
 ⑥ 기타()

→ 40-2-1 항목으로

② 다시 일할 생각 없다

→ 41 항목으로

① 임금근로자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② 자영업자

IX 기타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및 개선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금액(공제 기준: 서울시·인천시 5,400만원, 경기도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4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서울(인천)시 보다 적은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 41-1 항목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41-1 항목
 ③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함 — 42 항목 ④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름 — 42 항목

41-1. 귀하는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서울(인천)시 지역과 동일한 공제기준 적용 ②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수원 고양 등)은 서울(인천)시의 기준 적용
 ③ 현행대로 유지 ④ 기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개선 분야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금액(공제 기준: 서울시·인천시 13,500만원, 경기도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42. 귀하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서울(인천)시 보다 적은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 42-1 항목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42-1 항목
 ③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함 — 42 항목 ④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름 — 42 항목

42-1. 귀하는 경기도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서울(인천)시 지역과 동일한 공제기준 적용 ②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수원 고양 등)은 서울(인천)시의 기준 적용
 ③ 현행대로 유지 ④ 기타()

X 고양시 특성항목

43. 귀하는 다음 중 "고양시"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고양국제꽃박람회 ② 호수공원 ③ 키텍스
 ④ 행주산성과 서오릉서삼릉 ⑤ 라페스타와 웨스턴루트 ⑥ 북한산
 ⑦ 기타()

44. 귀하는 고양시의 시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5 귀하는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자리 정책 ② 보건·복지 정책 ③ 교육 정책
 ④ 문화·예술 정책 ⑤ 주민자치 활성화 ⑥ 교통 정책
 ⑦ 안전 정책 ⑧ 환경 정책 ⑨ 기타()

46 귀하는 다음 제중분야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6-1 여성 정책

- ① 출산 지원
 ② 영유아 보육 지원
 ③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④ 여성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
 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서비스
 ⑥ 안심귀가 서비스 등 여성안전 강화
 ⑦ 여가문화 시설 및 서비스 확대
 ⑧ 기타()

46-2 노인 정책

- ① 일자리 제공
 ②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③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④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확대
 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⑥ 기타()

46-3 청년 정책

- ① 청년채용 확대
 ②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③ 취업 및 창업 지원
 ④ 직업 교육 지원
 ⑤ 등록금,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
 ⑥ 여가문화 시설
 ⑦ 기타()

47 귀하는 다음 중 고양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축산업 육성 ② 회계산업 육성 ③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④ 4차 산업 육성 ⑤ 중소·벤처기업 육성 ⑥ 사회적 경제 육성
 ⑦ 기타()

4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비스(온라인 포함)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48-1 상응도

② 없다 → 48 상응도

48-1 공공기관 민원서비스를 받았다면 어느정도 만족 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 48 상응도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 48-2 상응도
 ⑤ 매우 불만족

48-2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원의 불친절
 ② 담당자 전문성 결여
 ③ 신속하지 못해서
 ④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⑤ 긍정하지 못해서
 ⑥ 편의 시설 미비
 ⑦ 기타()

49. 귀하는 고양시의 행정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하여 얻고 있습니까?

- ① 시청소식지(고양소식, 고양in 행복人) ②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③ 시청 홈페이지 ④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⑤ 언론(신문, 방송, 케이블TV 등) ⑥ 시청 문자알림서비스
 ⑦ 주변 사람 ⑧ 기타()

50. 귀하는 현재 자신을 둘러싼 생활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분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주거	①	②	③	④	⑤
2. 경제	①	②	③	④	⑤
3. 고용(일자리)	①	②	③	④	⑤
4. 가족사회적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주민자치(참여)	①	②	③	④	⑤
6. 교육보육	①	②	③	④	⑤
7.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①	②	③	④	⑤
8. 교통	①	②	③	④	⑤
9.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여가	①	②	③	④	⑤
11. 건강(의료·보건)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는 다음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분야	매우 신뢰함	어느 정도 신뢰함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매우 신뢰하지 않음
1. 가족	①	②	③	④	⑤
2. 이웃	①	②	③	④	⑤
3. 공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52. 귀 덕의 경제사정은 1년 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다소 좋아졌다 ③ 비슷하다
 ④ 다소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53. 귀하는 남북한 통일로 우리가 얻을 손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② 이익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③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손해가 어느정도 될 것이다 ⑤ 손해가 매우 클 것이다

※ 응답하신 분의 연락처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번호는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방법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① 면접조사 ② 응답자 기입식 조사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MEMO

부록2. 2019년 제 4회 고양시 사회조사 조사표(안) 가구원 설문지



윤인(인민일보)
 경기도 : 제21-004호
 고양시 : 제62-003호

동거비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9년 제4회 고양시 사회조사 조사표(안) [가구원]

인사말씀

고양시에서는 고양시민 여러분의 생활 및 의식 전반에 대해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고양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고양시 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정확한 응답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사표 작성 시 의문사항은 고양시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031-8075-2067) 또는 경기도청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조계팀(☎031-8008-293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	---------

조사표 기입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 응답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고 주된 응답은 1개만 기입하십시오.
- ◆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양력 [2004년 8월 26일(음력 2004년 7월 1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 조사표의 1년간은 2018. 8. 27 ~ 2019. 8. 26. 기간을 말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15 귀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small>※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성 등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작성</small>						
구분	대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대우 불만족	이용하지 않음
15-1. 지하철/경전철	①	②	③	④	⑤	⑥
15-2. 기차	①	②	③	④	⑤	⑥
15-3. 택시	①	②	③	④	⑤	⑥
15-4. 버스 (시내외, 마을, 광역)	①	②	③	④	⑤	⑥
	L> 15-1-1 상요도			L> 15-1-2 상요도		
15-1-1 버스 이용 시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mall>※ 선택 1-2개</small>				15-1-2 버스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small>※ 선택 1-2개</small>		
① 환승 할인 등 요금 저감 ② 정류소 버스도착 정보 ③ 버스이용 환경(차량, 정류소) ④ 타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 ⑤ 운전기사 친절도 ⑥ 기타()				① 차량 노후화, 불편 ② 운전기사 불친절 ③ 버스노선 부족, 불편 ④ 배차간격이 길다 ⑤ 배차간격이 불규칙 ⑥ 난폭운전, 부정차량과 ⑦ 차내 혼잡 ⑧ 기타()		

IV 문화와 여가

공연 및 스포츠 관람	
1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에 대해 관람횟수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17 상요도
① 음악 연주회 _____번 ② 영화 _____번 ③ 스포츠 _____번	④ 연극/마당극/뮤지컬 _____번 ⑤ 박물관/미술전시회(등 포함) _____번 ⑥ 기타() _____번
공연, 주말시간	
17 귀하는 평소 평일과 주말에 얼마나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small>※ <보기>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small>	
< 위 보기에서 번호 선택>	평일(____) 주말(____)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18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small>※ 선택 1-2개</small>	
① TV 시청(유선방송, IPTV 등) ②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③ 문화예술 참여(미술활동, 악기연주 등) ④ 스포츠 관람 ⑤ 스포츠 활동(축구, 테니스, 골프 등) ⑥ 관광 활동(여행, 캠핑 등) ⑦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⑧ 취미 자기개발 활동(요리, 독서 등) ⑨ 휴식 활동(수면, 사우나 등) ⑩ 사회 및 기타활동(봉사 활동 등) ⑪ 기타()	

<p>18-1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합니까?</p> <p>① 매우 만족</p> <p>② 약간 만족</p> <p>③ 보통</p> <p>④ 약간 불만족</p> <p>⑤ 매우 불만족</p> <p style="text-align: right;">ID 상으로</p> <p style="text-align: right;">18-1-1 상으로</p>	<p>18-1-1 불만족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p> <p>② 시간이 부족하여</p> <p>③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하여</p> <p>④ 여가시설이 부족하여</p> <p>⑤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p> <p>⑥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p> <p>⑦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p> <p>⑧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p> <p>⑨ 기타()</p>
관광 경험 및 개선방안	
<p>1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p> <p style="text-align: right;">19-1-1-1 상으로</p> <p>② 없다 →</p> <p style="text-align: right;">20 상으로</p>	<p>19-1 관광지 선택 시 정보는 어디서 얻으십니까?</p> <p>① 인터넷, 모바일 앱</p> <p>② TV, 신문</p> <p>③ 관광안내 서적</p> <p>④ 지인 소개</p> <p>⑤ 기타()</p> <p>19-2 관광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이동거리 및 교통편용이</p> <p>② 관광지 지명도</p> <p>③ 저렴한 여행경비</p> <p>④ 다양한 볼거리</p> <p>⑤ 기타()</p> <p>19-3 관광지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p> <p>① 다양한 채널의 여행정보 제공</p> <p>② 숙박시설의 개선 및 확충</p> <p>③ 음식점 위생 개선 및 안전 발급 안내</p> <p>④ 쇼핑시설 다양화(특산물 등)</p> <p>⑤ 바가지요금 근절</p> <p>⑥ 기타()</p>

V 소득과 소비

개인 소득 만족도	
<p>20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 모두 포함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인 자(양력 2000년 8월 26일(음력 2000년 7월 27일 이전 출생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p> <p>① 있다 → 본인의 소득에 만족합니까? ② 없다 → 21 상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소비생활 만족도	
<p>21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인 자(양력 2000년 8월 26일(음력 2000년 7월 27일 이전 출생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p> <p>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p>	
소득분배 정도	
<p>22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빈부격차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p> <p>① 매우 긍정 ② 약간 긍정 ③ 보통 ④ 약간 불긍정 ⑤ 매우 불긍정</p>	

VI 사회통합과 공동체

자원봉사 참여

2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횟수(연간)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미** 알므로

활동 분야	연간 참여횟수	1회 평균시간
27-1.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방과 후 교실 등)	___ 회	___ 시간
27-2.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마을정소, 방범 활동 등)	___ 회	___ 시간
27-3.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육지도 등)	___ 회	___ 시간
27-4.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스포츠,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	___ 회	___ 시간
27-5.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등 관련(해외 구호 포함)	___ 회	___ 시간
27-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관공서 업무 지원, 무료 상담 등)	___ 회	___ 시간

기부

2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후원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 기부 : 가족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금(후원금) 또는 물품(음식, 옷, 책, 장난감 등)을 제공

① 있다

② 없다 — **미** 알므로

활동 분야	연간 참여횟수
25-1.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	___ 회
25-2.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방송사, 신문사 등)	___ 회
25-3. 모금단체(기관), 후원후원단체를 통한 후원	___ 회
25-4.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종교에 내는 헌금은 제외)	___ 회
25-5.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___ 회
25-6. 기타()	___ 회

삶에 대한 만족도

25.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일의 가치

26.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가치 있다 ② 약간 가치 있다 ③ 보통 ④ 별로 가치 없다 ⑤ 전혀 가치 없다

대중에 대한 신뢰

27.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신뢰할 수 있다 ② 약간 신뢰할 수 있다 ③ 보통 ④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회적 계층의식

28. 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 고려)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상 ② 상하 ③ 중상 ④ 중하 ⑤ 하상 ⑥ 하하

31-3-1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조사대상 : 임금근로자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31-3-1-1. 하근 일	㉠	㉡	㉢	㉣	㉤
31-3-1-2. 임금수준	㉠	㉡	㉢	㉣	㉤
31-3-1-3. 고용 안정성	㉠	㉡	㉢	㉣	㉤
31-3-1-4. 근무환경	㉠	㉡	㉢	㉣	㉤
31-3-1-5. 근로시간	㉠	㉡	㉢	㉣	㉤

경력단절여성 ※ 만 19~54세 여성만 작성	
※ 조사대상 : 만 19세~54세 [양력 2000년 8월 26일(음력 2000년 7월 27일) - 1965년 8월 26일(음력 1965년 7월 30일)]까지 출생한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32 귀하는 전에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32-1 직장 또는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선택 1~2개	
㉠ 있다 → 32-1 항목으로 ~ 32-2 항목으로 ㉡ 없다 → 33 항목으로	㉠ 결혼 ㉡ 육아 ㉢ 가족 돌봄(육아 제외) ㉣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불만족 ㉤ 직장의 휴업/폐업 ㉥ 기타()	㉠ 임신, 출산 ㉡ 자녀의 교육(초등학생) ㉢ 본인의 건강문제 ㉣ 일시, 계절적 일의 완료 ㉤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32-2 다시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32-2-1 다시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한다면 하고 싶은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 다시 일할 생각 있다 ㉡ 다시 일할 생각 없다 - 33 항목으로	㉠ 결혼 전까지만 ㉡ 첫 자녀 출산 전까지만 ㉢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으로 졸업한 후 ㉣ 자녀가 중학교 이상으로 졸업한 후 ㉤ 가장 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 ㉥ 기타() - 32-2-1 항목으로	㉠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전일제 ㉡ 시간제

VIII 기타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및 개선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금액(공제기준: 서울시 인천시 5,400만원, 경기도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3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서울(인천)시 보다 적은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매우 잘 알고 있음 - 33-1 항목으로 ㉡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33-1 항목으로 ㉢ 물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함 - 33 항목으로 ㉣ 물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름 - 33 항목으로	
33-1 귀하는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서울(인천)시 지역과 동일한 공제기준 적용 ㉡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수원 고양 등)은 서울(인천)시의 기준 적용 ㉢ 현행대로 유지 ㉣ 기타()	

41. 귀하는 고양시의 행정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시청소식지(고양소식, 고양in 행복人) ②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③ 시청 홈페이지 ④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⑤ 언론(신문, 방송, 케이블TV 등) ⑥ 시청 문자알림서비스
 ⑦ 주변 사람 ⑧ 기타()

42. 귀하는 현재 보인을 둘러싼 생활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분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주거	①	②	③	④	⑤
2. 경제	①	②	③	④	⑤
3. 고용(일자리)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사회적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주민자치(참여)	①	②	③	④	⑤
6. 교육 보육	①	②	③	④	⑤
7.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①	②	③	④	⑤
8. 교통	①	②	③	④	⑤
9. 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여가	①	②	③	④	⑤
11. 건강(의료·보건)	①	②	③	④	⑤

43. 귀하는 다음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분야	매우 신뢰함	어느 정도 신뢰함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매우 신뢰하지 않음
1. 가족	①	②	③	④	⑤
2. 이웃	①	②	③	④	⑤
3. 공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44. 귀 덕의 경제사정은 1년 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다소 좋아졌다 ③ 비슷하다
 ④ 다소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45. 귀하는 남북한 통일로 우리가 얻을 손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② 이익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③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손해가 어느정도 될 것이다 ⑤ 손해가 매우 클 것이다

※ 응답하신 분의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번호는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방법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① 면접조사		
② 응답자 기입식 조사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MEMO

Abstract

A Social Survey-Based Analytical Study of Goyang Citizens' Policy Demands and Social Characteristics

Shin Hee Yun*

1. Research Summary

Research background

Use and limitations of social surveys

- Existing social survey reports provide an overview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lives Goyang citizens enjoy. Although these reports are worth reviewing, they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in terms of the significance of their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from a policy perspective.
- Leveraging massive budgets and manpower, these reports have yielded high-quality data by deploying scientific research designs and sampling methods that comply with research procedures. Nonetheless, systematic research is still lacking.
- In addition to using statistical analysis and classification methods that reflect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researchers need to use various approaches to tak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administrative unit (such as district or gu) into consideration.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 Researchers also need to share their in-depth analytical findings in addition to the results of their technical analyses.

Research objective

- Utilizing social survey data from Goyang city, this study analyzes citizens' policy demands from an exploratory perspective.
- The analysis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city's social survey data can be used as underlying data for systematic and objective municipal administration.
- The study also analyzes ways to utilize this data in a sustained manner.

Definition of social surveys

- The social survey has been administered annually since 2016. In principal, researchers conduct visits and interviews face-to-face. A self-recording method can also be employed. Survey participants include household members older than 15 who reside in the sample households. 15 households sampled from each of the total 106 survey districts are surveyed.

2. Analysis of Goyang Citizens' Policy Demands

Analysis of Goyang citizen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olicy demands

○ **Social welfare-related sectors with a higher priority**

- Two major programs : childbirth & childcare support and senior citizen welfare.

○ **Job creation is a higher priority**

-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identified job creation as a higher priority.

○ **Goyang city's job creation programs**

- Citizens also view policies to support small and venture business as a top priority.

- **Programs on which Goyang city places a special emphasis**
 - The lion's share of citizen are concerned about policy programs for job creation and childbirth support
- **Demand for women-focused policies**
 - A significant number of respondents demanded programs to help women with a career break return to work or start their own business.
-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 Job creation is a top priority.
- **Programs for youth**
 - Employment/business start-up support programs are of top priority.

3. Analysis of Goyang Citizens' Quality of Life

- Analysis of Goyang citizen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olicy demands
 - **Daily life**
 - For transportation, the average passenger satisfaction ratings with train and bus services in Deogyang-gu are higher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in either Ilsandong-gu or Ilsanseo-gu.
 - For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the average leisure life satisfaction ratings in Ilsandong-gu and Ilsanseo-gu are higher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in Deogyang-gu.
 - For jobs and labor, the average job stability and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ratings in Ilsandong-gu are higher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in Deogyang-gu.

- For Goyang's municipal administration, the average municipal administration satisfaction rating in Deogyang-gu is higher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in either Ilsandong-gu or Ilsanseo-gu.

○ **Environment**

- For living environment, the average residential satisfaction rating in Ilsanseo-gu is higher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in either Deogyang-gu or Ilsandong-gu.
- The average environment (water quality, the air, noise) satisfaction ratings in Deogyang-gu and Ilsanseo-gu are higher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in Ilsandong-gu.
- The average traffic satisfaction rating in Deogyang-gu is higher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in either Ilsandong-gu or Ilsanseo-gu, while the average safety (life safety and disaster safety) satisfaction rating in Ilsanseo-gu is higher than in Ilsandong-gu.
- The average satisfaction ratings with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health (medical care, sanitation) in Ilsandong-gu and Ilsanseo-gu are higher in term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in Deogyang-gu.

○ **Analysi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life**

- It has been generally confirmed the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are highly correlated with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variables.
- However, subway service satisfac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while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between the age of subway passengers and satisfaction ratings with subway service.
- By region, train and bus satisfaction in Deogyang-gu is higher than in either

Ilsanseo-gu or Ilsandong-gu,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in Ilsandong-gu is higher than in Deogyang-gu, while satisfaction with life and municipal administration in Deogyang-gu is higher than in either Ilsandong-gu or Ilsanseo-gu.

- Job stability satisfaction in Deogyang-gu is lower than in Ilsandong-gu, while employment satisfaction in Deogyang-gu is higher than in Ilsandong-gu.
- Satisfaction with economic life in Deogyang-gu is lower than in Ilsanseo-gu, whil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family and society in Deogyang-gu is higher than in Ilsanseo-gu.
-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water quality, the air, noise) in Deogyang-gu is higher than in Ilsandong-gu, while satisfaction with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in Deogyang-gu is lower than in Ilsandong-gu.
- Satisfaction with health (medical care and sanitation) in Deogyang-gu is lower than in either Ilsandong-gu or Ilsanseo-gu.

4. Analysis of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the Current Status of Single-person Households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Propor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by administrative unit (district or gu)

-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by administrative unit confirm that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Deogyang-gu has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Ilsandong-gu and Ilsanseo-gu.
- In the case of Deogyang-gu,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in four districts (Samsung-dong, Sungsa 1-dong, Wonshin-dong and Jugyo-dong) accounts for over 20% in the entire region.

○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administrative unit (district or gu)**

- The analysis confirms that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administrative uni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Ilsandong-gu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llowed by Deogyang-gu and Ilsanseo-gu.
- In Deogyang-gu, there are two administrative districts (Samsong-dong and Wonshin-dong) where one-person households comprise over 30% of all households, while 30% of the households in two districts (Baeksok-dong and Janghang-dong) in Ilsandong-gu are also one-person households.

5.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 There are marked differences in response ratios depend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 Gaps exist in overall response patterns and responses from actual policy demanders.
 - To devise effective policies, policymakers need to gather opinions, not from all Goyang citizens, but from policy-specific groups of people, and further segment their feedback socio-economically.
-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consisting mainly of senior citizens, a special focus needs to be placed on supporting their medical welfare.
-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 satisfaction level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relatively high.